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

- 퀴어 인물을 중심으로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최 수 현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

- 퀴어 인물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윤 대 석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최 수 현

최수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_____고 정 희_____ ㊞

부위원장 _____김 종 철_____ ㊞

위 원 _____윤 대 석_____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소설 읽기에서 인물의 젠더에 주목하여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개념과 과정을 밝히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물의 젠더를 인물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파악하며, 젠더에 내재한 모호성에 초점을 맞춰 젠더를 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인물은 소설 해석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서 문학교육 내에서도 인물 중심의 소설 교육은 많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때 인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로 인물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젠더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의 정보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인물의 젠더는 본질적으로 투명하지 않으며 독자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인물 해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때문에 젠더는 단순히 사실 판단의 문제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탐구의 대상으로 새롭게 발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디스 버틀러(Butler. J.)의 논의를 인용하여 젠더를 여러 표지들에 의해 구성되는 불확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볼프강 이저(Iser. W.)의 빈자리 개념을 참조해 지금까지 빈자리로서 기능하지 않았던 인물의 젠더를 빈자리로 새롭게 발견해내고자 했다. 텍스트의 빈자리는 독서 과정에서 독자에 의해 발견되고 채워지는 소설의 불확정적인 간극으로서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인물의 젠더를 이러한 빈자리로 발견하는 것은 독자가 젠더를 텍스트 해석의 자원으로 삼아 '젠더'라는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텍스트와 보다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란 인물의 젠더를 소설의 빈자리로서 발견하고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는 읽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퀴어 인물을 통해 이러한 젠더 구성의 가능성을 발견해보고자 했는데,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된 퀴어 인물의 경우 인물의 젠더 안에 존재하는 균열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

러내주기 때문이다. 학습 독자는 이러한 퀴어 인물을 통해 인물의 젠더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되며, 나아가 기존의 소설들에 있어서도 젠더 구성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의미들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과정은 1) 인물 젠더의 모호성 인식 2) 인물의 젠더 구성 3)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텍스트 자기화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학습 독자의 해석 텍스트와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학습 독자들이 이러한 단계를 거쳐 젠더 구성을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 독자는 먼저 인물 젠더의 모호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이러한 모호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젠더의 모호성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독자가 인물의 젠더를 구성하도록 이끌었는데, 이 과정에서는 사회적 통념과 반성적 추론이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젠더 구성의 과정은 독자가 개인적, 사회적 젠더 인식을 성찰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텍스트를 재의미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학습 독자의 읽기 과정에서는 한계 양상 역시 함께 드러났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인물 젠더의 모호성을 간과한 경우, 고정적 젠더 인식을 재생산한 경우, 젠더의 무화를 통해 관습적 교훈을 도출한 경우의 세 가지 양상을 한계로 파악해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교육의 목표로는 소설 읽기에서의 인물 독해 능력의 신장과 구성적 관점에서 인물 젠더에 대한 이해의 함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성찰을 통한 타자 이해의 확장을 이야기하였고, 이를 위한 교육의 내용을 '인물과 젠더의 관계 인식', '퀴어 인물을 통한 비고정적 젠더 이해', '인물 이해를 통한 텍스트 재인식'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교육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젠더에 따른 인물의 재현 및 독해 양상 비교', '젠더 표지 기술을 통한 인물의 젠더 구성', '분절적 읽기를 통한 텍스트 재해석 및 해석 내용의 공유'를 제시하였다.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는 인물의 젠더를 새로운 해석의 자원으로 삼아 인물 해석의 폭을 넓히고 소설 읽기의 방법을 다양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는 인물의 젠더를 텍스트의 빈자리로 새롭게 발견하

여, 학습 독자의 능동적 읽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젠더 구성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덧붙여 이를 통해 학습 독자는 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설을 자기화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며, 이는 학습 독자에게 유의미한 문학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젠더 구성, 빈자리, 인물 이해, 퀴어, 소설 읽기 교육
학 번 : 2020-27642

목 차

국문초록 ····· i
목 차 ····· v

I. 서론 ·····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2. 연구사 검토 ····· 3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9

II.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이론적 탐구 ····· 20
1.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정의 ····· 20
1) 소설 읽기에서 인물의 해석적 기능 ····· 20
2) 젠더의 구성적 성격과 퀴어 인물의 개념 ····· 24
3)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정의 ····· 29
2.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과정 ····· 32
1) 인물 젠더의 모호성 인식 ····· 33
2) 인물의 젠더 구성 ····· 37
(1) 사회적 담론에 의한 젠더 표지 발견 ····· 37
(2) 반성적 추론을 통한 인물의 젠더정체성 구성 ····· 43
3)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텍스트 자기화 ····· 46
3.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의의 ····· 52
1) 작중 인물 이해의 다양성 신장 ····· 52
2) 불확정성 인식을 통한 소설 감상 능력 확대 ····· 53

3) 비동일적 정체성에 기반한 타자 이해 심화 ····· 54

III.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학습자의 소설 읽기 양상 ····· 56

1. 인물 젠더의 모호성 인식 양상 ····· 57

1) 젠더의 모호성에 대한 어려움 호소 ····· 57

2) 젠더의 모호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 60

2. 인물의 젠더 구성 양상 ····· 63

1) 사회적 통념에 의한 확정적 젠더 구성 ····· 64

2) 반성적 추론을 통한 불확정적 젠더 구성 ····· 72

3.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텍스트 자기화 양상 ····· 78

1) 개인적·사회적 젠더 인식에 대한 성찰 ····· 79

2) 성찰에 기반한 텍스트 재의미화 ····· 84

4.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한계 ····· 91

1) 인물 젠더의 모호성 간과 ····· 92

2) 고정적 젠더 인식 재생산 ····· 96

3) 젠더의 무화를 통한 관습적 교훈 도출 ····· 101

IV.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설계 ····· 105

1.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 ····· 105

2.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내용 ····· 107

1) 인물과 젠더의 관계 인식 ····· 107

2) 퀴어 인물을 통한 비고정적 젠더 이해 ····· 109

3) 인물 이해를 통한 텍스트 재인식 ····· 111

3.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방법 ····· 113

1) 젠더에 따른 인물의 재현 및 독해 양상 비교 ····· 115

2) 젠더 표지 기술을 통한 인물의 젠더 구성 ····· 118

3) 분절적 읽기를 통한 텍스트 재해석 및 해석 내용의 공유 ····· 121

V. 결론 ····· **124**

참고문헌 ····· 127
Abstract ····· 137

표 목 차

[표 1. 예비실험 개요] ····· 16
[표 2. 본실험 개요] ····· 17
[표 3. 젠더 표지의 분류] ····· 39
[표 4.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 ····· 113
[표 5. 젠더에 따른 인물 독해 양상 비교 자료의 예시] ····· 116
[표 6. 젠더 표지 기술 양식] ····· 119

그 림 목 차

[그림 1. 교수·학습 과정의 실제] ····· 114

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소설 읽기에서 인물의 젠더가 지닌 불확실성에 주목하여, 젠더 구성을 통해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함을 밝히고 독자의 소설 읽기 지평을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물은 소설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문학교육 내에서도 소설의 이해와 감상의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어진 바 있다.[1] 기존의 인물 이해 교육은 주로 텍스트 내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위치, 혹은 인물의 성격 및 가치관에 대한 독자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인물에 대한 보다 특수한 접근을 통해 새로운 인물 이해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인물의 젠더에 초점을 맞춰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을 구안해보고자 한다.

볼프강 이저는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 공통적인 상황이나 틀이 주어지지 않은 것에서 둘 사이에 근본적인 비대칭이 나타남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비대칭에서 기인한 미정성이 텍스트와 독자 간 의사소통의 본질적 구성요소가 됨을 지적한다. 이저는 이를 '빈자리'로 개념화하는데, 이러한 빈자리는 독자가 진술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상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능동성을 자극한다.[2] 즉 텍스트에는 독자가 독서 과정에서 채워나가야 할 빈자리가 내재하며 이러한 빈자리를 통해 독자와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빈자리는 주로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에 한정되어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표지들을 통해 확정적인 것처럼 재현되는 인물의 젠더는 빈자리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젠더는 독자가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디스 버틀러의 논의를

---

1)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175면.
2) Iser. W., 이유선 역, 『독서행위』, 신원문화사, 1993, 269-271면.

참조해 이러한 젠더가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판명될 수 없는 요소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버틀러는 젠더가 고정된 것이 아닌 언제나 행위를 통해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관점을 차용해 본고에서는 소설에서 인물의 젠더를 판단보다는 구성의 대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인물의 젠더는 본질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요소이지만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젠더는 여성/남성으로 이분화되어 명확하게 재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때문에 학습 독자가 기존의 소설들에서 자발적으로 젠더의 빈틈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그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퀴어 인물은 규범적 젠더의 바깥 혹은 경계에 있는 인물로서 이러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퀴어 인물을 통해 학습 독자가 젠더의 모호성을 발견하고 젠더 구성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소설 일반으로 젠더 구성의 방법을 확장시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퀴어 인물은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된 인물로, 젠더에 내재한 모호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 독자가 젠더 구성의 과정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젠더 구성이란 독자가 인물의 젠더를 텍스트의 빈자리로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설 내의 표지들을 이용해 젠더의 빈칸을 채우고자 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며, 이때 퀴어 인물에게서 드러나는 여러 충돌하는 표지들은 인물의 젠더를 단순한 판단의 문제로 볼 수 없도록 한다. 이처럼 인물 젠더 구성의 과정은 결코 인물의 젠더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젠더의 작용 방식에 대한 사고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퀴어 인물은 이러한 모호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학습 독자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습 독자가 젠더 구성의 과정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는 퀴어 인물에 한정된 사고로 끝나지 않고 기존의 소설들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소설 읽기의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인식되어야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인물 젠더 구성이 기존의 소설 읽기에도 반성적

사고를 견인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소설 읽기의 방법으로서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물의 젠더는 인물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인물 젠더 구성의 개념은 무엇이며 그를 통한 소설 읽기는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셋째,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과정은 독자에게 어떠한 문학적 효용을 가능하게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 규명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의 '젠더'를 소설의 빈자리로서 새롭게 발견해냄으로써 독자에게 인물 해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인물과 젠더의 관계에 대한 탐구로서 의의를 지니며, 빈자리라는 불확정성에 주목해 소설 읽기의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소설 감상 능력의 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독자가 구성적 관점에서 젠더를 사고하는 것은 정상성을 기준으로 젠더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해 타자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2. 연구사 검토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을 위해 소설 교육에서 인물과 젠더에 관한 제반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고에서 퀴어 인물을 젠더 구성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퀴어 인물에 대한 연구 역시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는 1) 인물 중심의 소설 교육 연구 2) 문학교육에서 인물의 젠더정체성에 대한 연구 3) 퀴어 인물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인물 중심의 소설 교육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인물은 소설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설 교육에서 인물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 인물을 중심으로 한 작품 이해에 대한 연구로 최인자(1993)[3]는

3) 최인자, 「작중 인물 의미화를 통한 소설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인물을 환경과의 교호작용에 의해 의미를 획득하는 것으로 파악해 그에 따른 읽기의 방식을 유형화하여 인물을 통한 작품 이해를 겨냥하였다. 구체적으로 인물에 대한 대리체험의 두 방식을 '동화'와 '거리두기'로 설정해 독서 방법을 구안하였다. 선주원(2004)[4] 역시 언어적 이미지를 작중 인물의 의식과 행위와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며 텍스트 전체를 의미화하는 소설 교육을 제안했다.

김효정(2007)[5]은 공감을 핵심적 요소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지만, 앞선 연구들과 유사하게 학습자들이 문학 수용 과정에서 '작중인물'에 가장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공감의 양상을 (1) 작중인물의 정서 재현, (2) 작중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 (3) 작품을 매개로 한 작품 외적 대상의 포용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공감은 앞서 최인자(1993)가 이야기한 '동화'와도 유사하다. 이때 공감은 작중 인물의 심리를 탐색하는 것으로서 텍스트 해석의 과정으로도 여겨진다는 점에서 인물을 매개로 한 소설 교육 방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인물을 작품 이해를 위한 매개적 요소로 파악하며, 인물을 전체 텍스트와의 의미망 속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젠더에 기반한 인물 이해가 새로운 작품 이해로 나아갈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위의 연구들과 맥락을 공유하지만, 젠더 구성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인물 탐구의 과정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이는 인물에 대한 공감 및 동일시와는 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위의 연구들보다는 '인물' 자체에 초점을 맞춰 인물 이해 교육을 제시한 다음의 연구들과 유사성을 지닌다.

최시한(2005)[6]은 '성격소'를 중심으로 인물 중심의 소설 읽기 방법을 논의한다. 특히 성격의 파악이 중심사건 및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설 이해에 핵심적임을 주장했다. 이상일(2014)[7] 역시 성격소와 비슷하게 '인물 정보소' 개념을 제안하였다. 특히 그

---

4) 선주원, 「작중 인물 이해를 통한 소설교육 연구-언어적 이미지와 상징성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67, 한국국어교육학회, 2004.
5) 김효정, 「문학 수용에서의 공감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6) 최시한, 「소설 읽기지도 방법의 모색(2) -인물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7) 이상일, 「고전소설의 인물 이해 교육 연구: 인물 정보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

동안 소설 교육에서 인물에 대한 연구가 인물을 중심으로 한 작품 이해에 대한 연구와 인물 형상화 방식에 주목한 연구의 두 갈래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이들과 구분되는 '인물 이해' 연구라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 경우 인물 이해는 인물 정보소를 중심으로 하여 해석과 자기화를 거쳐 달성되는 것으로 제시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물의 성격이나 정보에 대한 이해가 아닌 인물의 젠더 구성을 통한 인물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그러나 이상일(2014)이 이야기한 해석과 자기화의 과정은 본 연구의 젠더 구성 및 텍스트 자기화의 단계가 놓인 맥락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학교육에서 인물의 젠더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관련 연구는 아직 미진하나 고전 연구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고전소설의 여성인물의 경우 공적 영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남장'이라는 선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남성적 정체성을 지닌 여성이 다수 등장한 바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 인물의 젠더정체성을 논의한 연구가 존재한다.

이유경(2016)[8]은 고전 여성영웅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인물의 젠더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 형성 양상을 살폈다. 특히 여성영웅이 여성성과 남성성이 대립하면서도 공존하는 존재로서 이분법적인 젠더 체계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여성영웅은 사회적 성 역할 규범을 벗어나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젠더가 주어진 것이 아닌 행위와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젠더 구성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는데, 다만 이 연구에서 역시 젠더를 생물학적 성에 순응하거나 반항하는 양가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젠더이분법의 체계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달리 젠더정체성을 이분화된 것으로만 파악하지 않으며 젠더가 여러 균열을 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위논문, 2014.

8) 이유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그 교육적 의미-〈홍계월전〉과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노지승(2010)[9]의 경우 전후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젠더정체성이 개인에게 문제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특히 분열적 남성성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이는 젠더정체성의 논의가 주로 여성에 한정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데, 특히 이 논의는 젠더정체성이 인물을 견고하게 지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결코 개인에게 완전하게 체화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인물의 젠더를 고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며,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젠더 구성의 과정은 이와 같은 젠더의 복합적 측면을 들여다 보도록 한다.

인물의 젠더정체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자의 젠더 인식과 관련한 연구들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물의 젠더에 근거해 독자의 달라진 젠더 인식이 드러남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정수(2018)[10]는 대학 전공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비심미적 독서 경향을 분석하는데, 특히 젠더 문제에 있어 학생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지적한다. 이러한 현상을 기존의 심미적 독서로 분석되지 않는 새로운 문학적 태도와 감수성으로 파악하며, 이러한 새로운 감수성에 기반해 소설에 대한 해석의 폭이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박은정(2020)[11] 역시 유사한 관점에서 대학 교양 글쓰기 수업으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대해 '젠더적 관점에서 비판적 다시 쓰기' 활동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운수 좋은 날」은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이 두드러진 제재로 학습자들은 다시 쓰기를 통해 이에 대한 전복을 꾀하고 새로운 결말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앞선 연구와 같이 학습자들의 새로운 문학적 태도를 겨냥한 수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수진(2021)[12] 또한 젠더 인식에 있어 변화된 독자의 기대지평을 중심으로 하여 젠더 문제와 관련해

9) 노지승, 「전후 소설에 나타난 남성 정체성의 문제와 문학교육적 함의-서기원·손창섭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3, 한국문학교육학회, 2010.
10) 손정수, 「한국 소설의 수용 의식에 나타나고 있는 비심미적 독서 경향과 그 문학 교육적 의미 - 수업 과정에서 젠더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9, 반교어문학회, 2018.
11) 박은정, 「젠더적 관점에서 비판적 다시 쓰기 수업 사례와 의의」, 『리터러시연구』 11(3), 한국리터러시학회, 2020.
12) 이수진, 「독자 기대지평 변화에 따른 소설 읽기 교육 연구 -젠더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기존 정전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어떻게 새로운 텍스트 해석의 가능성으로 변모시킬지를 논의하였다.

즉 현재 독자들은 소설 읽기의 과정에서 새로운 감수성에 기반해 인물을 가감 없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물의 젠더는 이러한 감수성 발현의 중심에 놓여있다. 이는 인물의 젠더가 소설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물의 젠더를 고정적인 것이 아닌 구성적인 것으로 파악하도록 하여, 인물에 대한 즉각적 평가보다는 인물의 젠더정체성이 지닌 중층적 면모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물을 이해하는 틀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퀴어 인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교육학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퀴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주로 퀴어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삶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진행되었다.[13] 문학교육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에게 퀴어 소설이 필요함을 논한 연구가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청소년문학'에 한정되며 퀴어 청소년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 소설을 통해 모방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을 찾도록 돕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별(2012)[14]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K라는 가상의 퀴어 청소년을 상정하여 그가 읽을 수 있는 퀴어 청소년소설의 수가 매우 적음을 지적했다. 편정인(2020)[15]은 같은 맥락에서 계층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억압받는 퀴어 청소년을 위한 한국 퀴어 청소년소설의 의의와 한계를 진단한다. 오세란(2019)[16] 역시 인권의 차원에서 퀴어 청소년소설을 분

13) 교육학 분야에서 퀴어에 대한 연구로는 주재홍,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로부터 알게 된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질적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3(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강병철·하경희, 「청소년 성소수자의 긍정적 성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19(2), 한국청소년학회, 2012; 조대훈, 「침묵의 교육과정을 넘어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사회과교육」, 『시민교육연구』 38(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퀴어 청소년을 가시화하여 인권교육의 차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시선을 교정할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14) 별, 「K의 LGBT 서가를 위하여: 국내에서의 퀴어 청소년소설 수용현황 검토」, 『삐라: 퀴어인문잡지』 1, 노트인비트윈, 2012.

15) 편정인, 「퀴어 청소년문학의 터전을 마련하다」, 『문화연구』 8(1), 한국문화연구학회, 2020.

16) 오세란, 「LGBT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성소수자 인물의 정체성 구현 방식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5,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9.

석해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문제를 살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지적하는 퀴어 청소년 문학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들은 주로 퀴어를 동성애에 한정하여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모방적, 대안적 내러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인권교육의 차원에서 퀴어를 다루기보다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젠더의 작동 기제를 탐구하여 구성적으로 젠더를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이러한 젠더 구성의 과정은 동일적 젠더정체성이 아닌, 비동일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새로운 타자 이해를 지향하지만 이는 '동성애'라는 한정된 타자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한 혐오의 억제와는 차이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퀴어 인물은 소설에서 젠더가 명확하게 재현되지 않은 인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퀴어 인물에 대한 젠더 구성은 연극의 젠더 크로스 캐스팅(gender cross-casting) 혹은 젠더 프리 캐스팅(gender free-casting)과 맞닿아 있는 측면이 존재해 관련 연구를 살피고자 한다. 젠더 프리 캐스팅이란 기존 남성 위주의 서사에서 여성 배우에게 캐스팅에 있어 제약이 존재하는 것을 비판하며 생겨난 현상으로, 배역의 성별에 관계없이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젠더의 구분에 따른 위계를 전복시키는 하나의 시도이지만 단지 젠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제국과 식민지, 서양과 동양 등 다양한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와해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17]

한주연(2020)[18]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햄릿과 거투르드의 성별 교차를 통해 인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특히 기존의 젠더 프리 캐스팅이 이분법적 성별 구도를 유지한 채로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성별의 배역을 연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버틀러를 인용해 수행적 젠더정체성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젠더 프리 캐스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희정(2004)[19] 역시 두 연극 작품을 통해 젠더정체성의 이분법

17) 젠더 크로스 캐스팅과 관련한 내용은 한주연, 「'젠더' 관점에서의 인물 접근 방법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3면; 이희정, 「구성된 젠더 정체성의 해체: Cloud Nine과 M.Butterfly」, 『영학논집』 27,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2004, 83-84면을 참조하였다.

18) 한주연, 위의 글.

적 구도와 해체 과정을 설명한다. 젠더와 인종의 교차 배역(cross-casting)은 아내 역을 남성이 연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젠더가 '구성된' 것임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연구자는 버틀러의 논의를 중점으로 젠더정체성이 구성된 허구로서 젠더이분법적 구도가 와해될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위계의 전복과 해체 상황이 단순히 관계의 우열을 뒤집는 것으로 해소되지 않으며, 이후에도 내부적 불안정성과 다양성을 안고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젠더 프리 캐스팅은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젠더 구성과 유사한 지점을 지닌다. 인물의 젠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수행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그렇기에 젠더는 본질적으로 객관적 요소일 수 없다. 연극은 보다 직접적으로 이러한 전복을 드러내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소설에서 역시 이러한 시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젠더 구성은 종결을 지향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희정(2004)이 지적했듯 불안정성과 탈동일성에 대한 사고로 이어져 비동일적 정체성에 대한 사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습 독자의 해석 텍스트[20]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양상을 살피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소설 읽기

19) 이희정, 앞의 글.

20) 양정실(2006)은 학습 독자의 문학 '읽고 쓰기'를 '해석 텍스트 쓰기'로 재개념화하며, 해석 텍스트가 학습 독자의 해석 능력 신장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교육자료임을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해석 텍스트는 "학습 독자가 문학 텍스트에 대하여 중층적 관계를 설정하면서 해석의 관점과 논리를 구성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정의되며, 이러한 해석 텍스트에의 주목을 통해 학습 독자를 읽고 쓰는 활동의 주체로서 발견해내고 있다(양정실, 「해석 텍스트 쓰기의 서사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학습 독자가 소설 텍스트를 읽고 쓴 글에서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고유한 의미 해석이 나타난다고 보아 이를 해석 텍스트로 명명하였다.

교육의 방법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연구의 대상은 소설 텍스트 세 편과 학습 독자의 해석 텍스트 및 면담 자료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소설 텍스트는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된 퀴어 인물이 등장하는 텍스트로 황정은의 「뼈 도둑」(2012)과 한강의 「에우로파」(2012)를 주 텍스트로 삼되, 예비실험 단계에서는 최진영의 『해가 지는 곳으로』(2017)를 대상 텍스트에 포함하였다.[21]

대상 텍스트로는 학습 독자가 인물의 젠더를 빈자리로 발견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퀴어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젠더 구성의 과정은 기존의 인물 교육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기존 소설들을 통해 학습자가 인물의 젠더를 모호한 것으로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젠더가 확정적으로 제시된 인물의 경우에도 젠더 구성의 방법을 소설 읽기에 적용할 것을 지향하지만, 그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퀴어 인물을 통해 젠더 구성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텍스트 선정을 위해 퀴어 소설을 가능한 한 많이 살펴보고자 했는데, 퀴어 문학 종합 플랫폼인 《무지개 책갈피》[22]에서 대부분의 퀴어 문학을 정리해 소개해 놓았으나 양이 방대하여 모든 소설을 살펴볼 수는 없었다. 때문에 선정 기준을 두 가지로 정하였는데, 첫째로 동성애적 행위보다는 인격체로서의 퀴어가 등장하는 2000년대 이후 문학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23] 단순

---

21) 학습자에게 제공된 각 텍스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황정은, 「뼈 도둑」, 『파씨의 입문』, 창비, 2012; 한강, 「에우로파」, 『노랑무늬 영원』, 문학과지성사, 2018; 최진영, 『해가 지는 곳으로』, 민음사, 2017.

22) 《무지개 책갈피》(http://rainbowbookmark.com/new/)는 2015년에 발족된 퀴어문학종합플랫폼으로 퀴어를 소재로 한 국내외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퀴어의 시각을 담은 비판적 리뷰를 공유하는 등 한국퀴어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무지개 책갈피》 홈페이지 인사말 참조).

23) 정은경, 「현대소설에 나타난 "동성애" 고찰 - 천운영과 배수아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9, 현대소설학회, 2008, 83면; 이에 대해서는 천운영과 배수아의 젠더를 '교란'하고 '해체'하는 방식을 '동성애자의 등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존적 게이와 레즈비언이 소설에 재현되는 것은 2010년대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정혜경, 「퀴어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서사전략과 재현의 정치성」,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8(2),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276-277면).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보다는 '퀴어'로서 인물을 주목하고자 하기에 젠더를 해체하는 방식 역시 퀴어를 드러내는 중요한 서사전략이라고 파악하였다.

히 동성애적 행위가 드러난 소설에서는 인물을 이해의 대상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인물의 행위 자체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전체 소설 내에서 인물이 여성 혹은 남성으로 전혀 규정되지 않는 소설은 찾기 어려웠기에, 특정 젠더임을 밝히더라도 젠더를 모호하게 재현하려는 시도가 드러나는 소설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했다.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퀴어 소설과 관련한 비평들을 참고해 대상 텍스트를 「뼈 도둑」, 「에우로파」, 『해가 지는 곳으로』의 세 가지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소설은 게이,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을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젠더 구성의 모습을 보다 다층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소설의 일부를 제외하면 인물의 젠더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24]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한 텍스트라고 생각하였다.

『해가 지는 곳으로』[25]는 비교적 최근 출간된 최진영의 장편소설로 재난 상황 속 퀴어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퀴어 아포칼립스[26] 혹은 재난 속 사랑 담론의 연장선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27] 퀴어보다는 재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묵시록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인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28] 김건형은 이 작품을 바이러스 상황 속 생존-퀴어의 모습을 통해 생존이 다분히 젠더적임을 드러내주는 작품으로 평가하였다.[29]

이 작품의 경우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일반적인 여성, 남성의 특징들이 두 인물을 묘사하는 데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학습 독자들이 기초적으로

---

24) 각 소설에서는 '언니', '남자' 등의 호명으로 인물의 성별을 분명히 드러내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를 제외한다면 다양하게 일어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파악해 학습 독자에게는 일부분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뒤 발췌하여 제공하였다.

25) 『해가 지는 곳으로』의 대략적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정체 모를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쓴 뒤 사람들은 한국을 벗어나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며 중심인물들은 러시아로 탈주하게 된다. 소설은 여러 인물의 시점을 교차적으로 보여주는데 학습자들에게 발췌해 제공한 부분은 '도리'의 시점으로 서술된 부분이다. 부모를 잃고 장애가 있는 동생 '미소'를 책임지고 있는 도리는 지나의 가족을 만나 여정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도리와 지나는 여러 폭력을 경험하지만 끝내 소설은 두 인물의 사랑을 통해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26) 채태준, 「'한국형 아포칼립스 비판'에 질문하기-퀴어/세대 아포칼립스 『해가 지는 곳으로』를 중심으로」, 『문화연구』 8(1), 한국문화연구학회, 2020.

27) 서세림, 「재난 서사와 사랑 담론 -201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사이(SAI)』 29,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0.

28) 강경석, 「묵시록과 계급: 백민석의 '폭민'과 최진영의 여자들」, 『창작과 비평』 45(3), 창비, 2017.

29) 김건형, 「2018, 퀴어전사-前史·戰史·戰士」, 『문학동네』 25(3), 문학동네, 2018.

인물의 젠더를 무엇에 근거해 파악하는지 알아보기에 용이할 것이라 생각해 대상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특히 예비실험은 중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기에 난이도가 쉬운 소설을 선정하고자 하였고, 장편 소설 중 일부를 발췌해 제공하였다. 그러나 예비실험 결과 학습자의 젠더 구성 양상을 살피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실험에서는 대상 텍스트에서 제외하였다.[30]

「뼈 도둑」[31]은 2011년 『문학사상』 5월호에 발표된 황정은의 단편소설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금지된 폭력의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이 소설 역시 기존 황정은의 소설들이 경제적, 젠더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통해 폭력적 현실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그의 연장선으로 독해된 바 있다.[32] 이 소설은 퀴어 서사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33] 특히 '탈-식민주의' 전략을 통해 인정투쟁의 한계를 벗어나는 '탈정체성 서사'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퀴어 소설의 새로운 방향성을 이끌었다고 평가된다.[34] 「뼈 도둑」은 두 인물을 동성애자로 재현하고 있지만 퀴어 담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 독자들이 인물

---

30) 최진영의 『해가 지는 곳으로』는 예비실험과 1차 실험까지 대상 텍스트에 포함하였으나 이후 본실험에서는 제외되었음을 밝힌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독자들이 인물의 젠더보다는 소설 속 바이러스가 퍼진 상황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고, 장편소설 중 일부를 발췌해 사용하다 보니 전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독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1차 실험이 예비실험 약 한 달 이후에 이루어졌음에도, 2차 예비실험의 결과를 1차 실험을 실시한 뒤 받아보게 되어 최진영의 소설을 미처 제외하지 못한 채 1차 실험까지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예비실험 및 1차 실험의 결과로 이후 실험에서 최진영의 소설은 제외하였으며 그에 대한 학습 독자의 해석 텍스트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일부만 인용해 다루고자 한다.

31) 「뼈 도둑」의 대략적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인 '조'는 동성 연인인 '장'이 죽고 난 뒤 폐가에 고립되어 지낸다. 장의 가족들은 모태신앙인들로 조와 장이 함께 살던 집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빼앗으며 장례식장에서도 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 조는 이 과정을 무기력하게 수용하는데, 그러던 중 장의 뼈를 한 조각이라도 얻기 위해 폭설을 뚫고 납골당으로 여정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소설은 눈길 위를 걸어가는 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이 난다.

32) 윤국희, 「황정은 소설에 나타난 '윤리적 폭력' 비판」, 『한국근대문학연구』 20(2), 한국근대문학회, 2019.

33) 황정은의 「뼈 도둑」은 웹진문지문학상의 후보작에 올랐으며, 심사평에서 "가장 뼈아프고 반사회적인 사랑의 형태가 사랑의 궁극적인 가능성이자 불가능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애도와 진혼의 서사"라고 이야기된 바 있다(강계숙 외, 「심사 경위 및 심사평」, 『문학과사회』 25(1), 문학과지성사, 2012, 550면). 「뼈 도둑」을 퀴어와 관련해 다룬 연구로 최다정, 「퀴어와 연애하기-문화정치학으로 본 영화 〈줄탁동시〉와 소설 「뼈 도둑」」, 『삐라: 퀴어인문 잡지』 1, 노트인비트윈, 2012; 차미령, 「너머의 퀴어-2010년대 한국소설과 규범적 성의 문제」, 『창작과비평』 45(2), 창비, 2017; 김건형, 앞의 글.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34) 정혜경, 앞의 글.

의 젠더를 구성해내는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대상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특히 소설 내에서 재현되고 있는 억압적 사회 현실 등이 젠더 표지로 발견되는지를 살펴보기에 용이하며, 탈정체성의 측면에서도 학습 독자의 새로운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판단해 선정하였다.

「에우로파」[35]는 2012년 『문예중앙』 봄호에 발표된 한강의 단편소설로, 퀴어 중에서도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에우로파」는 『노랑무늬영원』에 수록되어 있는데, 한강 소설에 대한 연구가 주로 「내 여자의 열매」, 『채식주의자』 등에 집중된 경향을 보여 최근작이라 할 수 있는 『노랑무늬영원』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36] 그러나 「에우로파」는 주인공인 '나'를 통해 남성-여성이 무화된 상상적 타자를 지향하고 상징계를 비판하는 소설로 해석되며,[37] 때문에 이는 젠더이분법[38]에 대한 전복으로서 젠더 구성의 과정을 이끌어내기에 적합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에우로파」는 다른 두 소설보다 인물의 젠더를 교란적으로 파악할 여지가 더욱 많아[39] 학습

35) 「에우로파」의 대략적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 '나'와 인아는 대학시절 우연히 만난 친구로 '나'는 트랜스젠더로서 여성이 되고 싶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면서도 인아를 남자로서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을 느끼는 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인아는 불행했던 결혼 생활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으며, 현재는 이혼한 상태로 음반을 내고 클럽에서 공연을 하며 살아간다. 특히 인아의 이러한 가수 활동은 성소수자들의 권리와 관련한 것으로 암시되는데, 주인공이 크로스드레싱을 하고 저녁에 거리를 산책하는 일에도 인아는 함께한다. 인아를 사랑하는 동시에 인아가 되고 싶기도 한 주인공은 인아와의 이러한 불안정한 관계가 언젠가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 않은 채로 소설은 끝이 난다.

36) 한아름, 「한강 소설에 나타난 주체와 타자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2면; 차미령, 「너머의 퀴어-2010년대 한국소설과 규범적 성의 문제」, 『창작과비평』 45(2), 창비, 2017.에서는 「에우로파」를 퀴어 서사로서 다루며 폭력과 함께하는 가시화된 퀴어 존재에 주목한다; 이선우, 「'대낮'의 삶과 '밝아지기 전'의 윤리: 한강 『노랑무늬영원』(문학과지성사, 2012)」, 『자음과모음』 19, 자음과모음, 2013.에서는 「에우로파」가 실린 단행본 『노랑무늬영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며, 인물들을 죽음의 한 순간을 통과하면서 또 다른 심연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파악해 '죽음 앞의 삶'으로서 소설을 독해해 내고 있다.

37) 한아름, 앞의 글, 115면.

38) 젠더이분법은 오직 두 가지의 성별만이 존재하며 생물학적 성별이 사회적 성별을 규정한다는 사회문화적 믿음을 가리킨다. 젠더이분법은 단순히 이분법적 성별을 넘어서 성별 구분에 따른 남성성 및 여성성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며 나아가 서로 다른 성별 간의 성적 끌림만이 자연적이라는 이성애주의에 의해 지지되고 강화된다(Lorber, Judith and Lisa Jean Moore, Gendered bodies: Feminist perspectives, Los Angeles, CA: Roxbury Publishing Company, 2007, 손인서, 트랜스젠더의 젠더정체성 구성 -커뮤니티 동학과 젠더이분법의 재생산, 경제와 사회, 비판사회학회, 2018, 199면에서 재인용).

39) '나'가 MTF(Man to Female) 트랜스젠더로서 여성 인물에게 욕망을 느낀다는 점, 크로스 드레싱을 하며 거리를 산책한다는 점 등은 '나'의 젠더를 모호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

자들이 소설을 읽으며 인물의 젠더에 대해 많은 혼란을 느낄 것으로 보았다. 때문에 그러한 혼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에서 젠더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에 용이할 것이라 생각해 선정하였다.

위의 소설들은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진 바 없는 텍스트이지만, 현행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텍스트에서 젠더의 구성적 성격을 학습 독자가 스스로 발견해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퀴어 인물을 통해 젠더 구성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중간 단계로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퀴어 인물의 경우 이분법적 젠더 체계의 바깥에 존재하는 인물로서 학습자들이 고정적 젠더 인식을 반성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반성이 단순히 퀴어 인물에 한정된 이해가 아닌, 학습자에게 젠더 구성이라는 새로운 소설 읽기의 방법으로서 기존 소설들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물 및 젠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개념 및 과정을 밝히고, 그와 관련한 학습자 양상을 살핌으로써 구체적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Ⅱ장에서 이저, 잉가르덴, 버틀러, 리쾨르 등을 통해 소설 읽기에서 인물의 기능을 서사학 측면에서 살펴보고, 젠더의 구성적 측면과 퀴어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읽기의 과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전문 독자의 비평을 일부 참조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제시한 읽기 과정이 학습자들의 해석 텍스트에서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 양상을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에 대한 보완을 중심으로 Ⅳ장에서 구체적 교육의 모습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제 학습 독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의 절차와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

들이다.

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 점검과 문제의식의 정교화를 위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1차 예비실험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2차 예비실험은 해당 학교 교사를 통해 대리 실험을 진행하였고, 두 차례 모두 별도의 사전적 처치는 없이 이루어졌다. 1차 예비실험의 경우 중학생 수준에서 「뼈 도둑」과 「에우로파」를 감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해 두 소설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차 실험에서만 제공하였다. 예비실험에서는 감상문의 형식이 아닌 질문지에 대해 답을 하는 형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1차 실험과 2차 실험은 각각 여학생, 남학생을 대상으로 해 성별에 따라 드러나는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40] 예비실험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표로 제시하였다.

---

40) 1차 예비실험의 경우 중학생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 질문지를 고등학생 학습자에게 제공된 것보다 쉽게 구성하였으며, '젠더'가 아닌 '성별'로 질문지의 발문을 구성하였다. 2차 예비실험에서는 '젠더'로 발문을 제공했으나 뜻을 모르는 학습자들이 있을 경우를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이때 '젠더'를 성별로 설명한 것은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가 모두 '젠더'라고 설명했던 버틀러의 관점을 따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젠더를 단순히 '사회문화적 성'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섹스와 섹슈얼리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세부 구분을 학습 독자에게 모두 제시하기엔 인지적 부담이 클 것이라 생각해 학습 독자의 수준에서 세 가지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어휘로 '성별'을 다소 범박하게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생리학적인 '성'(sex)과 달리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별'(gender)을 이야기할 때에는 gender에 대한 번역어로 '성별'이 채택되기도 했음을 참조하였다(박혜숙,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고전문학연구』 14, 한국고전문학회, 1998). 덧붙여 2차 예비실험에서 「에우로파」의 경우 '인아'보다는 주인공인 '나'의 젠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질문지를 다른 두 소설과 차이가 있게 구성하였다. 예비실험에서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제공된 질문지의 발문은 다음과 같다.

1차 예비실험 〈해가 지는 곳으로〉 감상 후 질문지

1. 이 글은 '도리'의 관점에서 쓰인 글입니다. 도리와 지나의 성별을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써 주세요. 굳이 판단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겠는 경우엔 그렇게 써 주세요.
- 도리:
- 지나:
2.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설 내용 중에서 근거를 찾아 쓰거나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3. 1번 문항에서 판단한 것과 다르게 인물의 성별을 상상했을 경우 어색하거나 이상한 점이 있나요? 성별을 판단하지 않은 경우 여성이나 남성으로 그 인물을 상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4. 도리와 지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나요? 성별에 따라 둘의 관계를 다르게 생각하게 되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함께 써 주세요.
5. 발췌된 부분을 읽고 생각한 소설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세요.

[표 1. 예비실험 개요]

구분	실험기간	실험대상	실험인원 (성별)	대상 텍스트	기호
1차 예비 실험	21년 4월	서울 S중학교 2학년 총 128명	128명(여)	해가 지는 곳으로	㉠
2차 예비 실험	21년 7월	전북 G고등학교 1학년 총 14명	3명(남)	뼈 도둑	㉡
			4명(남)	에우로파	
			7명(남)	해가 지는 곳으로	

1, 2차 예비실험 결과 학습자들이 인물의 젠더를 나름대로 근거로 들어 판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2차 예비실험 〈뼈 도둑〉, 〈해가 지는 곳으로〉 감상 후 질문지
(〈해가 지는 곳으로〉의 경우 '그'와 '장'을 '도리'와 '지나'로 바꿔서 제시하였다.)

1. 이 글은 '그(조)'와 '장'의 이야기입니다. 두 인물의 젠더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소설에서 근거를 찾아 쓰세요. 인물의 젠더에 대한 자신의 느낌 또는 생각도 함께 쓰세요.
(*'젠더'란 성별을 뜻하는 말로 개인의 성정체성을 의미합니다.)
2. 1에서 생각한 인물의 젠더를 다르게 파악해볼 수 있나요? 그렇게 했을 경우 소설 해석에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함께 쓰세요.
3. '그'와 '장'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생각했나요? 각 인물의 젠더가 인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었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함께 쓰세요.
4.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5. 이 소설에 대한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2차 예비실험 〈에우로파〉 감상 후 질문지

1. 이 글은 '나'와 '인아'의 이야기입니다. 두 인물의 젠더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소설에서 근거를 찾아 쓰세요. 인물의 젠더에 대한 자신의 느낌 또는 생각도 함께 쓰세요.
(*'젠더'란 성별을 뜻하는 말로 개인의 성정체성을 의미합니다.)
2. 1에서 생각한 '나'(주인공)의 젠더가 '나'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었나요? 영향을 주었다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함께 쓰세요.
3. 1에서 생각한 인물의 젠더를 다르게 파악해볼 수 있나요? 그렇게 했을 경우 소설 해석에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함께 쓰세요.
4.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5. 이 소설에 대한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남녀의 이분법 및 이성애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고정관념', '통념' 등으로 지칭하며 자발적 점검의 태도를 보이는 학습자들이 존재했는데, 이는 인물의 젠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균열의 지점들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젠더 구성의 과정과, 젠더 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이에 본실험에서는 학습자들이 젠더 구성의 과정을 보다 유기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완결된 글로서의 해석 텍스트를 수집하고자 했다. 예비실험 결과 중학생 학습자에게는 젠더 구성의 수행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고등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총 3차에 걸쳐 학습 독자의 해석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역시 예비실험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사전적 처치는 없었으며, 해당 학교 국어 교사를 통해 대리 실험을 진행하였다. 1, 2차 실험에서 여학생들만이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3차 실험을 통해 남학생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자율성에 기반해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남학생 실험 참여자를 많이 모집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개요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본실험 개요]

구분	실험기간	실험대상	실험인원 (성별)	대상 텍스트	기호
1차 실험	21년 8월	경기 S고등학교 1, 2학년 총 15명	5명(여)	뼈 도둑	㉢
			5명(여)	에우로파	
			5명(여)	해가 지는 곳으로	
2차 실험	21년 8-9월	서울 K고등학교 1, 2학년 총 13명	7명(여)	뼈 도둑	㉣
			6명(여)	에우로파	
3차 실험	21년 8-9월	서울 E고등학교 1학년	18명(여) 5명(남)	뼈 도둑	㉤
			20명(여) 4명(남)	에우로파	

		총 47명			
4차 실험	21년 10월	서울 E고등학교 1학년 총 11명	4명(여) 1명(남)	뼈 도둑	면-학습 독자 기존 분류 기호
			4명(여) 2명(남)	에우로파	

본실험에서는 학습자들의 젠더 구성 양상과, 그에 기반한 인물 이해와 텍스트의 의미 도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3차 실험에서는 해석 텍스트를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되, 젠더 구성의 양상을 보다 잘 살피기 위해 몇 가지 발문을 추가해 제공하였다.[41] 4차 실험에서는 3차 실험의 학습자들 중 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20-30분 가량의 일대일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의 내용은 학습 독자들의 해석 텍스트에 대한 추가적 질문과 함께 퀴어 인물을 통한 젠더 구성이 기존의 소설 읽기와 어떻게 다르며, 기존 소설에서도 젠더 구성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 방법을 이용해 정해진 질문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지만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양상들을 개방적 태도로 면밀히 조사하고자 하였다.[42] 또한 모든 면담은 사전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이후에 전사하였음을 밝힌다.

수집한 학습 독자의 해석 텍스트 및 면담 자료는 Ⅲ장에서 해석학적 현상

41) 1-3차 실험에서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제공된 해석 텍스트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젠더와 관련한 학습 독자들의 읽기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비계가 될 만한 발문을 제공하였으나, 학습 독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역시 학습자들이 감상문에서 주어진 발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하면서도 발문의 순서나 내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주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시된 소설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담아 감상문을 작성하되,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주세요. (* '젠더'란 성별을 뜻하는 말로 개인의 성정체성을 의미합니다.) - 각 인물의 젠더에 대해 자신이 파악한 내용과 그 근거 - 인물의 젠더가 소설 해석에 미친 영향 - 소설 속 인물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 -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웠던 점과 그 이유 -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 - 소설 전반에 대한 자신의 평가

42) Hatch. J.A., 진영은 역, 『교육 상황에서 질적 연구 수행하기』, 학지사, 2008, 158면.

학에 입각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은 주어진 현상의 발생적, 구성적 근원을 탐구하는 것으로, 인식 주체가 경험하는 의식 작용을 탐구하는 철학적 방법론에 그 바탕을 둔다. 즉 현상학적 연구는 어떤 상황에 처한 인간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며,[43] 특히 van Manen은 해석학적 현상학을 연구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해석학적 현상학은 사물들이 나타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현상학이면서, 동시에 해석되지 않은 현상이란 없기에 해석학적 방법론이기도 하다.[44]

본 연구는 이러한 해석학적 현상학을 자료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해석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살피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경향성을 파악해 그 의미를 해석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에서 학습 독자가 인물의 젠더를 구성해내는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통해 인물과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도출되는 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한계 지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Ⅳ장에서 실제적 교육 방안을 설계해보고자 하였다.

43)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 『질적 연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234면.
44) 위의 책, 250면.

Ⅱ.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이론적 탐구

1.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정의

1) 소설 읽기에서 인물의 해석적 기능

소설 교육의 목표가 인간 삶에 대한 심화된 체험에 있다는 점에서 작중 인물의 삶을 이해하는 일은 큰 중요성을 지닌다.[45] 루카치는 서사 형식을 드라마와 구별해 주는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서사가 현실과 불가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들어[46] "서사문학은 바로 삶이고 내재성이며 또 경험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47] 즉 소설은 일상의 현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소설 교육에서 인물의 삶에 주목하는 것 역시 인물을 통해 독자가 스스로의 삶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48] 이러한 관점에서 인물은 학습자들이 소설 이해를 위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매개로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독자중심의 문학교육을 위해서는 인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 역시도 같은 견해를 공유한다.[49]

소설에서 인물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되는데, 첫 번째 관점[50]은 인물을 텍스트의 형식적 구성 요소로 파악하는 것으로 인물을 단지

---

45)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2, 266면.
46) Lukács. G.,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98, 47-48면.
47) 위의 글, 56면.
48) 이는 중세 로망스(romance)와 구분되는 노벨(novel)의 새로움이 작중 인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노벨로서의 소설은 더 이상 완결된 삶의 총체성을 형상화하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보다 평범한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삶의 숨겨진 총체성을 발견하고 구성하는 것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김진석·설덕종, 「소설교육과 인물」, 『교육발전』 35(1),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2015, 4-5면).
49) 조현일, 「미적 동일시의 유형과 소설교육」, 『우리어문연구』 47, 우리어문학회, 2013, 335-336면.
50) 형식주의자 및 구조주의자들의 이러한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에 있어 플롯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는데, 이때 플롯은 행동의 모방으로 정의된다. 그는 성격(인물)보다 행동을 중요시했으며 성격을 단지 플롯의 요구에 충실히 봉사하는 인위적 구성체로 보아 성격, 즉 인물이 없이도 비극이 성립

기능으로 보아[51] 행위자(agent)나 수행자(performer)로 파악한다.[52] 이는 서사론 관점에서 인물에 접근하는 것으로, 인물에 대한 형식적 분석을 통해 텍스트 속에서 인물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에 적용되었을 때 독자에게 서사 형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두 번째 관점[53]은 인물을 실제 인간의 모방으로 보는 관점으로,[54] 작중 인물을 내용적 의미 담지체로 보아 서사 속에 반영된 세계의 일부로 파악한다.[55] 이는 리얼리즘적 관점에서 인물에 접근하는 것으로 인물이 지닌 고유성, 개별성에 주목해 인물 자체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양자의 관점은 상충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리몬 케넌은 두 관점을 통합하고자 했으며 작중 인물을 "인간인 동시에 전체 구상물의 일부로서" 파악한다. 각각은 '텍스트'와 '스토리'라는 허구 서사물의 서로 다른 국면에 관계하는 것일 뿐, 대립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56] 리몬 케넌은 인물을 텍스트의 언어적 요소들로부터 추상된 구조물로 이해하면서도 개성적인 특성을 지닌 개인으로 다루고자 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텍스트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맥락과 인물 구성에 관여하는 독자-텍스트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57]

인물은 이와 같이 소설의 핵심적 요소로서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한다고 이야기했다(Aristotle, 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2002, 51-52면).

51) Chatman. S.,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140면.

52)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239면.

53) 이러한 관점으로는 E.M. 포스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는 소설이 현실과 달리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물의 내면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작가의 자세한 묘사를 통해 독자가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진실성"을 소설을 통해 얻게 되며 그 인물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인물을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로 나누어 파악했는데(E.M.포스터, 이성호 역,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84, 54; 72-77면 참조), 채트먼은 이러한 논의를 '특성'의 관점에서 재정의하여 평면적 인물은 아주 적은 특성을 부여받은 인물로, 입체적 인물은 다양한 특성을 부여받은 인물로 파악한다(Chatman. S.,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이야기와 담화』, 민음사, 1995, 159면).

54) 이호, 「인물 및 인물 형상화에 대한 이론적 개관」, 한국소설학회, 『현대소설 인물의 시학』, 태학사, 2000, 7면.

55) 홍지연, 「서사의 인물 형상화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0-11면.

56) Rimmon-Kenan. S.,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 54면.

57) 박진, 『서사학과 텍스트이론』, 소명출판, 2014, 122면.

따라 소설 해석의 방향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소설의 인물은 인물의 내면적 특성인 '성격(character)'으로 규정되기도 하는데, 이는 인물 이해에 있어 성격이 인물 그 자체와 동일시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진 요소임을 드러내준다.[58] 본 연구에서 역시 소설 읽기에서 인물을 중심에 놓지만, 인물의 성격보다는 젠더에 주목한 인물 이해 교육을 제시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춘다.

리몬 케넌이 파악했듯이 인물은 언어적 구성물인 동시에 개별성을 지닌 이해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소설에서 인물이 기본적으로 빈자리를 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저는 텍스트와 독자간의 상호작용을 진행시키고 동시에 어느 정도 통제하는 의사소통의 조건으로 '텍스트의 빈자리(Leerstelle)' 개념을 제시했다. 이때 텍스트의 '빈자리'란 독자의 해석에 의해 재구성되고 재정비되어야 하는 모호성, 즉 텍스트에 주어진 불확정적인 간극을 의미한다.[59]

이저는 로만 잉가르덴의 현상학에 영향을 받아 문학 텍스트의 의미가 독서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생성된다고 파악했다. 잉가르덴은 소설의 '표시된 대상성들의 층'에 비규정 장소들이 있음을 이야기했는데, 이때 '표시된 대상성들의 층'이란 독자가 독서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는 것으로 텍스트에서 인물, 배경 등의 층위를 말한다.[60] 잉가르덴은 이러한 층위의 대상이 모든 면에서 일의적으로 규정되지 못하며 그 안에 늘 채워지지 않은 비규정 장소들이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작품 안의 대상이 실제 대상과는 다르게 개별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도식적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규정 장소들은 문학작품 속에서 결코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끊임없는 보완을 요구하게 된다.[61]

이저 역시 이러한 텍스트의 불확정성(Unbestimmtheit)에 주목하는데, 특히 이 불확정성에서 비롯하는 독자들의 다양한 해석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이저에게 불확정적 의미란 텍스트 내에서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독자가 자신만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텍스트 내부의 '틈새'를 의미한다.[62] 즉 이

58) 김대행 외, 앞의 책, 170면.
59) 윤리라, 「빈자리 채우기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 -일인칭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3면.
60) Ingarden. R., 이동승 역, 『문학예술작품』, 민음사, 1985, 249-254면.
61) 위의 책, 284-285면.

저는 잉가르덴의 미정성 자리와 그에 대한 구체화가 의사소통 개념으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잉가르덴이 이야기한 구체화 개념은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닌, “독서과정에서 텍스트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견해의 활성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63] 이는 텍스트 내에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찾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이때에는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이에 이저는 잉가르덴의 ‘미정성’을 ‘빈자리’로 재개념화하며 이러한 빈자리가 텍스트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조건이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64]

때문에 이저는 텍스트 내에서 불확정적인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독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그 작품을 완성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고 보았다. 텍스트는 독자가 표상을 동원해 미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자극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비대칭은 상황의 공통성 속으로 지양된다.[65] 즉 빈자리는 독자가 텍스트 사건의 수행에 동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텍스트의 구조를 동적으로 만드는 것이다.[66]

이러한 빈자리의 부재 방식은 독자가 텍스트에서 당연하게 기대했던 부분을 빈자리로 변환시켜 독자에게 생산성을 부여한다. 텍스트에서 발견된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독자에 의해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에 있게 되는 것이다.[67] 때문에 텍스트의 빈틈 역시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닌 “독자의 수용 정도와 반응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불확정성’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독자는 텍스트의 고정된 의미를 단순히 내재화하는 것이 아닌,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는 데 있어 저자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68]

작중 인물은 그 자체로 해석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텍스트의 빈자리로 기능한다. 윤리라가 제안한 빈자리 채우기를 활용한 소설 교육에서 역시 인물

---

62) Tyson. L., 윤동구 역, 『비평이론의 모든 것』, 앨피, 2012, 372면.
63) Iser. W., 앞의 책, 277; 285면
64) 위의 책, 298면.
65) 위의 책, 269-270면.
66) 위의 책, 317면.
67) 위의 책, 325면.
68) 최현주, 「이저의 수용미학에 대하여」, 『호남학』 3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5, 220면.

층위의 빈자리가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 빈자리는 인물의 심리, 그리고 행동에 대한 내적 동기로 제시되고 있어 외적인 묘사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인물의 내적인 면모가 주된 빈자리로 설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69] 즉 인물의 '젠더'는 일반적으로 빈자리로 기능하지 않고 '그', '그녀'라는 호칭과 외적인 모습을 통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물의 젠더를 독자가 구성해내야 할 빈자리로 파악하며, 특히 이는 독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빈자리 탐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인물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젠더 구성의 과정은 앞서 살펴본 인물에 대한 관점 중 절충적 입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텍스트 내의 여러 요소들을 바탕으로 '젠더'라는 빈칸을 추론하는 과정인 동시에 구성된 젠더정체성에 기반해 인물을 이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2) 젠더의 구성적 성격과 퀴어 인물의 개념

일반적인 섹스와 젠더의 이분법에서 '섹스(sex)'는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고 '젠더(gender)'는 사회적 성을 의미한다. 섹스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신체적, 생물학적 특징으로, 젠더는 사회적으로 부여받게 된 성적 역할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섹스, 즉 생물학적 구분을 자연화하며 그로부터 젠더가 파생된 것이라 파악하여 섹스를 비구성적인 것으로 생산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러한 관점과 달리 주디스 버틀러는 자연으로서의 섹스가 존재하고 섹스의 문화적 구성물로서 젠더가 탄생한 것이라 파악하지 않는다. 버틀러는 "섹스는 언제나 이미 젠더였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70] 섹스는 젠더 이전에 존재하는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젠더라 지칭되는 문화적 구성장치의 결과로서 담론 이전의 것으로 생산되는 것이다.[71]

푸코 역시 이와 유사하게 『성의 역사』에서 섹스가 섹슈얼리티의 규제로 인

69) 윤리라, 앞의 글, 44면.
70) Butler. J., 조현준 역,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2008, 97면.
71) 위의 책, 98면.

해 생산된 것으로 자연적 범주가 아님을 이야기한다. 섹스는 규율적 관행을 통해 일관된 성적 정체성으로 생산되며, 이 과정에서 섹스/젠더가 일치하지 않는 섹슈얼리티는 배제되어 욕망의 이성애화가 안정적으로 재생산된다는 것이다.[72] 즉 섹스에 관한 담론은 "권력 밖에서나 권력에 대항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행사되는 바로 거기에서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서 증가한 것이다.[73] 푸코는 섹스를 대상으로 하는 금지가 기본적으로 사법적 성질의 것이었음을 이야기하며, 금지의 근거가 되곤 했던 "자연" 역시 일종의 법이었음을 이야기한다.[74] 이러한 푸코의 계보학적 탐구는 겉으로는 '원인' 같아 보이는 것이 '결과'임을 폭로해준다. 그는 모든 성차의 범주에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의 범주가 역사적으로 특정한 섹슈얼리티 양식을 통해 구성된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분법적 성의 범주가 생산되면 '섹스'가 성적 경험, 행동, 욕망의 '원인'인 것처럼 가정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75]

버틀러는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토대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성차' 개념에 반대한다. 버틀러는 섹스(sex)/젠더(gender)/섹슈얼리티(sexuality)[76]의 구분에 저항하며 세 가지가 모두 사회적 구성물이고 제도 담론의 결과라는 점에서 '젠더'임을 주장한다. 이때 젠더는 섹스로부터 파생되거나 섹스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 "변화하거나 맥락화된 현상으로서, 본질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특수한 일련의 관계를 둘러싼 상호 수렴의 지점"을 의미한다.[7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버틀러의 관점을 따라 젠더를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젠더가 지닌 구성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해 버틀러는 젠더를 '수행적

---

72)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 여이연, 2006, 43면.
73) Foucault. M.,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나남, 2004, 53-54면.
74) 위의 책, 59면.
75) Butler. J., 앞의 책, 127-128면.
76)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는 개념적 정의에서 차이를 지니는데, 일반적으로 섹스는 생물학적 몸의 차이, 젠더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동일시 양식, 섹슈얼리티는 성적 실행이 발생되는 근원적 욕망으로 설명되었다. 이들 세 영역의 구분은 언뜻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범주들은 결코 확정적이지 않다(Butler. J., 위의 책, 7면(용어 해설)).
77) 위의 책, 103면.

performative'[78]인 것으로 파악하며 그러한 수행 뒤에 어떠한 정체성이나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즉 젠더의 표현물 뒤에는 어떠한 정체성도 존재하지 않으며, "정체성은 결과라고 알려진 바로 그 '표현물' 때문에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79] 이는 특정한 젠더정체성이 선행하고 그에 따라 행위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들을 통해 정체성이 구성됨을 보여준다.

'성차'에 대한 버틀러의 다음과 같은 언급 역시 이러한 견해를 드러내준다.

> 성차는 완전히 타고난 것도 완전히 구성된 것도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둘 다이기도 하다. 이 '부분적으로' 라는 의미는 구분의 분명한 의미에 저항한다. 성차는 교차점으로 작용하지만, 겹쳐지고 모호해진 용어들은 어쩌면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기보다는 구성 자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 내가 이해하기로, 성차는 생물학적인 것이 문화적인 것과 맺는 관계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또 새롭게 제기되는 장소이며, 이 질문이 제기되어야 하고 제기될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해 그 해답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80]

버틀러는 성차 개념이 '교차점'으로 작용할 뿐 단일한 것으로 고정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성차는 계속된 질문이 제기되어야만 하는 장소이지만 그

78) '수행적performative'이라는 말은 존 오스틴Jhon Austin에 의해 언어철학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언어가 지닌 수행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오스틴은 진술문 이외에 어떠한 문법적 범주에도 속할 수 없는 몇 가지 발화가 존재함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종류의 문장은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 혹은 행위를 하는 것의 일부로서 오스틴은 이를 '수행적 문장(performative sentence)'이라 명명할 것을 제안한다.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이러한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버틀러는 젠더의 수행적 특성을 강조하며 수행 뒤에 어떠한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어떤 주체의 기원, 근원에 대한 거부의 의미를 담고 있다(Austin. J.L., 김영진 역, 『말과 행위』, 서광사, 1992, 25-27면; Butler. J., 앞의 책, 26면; 노이정, 「주디스 버틀러 수행적 젠더 이론과 성별의 정치학」, 『연극평론』 92,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19, 139-140면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인물에 대한 탐구와 이해를 위한 과정으로서 젠더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주체를 거부하는 버틀러의 입장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인물의 젠더를 주체의 기원, 근원으로서 고정해놓고 그로부터 인물을 해석하는 입장을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버틀러의 연구를 인용할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79) Butler. J., 앞의 책, 131면.

80) Butler. J., 조현준 역, 『젠더 허물기』, 문학과지성사, 2015, 295면.

에 대한 해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젠더의 본질주의적 형식에 저항하는 것으로서 “정체성의 범주가 단일해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81]

소설에서 인물의 젠더 역시 이처럼 고정된 것일 수 없다. 인물의 젠더는 소설 내에서 명확히 남성, 여성으로 규정되어 재현될 수 있지만 그러한 규정은 이미 구성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젠더는 “독자가 등장인물들의 가치와 인격을 …… 추정하는 가운데 즉각적이고 통상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 중 하나”이며,[82] 때문에 독자는 언제나 젠더에 대한 탐구를 은연중에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이와 같은 젠더의 작용은 주목받지 못했으나, 서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인물의 젠더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해 페미니즘 내러톨로지는 기존의 서사학 범주들이 보편성과 성 중립성에 출발하는 것과 달리, 섹스·젠더·섹슈얼리티의 요소를 서사론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함을 강조한다.[83] 즉 섹스·젠더·섹슈얼리티의 요소를 보편적, 중립적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차이와 경합의 장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젠더를 차이와 모순을 지닌 것으로 보아 독자에 의해 구성되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한다. 특히 이러한 젠더의 구성적 면모를 보다 잘 드러내주기 위해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된 퀴어 인물을 젠더 구성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퀴어queer’는 본래 정상으로 간주되는 이성애 규범을 따르지 않는 신체와 성적 선호를 가진 이들을 ‘이상한 것’으로 폄하할 때 쓰인 말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담아내는 용어로서 기능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규정해서는 안 됨을 주장하며 그동안 동성애 혐오를 표출하는 데 쓰인 ‘퀴어’라는 말을 재전유하여 스스로를 명명했다. 이러한 시도는 게이와 레즈비언의 공통 기반을 포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동성애/이성애의 단순한 대립으로 설명되지 않는 섹슈얼리티 범주의 확장을 지향하는 결과를 낳았다.[84] 즉 이전에 퀴어가 동성애자로서

81) 위의 책, 334면.
82) Allrath. G. and Gymnich. M.,「페미니즘 내러톨로지」, Nünning. A. and Nünning. V., 조경식 외 역,『서사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 한국문화사, 2018, 75-76면.
83) 위의 책, 53-58면.
84) Tyson. L., 앞의 책, 692-695면.

일반적으로 자신과 같은 성(性)인 상대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으로 이해된 것에서[85] 나아가 이러한 동성애만으로 포괄할 수 없는 수많은 섹슈얼리티의 존재가 발견된 것이다.

알렉산더 도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동성애'라는 용어가 게이나 레즈비언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단어가 아님을 이야기하며 보다 모호성을 가진 용어를 고안하고자 했다. 이는 양성애, 성전환, 그리고 퀴어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 더 넓은 범주의 충동들과 문화적 표현들을 묘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퀴어'라는 용어는 이러한 사유에 근접하게 다가간다. 즉 이는 '퀴어'가 일반적이지 않으며 일반적인 것에 대항하는 모든 문화의 생산 및 수용의 측면을 표현하기 위한 유연한 공간을 나타내는 용어임을 보여준다.[86]

이처럼 퀴어 이론의 등장과 함께 퀴어는 젠더 이항대립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표출하며 안정적 정체성에 대한 거부를 담아내는 용어로 부각되었다.[87] 퀴어는 단순히 생물학적 섹스와 일치하지 않는 젠더를 지닌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젠더의 이항대립을 넘어서 혹은 그 경계선에 존재하는 이들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퀴어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은 자칫 추상적 개념 정의로 비춰질 수 있지만, 퀴어 이론 자체가 모든 고정시키는 것에 대한 거부로서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퀴어를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88]

오혜진 역시 퀴어가 맥락적, 잠정적, 구성적인 분류로서 이성애적 지배 규범과 불화하는 것일 뿐 결코 특정 정체성의 물리적 총합이 아님을 이야기한다.[89] 즉 퀴어는 일반적으로 이성애적 지배 규범과의 불화에 초점을 맞춰

---

85) 이와 관련해 무엇이 동성애인가에 대해서도 본질주의와 구성주의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 본질주의자들은 동성애가 시간을 초월해 보편적 현상으로서 존재해 왔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반면 구성주의자들은 동성애가 역사적 맥락마다 다른 문화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동일한 것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주로 전자는 보수적 견해로, 후자는 진보적, 급진적 견해로 이해되지만, 전자의 논의는 동성애자들에게 시민권에 기반한 권리 보장을 위해 활용되기도 하며 후자의 견해 역시 동성애적 지향이 교정되어야 한다는 동성애혐오적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단순히 이항대립적 관계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Jagose. A., 박이은실 역, 『퀴어이론 입문』, 여이연, 2012, 17-22면).

86) Doty. A., *Making Things Perfectly Queer: Interpreting Mass Cultu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2-3면.

87) 손향숙, 「아동문학과 퀴어」, 『영미문학교육』 16(2),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2012, 85면.

88) Jagose. A., 앞의 책, 8면.

‘동성애’로서 이해되곤 하지만 동성애자라는 말로 퀴어를 대표할 수는 없다. 이성애와 불화하는 무수한 젠더정체성을 포함하는 퀴어는 그 자체로 불확정성을 내포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된 퀴어 인물을 젠더 구성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퀴어 인물을 탈성적 혹은 중성적 인물[90]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을 개인으로 정박시키는 모든 정체성을 교란”시키며[91] “각인된 성차의 관습을 드러내놓고 유린”하는 것으로 소재나 주제의 수준에서 주로 진행되었던 성별 간 대립, 즉 ‘남/여’의 이분법적 대립을 보다 본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92]

즉 퀴어 인물은 독자에게 이분법적 젠더의 바깥을 상상하도록 하여 젠더의 구성적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퀴어 인물의 경우 인물의 젠더는 여러 방식으로 소설 내에서 암시되지만, 수많은 기표들 사이에서 독자는 정확한 기의를 판별해낼 수 없다. 때문에 퀴어 인물을 통해 독자는 보다 명확하게 인물의 젠더를 빈자리로서 인지하고 젠더 구성의 과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젠더 구성의 경험은 독자에게 퀴어 인물에 한정된 특수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 다른 소설에서도 인물의 젠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3)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정의

인물의 젠더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내에 숨겨진 여러 요소

---

89) 오혜진, 「지금 한국 퀴어문학장에서 퀴어한 것은 무엇인가(1)」, 『문학과사회』 31(4), 문학과지성사, 2018, 84면.

90) 배수아의 소설(〈에세이스트의 책상〉, 〈독학자〉, 〈이바나〉 등)은 특히 이러한 서술 전략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배수아는 스스로 『동물원 킨트』의 서문에서 “주인공의 성별을 규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그 이유를 “성적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부여하는 모든 정서의 상태를 부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배수아, 『동물원 킨트』, 이가서, 2002, 5-6면).

91) 임옥희, 앞의 책, 277면.

92) 김형중, 「민족문학의 결여, 리얼리즘의 결여」, 『창작과비평』 32(4), 창비, 2004, 290-291면.

들을 통해 인물의 비어 있는 젠더를 채워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인물 이해에 있어 성별은 판단의 대상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93] 이러한 과정은 구성이 아닌 판단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퀴어 소설이라 명명되는 작품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동성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퀴어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물의 젠더는 퀴어 문학에 있어서도 게이와 레즈비언을 가르기 위한 것으로서, 고민과 의심의 대상이 아닌 사실 판단의 문제로 취급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인물의 젠더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필연적으로 구성의 과정을 요한다. 이 과정은 단순히 불명확한 인물의 젠더를 나름대로 상상해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인물의 특성 중 '젠더'라는 빈칸을 채우는 것이라면 이는 기존의 인물 이해에서 성별을 판단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남성과 여성으로 명확히 인물이 재현된 경우에는 젠더 구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젠더 구성의 과정은 젠더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젠더에 내재한 균열적, 비동일적 요소를 찾아내는 과정으로서 인물의 젠더가 명확히 재현된 경우에도 수행될 수 있다.

버틀러에 따르면 젠더는 수행을 통해 구성되는 것일 뿐 특정한 젠더정체성이 수행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인물의 젠더 역시 이미 전제된 인물의 특성이 아닌 빈자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인물의 젠더가 명확히 재현된 경우에도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미결정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가 인물의 젠더를 구성하는 과정은 이러한 미결정의 요소들을 통해 인물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해보는 것으로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독자는 그동안 의심하지 않았던 젠더의 자리에 질문을 던지게 되며,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젠더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사유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퀴어 인물을 통해 이러한 젠더 구성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 속에서 구성적 젠더 개념이 도입된 바가 없어 학습자들이 젠더를 구성보다는 판단의 문제로 보는 데 익숙하기 때

93) 윤리라(2018)가 제안한 빈자리 채우기를 활용한 소설 교육에서 역시 인물 층위의 빈자리로서 '인물의 심리', '행동에 대한 내적 동기'가 제시되었다. 즉 인물의 젠더는 탐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빈자리로 설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윤리라, 앞의 글).

문이다. 퀴어 인물은 규범적 젠더의 바깥에 존재하는 인물로 학습 독자의 고정적 젠더 개념을 해체하는 데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퀴어 인물 중에서도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된 퀴어 인물은 학습 독자가 특별한 비계 없이도 독서의 과정에서 젠더의 빈자리를 보다 수월하게 인식하도록 하여 독자의 젠더 구성의 과정을 추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젠더 구성은 앞서 이야기했듯 퀴어 인물에만 한정된 방법론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젠더의 불확정성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된 퀴어 인물을 구성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인물 일반으로의 단계적 확장을 지향한다. 퀴어 인물을 통한 젠더 구성은 독자에게 새로운 인물 읽기의 방법을 경험하도록 하며,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소설들로 확장되어 이전에 읽었던 소설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작중 인물의 젠더를 파악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여러 표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물의 말과 행동, 겉모습 등은 버틀러가 이야기한 '수행'의 일부로서 인물의 젠더 표지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들은 인물의 젠더를 추측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젠더 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젠더 표지의 발견과 해석은 독자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때문에 인물의 젠더를 무엇으로 파악하느냐 역시 다양한 결론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물의 젠더를 구성하는 것은 특정한 결론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언제나 과정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젠더가 결코 단일하고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버틀러에 따르면 우리는 특정한 섹슈얼리티일 수도 없고, 특정한 섹슈얼리티를 주장할 수도 없다.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반복하고, 모방하고, 패러디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수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것 너머에는 늘 어떤 '심리적 과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섹슈얼리티의 완전한 수행을 불가능하게 한다.[94] 즉 젠더는 "규범적 허구"를 모방하는 것일 뿐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젠더 체화는 본질적 긴장과 괴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95]

---

94) Fry. P., 정영목 역, 『문학이론』, 문학동네, 2019, 536면.
95) 김지혜, 「페미니즘, 레즈비언/퀴어 이론, 트랜스젠더리즘 사이의 긴장과 중첩」, 『영미문학

결국 젠더 구성의 과정은 인물의 젠더를 분명하게 밝혀내는 과정이 아닌, 이러한 긴장과 괴리의 지점들을 읽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는 인물의 젠더를 빈자리로 발견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의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는 읽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물의 젠더를 소설의 빈자리로 발견하는 것은 독자에게 정답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러한 욕망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능함은 결코 의미화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는다. 불확정적인 것에 대한 이해와 탐구는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텍스트의 의미들을 통해 독자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과정

지금까지 인물과 젠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이란 인물의 젠더를 소설의 빈자리로서 발견하고, 인물의 젠더를 구성해보며, 그 과정을 통해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인식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소설 교육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과정 역시 발견, 탐구, 심화의 세 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는 인물 젠더의 모호성을 인식하고, 인물의 젠더를 구성해보며, 그를 통해 텍스트를 자기화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읽기의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할 것이다.

읽기 과정의 단계적 요소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텍스트 분석과 전문 독자의 비평을 활용하였다. 텍스트 분석은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퀴어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텍스트 내에 나타난 젠더의 모호성을 보다 상세히 보여주기 위해 제시하였다. 또한 젠더의 모호성을 읽어내고 젠더를 구성하는 과정이 현행 학습 독자에게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전문 독자에게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했다. 전문 독자의 비평은 학습 독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아니지만, 전문 독자의 비평을 통해

페미니즘』 19(2),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11, 69면.

읽기의 단계를 설정한다면 그를 통해 학습 독자의 수준에 맞춘 적용 방안을 구안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련한 읽기 과정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단계들은 서로 교차하며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물의 젠더를 구성해보는 과정에서 독자는 인물 젠더의 모호성을 더욱 강하게 인지하기도 하며, 텍스트 자기화의 과정 역시 젠더 구성의 과정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때문에 학습 독자의 해석 텍스트를 분석할 때에는 각 단계들이 나타나는 양상을 더욱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소설 읽기의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학습자 양상 분석의 토대와 교육 방안 설계의 이론적 틀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

1) 인물 젠더의 모호성 인식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에서 독자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인물 젠더의 모호성이다. 모호성과 관련해서는 아도르노가 예술작품과 예술 전체를 모두 “수수께끼”라고 이야기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 한 작품을 이해하면 할수록 어느 한 차원에서는 그것의 수수께끼가 해명되지만, 작품에 본질 구성적인 수수께끼적 성격은 오히려 그만큼 더 해명되지 않는다. … 수수께끼를 푼다는 것은 수수께끼가 해결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96]

아도르노는 예술 작품의 본질적인 수수께끼적 성격은 해명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고찰과 사유를 통해 완전히 해명될 수 있는 것은 예술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예술은 정답을 가진 수수께끼가 아니지만,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수수께끼를 푸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때문에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며, 아도르노 역시 수수께끼를 수수께끼로서 인식하고 그를 탐구하는 일이 예술의 한 측면을 이해

96) Adorno. T.W.,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7, 196-197면(밑줄 인용자).

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고 이야기한다.[97]

인물의 젠더 역시 이러한 모호성을 지닌 수수께끼로서 예술 작품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젠더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정적 답을 내릴 수 없더라도 왜 답을 내릴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적 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젠더의 모호성을 인식하는 것은 인물의 젠더를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그를 탐구할 필요성을 느끼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독자는 젠더의 자리를 비고정적인 것으로 발견해 그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예술이 지닌 수수께끼적 성격처럼 결코 완전한 해명을 통해 종결되는 과정이 아니다.

때문에 인물 젠더의 모호성을 인식하는 일은 인물의 젠더를 부정성의 자리로서 발견하는 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저는 독서 과정에서 독자가 채워야할 텍스트 내부의 틈새를 '빈자리'로 개념화하며, 이 빈자리와 함께 독자와 텍스트 간 상호작용의 추진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부정성(Negativität)' 개념을 이야기한 바 있다.[98]

> 빈자리와 부정은 그것이 여백으로 남기는 것과 지양이라는 방법을 통해 텍스트에 표현된 거의 모든 것을 표현되지 않은 지평과 관련시킴으로써 허구적 텍스트 내에서 독특한 압축작용을 한다. <u>그로부터 명확히 표현된 텍스트가 표현되지 않은 것과 중첩되는 결과가 생겨난다.</u> 이러한 중첩을 우리는 허구 텍스트의 부정성이라고 말한다. … <u>부정성은 말해지지 않는 것으로써 말해진 것을 구성하는 토대인데, 이것은 말해진 것이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빈자리와 부정을 바탕으</u>

97) 위의 책, 194-196면; "무지개에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무지개는 사라져 버린다."는 언급은 아도르노의 이와 같은 견해를 잘 드러내 준다. 아도르노는 또한 미적 체험이 "예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술의 어떤 면을 이해"하는 것일 뿐이라는 철학의 기술을 타당한 것이라 이야기했다.

98) 윤리라(2018)는 미정성과 부정성을 같은 빈자리 범주 내에서 다루고 있으나, 이저가 미정성과 부정성을 구분했음을 언급한다. 언어적으로 아예 표현되지 않은 이야기의 공백을 '빈자리(미정성)'으로, 소설텍스트에 언술화 되었으나 그 의미가 공백인 상태를 '부정성'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윤리라, 앞의 글, 15-16면). 빈자리는 텍스트의 여러 관점 사이를 연결하도록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의 자율성을 제공해주는 반면, 부정은 독자가 친숙한 것을 취하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지닌다(김지원, 「해체적 그래픽디자인의 모호성에 대한 해석: 볼프강 이저의 수용미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61면; 박찬기 외, 『수용미학』, 고려원, 1992, 157면).

로 드러나게 된다.[99]

이저에 따르면 부정은 명확히 표현된 텍스트에 표현되지 않은 것이 중첩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인물의 젠더는 이러한 중첩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는 젠더가 명확히 '말해진 것'으로 존재하더라도 부정성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인물의 젠더를 부정성의 자리로서 발견하는 일은 젠더를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사고를 반성하도록 이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퀴어 인물을 통해 인물의 젠더를 보다 명확하게 '빈자리'로서 제공해 이러한 모호성 인식을 의도하는데, 이때 인물의 젠더는 표현되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자신에게 주목할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 모호한 인물의 젠더는 중요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 탐구의 대상으로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탐구는 기존의 소설들에서 인물의 젠더가 쉽게 파악되는 요소였던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젠더의 본질적 모호성에 대해 사고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 꿈에서 틀림없이 장이라고 믿었던 그 얼굴은 틀림없는 장의 얼굴이었을까. 그 얼굴은 실제 장의 얼굴과 얼마나 같았을까. 따지고 보면 같지 않았다. 전혀 달랐다. 일단 장은 그렇게 죽지 않았다. 비탈, 모터사이클, 트럭, 간격 그리고 어쩌면 겨울 같은 것들이 장의 죽음과 좀더 관련있었다.[100]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뼈 도둑」에서는 인물을 '장'이라는, 젠더가 소거된 듯한 이름으로 호명한다. 때문에 독자는 여기에서 '장'의 젠더를 쉽게 추측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젠더의 모호성을 인식함으로써 젠더를 추론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된다. 이는 인물의 젠더를 부정성의 자리로서 발견하는 것으로 기존의 소설 읽기에서 당연하게 주어졌던 젠더가 명시되지 않을 때 독자는 이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

99) Iser. W., 앞의 책, 349면(밑줄 인용자).
100) 황정은, 앞의 책, 190면(밑줄 인용자).

이와 관련해 배수아의 소설은 보다 많은 지면에서 젠더 표지를 삭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문 독자의 비평에도 이러한 젠더의 모호성에 대한 언급이 드러난다.

> 성차(性差)에 관한 관습적인 이해방식은 문장 수준에서도 관철된다. [...] 문장을 읽는 시선들 또한 극도로 자성적이지 않을 경우 관습적 성차를 그대로 용인한다. 가령 김명인(金明仁)처럼 일류에 속하는 비평가의 시선 속에서도 "처음 만난 M은 키가 컸고 중성적이고 아름다웠으나 엄격하게 보였다"(『에세이스트의 책상』 82면)와 같은 문장이 즉각 M의 성별을 감별해내는 지표가 되는 처지를 면하지 못한다. […] 그러나 도대체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도대체 M의 성별이 언제 확인되는가 하는 점이 왜 그다지도 중요하단 말인가? M의 성별을 그토록 공들여(백낙청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의 두 페이지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 확인하는 작업은 사실 들인 노력에 비하면 별로 얻을 게 없는 투자인데, 왜냐하면 배수아의 주인공들은 오래전부터 감별 불가능한 성별, 혹은 젠더(gender)와 성(sex)이 다른 성 정체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101]

위의 전문 독자는 소설에 나타나는 젠더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배수아가 의도적으로 관습적인 성별을 삭제하거나 모호하게 만들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작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차에 관한 관습적 이해방식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타의 비평가들 역시 M의 성별을 확정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인물의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되었을 경우 그러한 모호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젠더 구성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수행됨을 보여준다. 물론 위의 전문 독자가 "확인"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젠더의 문제를 단순히 사실 판단의 문제로 취급한다면 이는 젠더 구성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젠더의 모호성을 인식하는 것은 인물의 젠더를 빈자리로 발견해내는 것으로서 젠더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최초의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

101) 김형중, 「민족문학의 결여, 리얼리즘의 결여」, 『창작과비평』 32(4), 창비, 2004, 289-290면; 본 인용문 내에서 인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김명인, 「민족문학론과 90년대 이후의 한국소설」, 『창작과비평』 32(3), 2004, 264면.

이저가 이야기한 '부정'은 "삭제된 유효성으로서 선택된 규범에 빈자리를 표시해 놓는다."[102] 이는 규범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규범과 연결된 기대를 지양시키는 것이라고 이저는 밝힌다. 결국 규범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범들이 어떻게 기능을 수행하며 그것들이 행동의 방향정립으로서 어떻게 투입되어야만 하는가가 결정적인 문제인 것이다."[103] 이는 부정의 자리로서 인물의 젠더를 발견하는 일이 젠더가 '무엇이냐'에 대한 탐구가 아닌, 젠더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대한 탐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젠더 구성은 인물의 젠더에 대한 독자의 선행적 기대를 지양시키며 새로운 사고로 독자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독서의 과정에서 독자는 인물의 젠더를 자의적으로 가정하며 읽거나 판단을 유보하며 독서를 계속해나갈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을 택하든 독서가 끝날 때까지 텍스트는 명확히 답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는 인물 젠더의 문제를 계속해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이 '염두에 둠'은 젠더를 부정성으로서 발견해내는 것으로,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가장 최초의 단계인 동시에 독서 과정을 끝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2) 인물의 젠더 구성

(1) 사회적 담론에 의한 젠더 표지 발견

인물의 젠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할 때 독자는 소설 내의 특정 표지들을 참조하게 된다. 소설은 인물에 대해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중 인물의 젠더를 파악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이러한 표지들을 젠더 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때 표지의 발견은 단순한 발견이 아닌 그 자체로 이미 표지에 대한 해석을 내포한다. 어떠한 정보들을 젠더 표지로 알아차릴 것인가는 독자의 의식 속에 젠더 표지에 대한 인식이 선행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102) Iser. W., 앞의 책, 329면.
103) 위의 책, 331-332면.

때문이다. 젠더 표지에 대한 선행지식은 사회적 지배 담론이 작용한 결과로서 대체로 독자의 인식 속에 고정관념 혹은 통념으로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 담론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통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되었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제2의 성』에서 "우리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되는 것이다"[104]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는 이전의 본질주의적 젠더관에 대한 거부로서 여성을 본질적, 자연적 범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여성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즉 보부아르는 남녀의 육체가 지닌 생물학적 차이인 '섹스'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양식 및 담론의 결과물로서의 '젠더'의 구분 위에서[105] 섹스가 아닌 젠더에 의한 담론적 폭력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섹스와 젠더의 이분법을 본질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지만, 사후적으로 구성된 젠더가 생물학적 섹스의 차이처럼 자연적인 것으로 여겨져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정당화해왔던 것에 대한 비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소설들에 대한 페미니즘적 문제제기로도 표출된다. 현대의 독자들은 이제 정전에 대한 불쾌감을 가감 없이 표출하며 여성의 특정한 자리를 고정시켜 놓고 문학의 가치를 논해 온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106]

이는 여성을 재현하는 데 있어 지배적 담론에 의해 특정 표지들이 동원되고 고착화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비단 여성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그에 대한 반대항으로서 남성 역시 고정적 젠더 표지들을 통해 재현되어 왔음을 인식시켜 준다. 여성 억압에 대한 페미니즘적 문제제기는 고정된 젠더 표지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분법적 젠더 인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독자는 이러한 표지들을 접하는 즉시 사회적 통념에 따라 표지를 해석하게 되며 그를 바탕으로 인물의 젠더를 파악하게 된다. 젠더 표지는 소설 내에서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일차적인 젠더 표지의 발견과

---

104) Beauvoir. S., 이정순 역, 『제2의 성』, 을유문화사, 2021, 389면.
105) 강초롱, 「시몬 드 보부아르의 육체에 대한 윤리적 성찰 - 『제2의 성』을 향한 비판에 대한 재고찰」, 『불어불문학연구』 102, 한국불어불문학회, 2015, 6면.
106) 김미정, 「흔들리는 재현-대의의 시간」, 『문학은 위험하다』, 민음사, 2019, 34면.

해석은 사회적 관습과 담론적 지식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인물의 이름, 외양, 다른 인물과의 관계 등은 젠더 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데, 사회적 담론에 의해 젠더 표지로 작용하는 항목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표 3. 젠더 표지의 분류]

대분류	소분류	예시
인물에 대한 호명	이름	철수/영희 등
	대명사	그/그녀 등
	보통 명사	여자/남자/아가씨/아저씨 등
	호칭	언니/오빠/어머니/아버지 등
인물의 외양 및 성격 묘사	외모	머리가 짧다/치마를 입는다 등
	행동	면도를 한다/화장을 한다 등
	말투	거친 말투/부드러운 말투 등
	기호	운동을 좋아한다/요리를 좋아한다 등
	성격	이성적/감성적 등
다른 인물과의 관계성	애정 관계	애인의 성별이 남성/여성
	우정 관계	친구의 성별이 남성/여성

위의 젠더 표지들은 일반적으로 인물의 젠더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 특성들을 분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들이 존재할 수 있다. 운동을 좋아하는 것은 남성의 특성만이 아니며, 여성도 머리가 짧거나 여성인 애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몇 가지 젠더 표지의 조합만으로 젠더를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소설에서 인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표지들 역시 남성, 여성 중 한쪽으로 수렴되지 않은 채 충돌하며 나타난다.[107] 이는 젠더가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며

107) 이는 칼 융(Jung. C.G.)이 이야기한 '아니마(Anima)/아니무스(Animus)'의 개념과도 연관성을 지닌다. 융은 사람이 외적 인격인 페르소나를 가지고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세계에도 외적 인격과 대조되는 내적 인격으로서의 태도와 자세, 성향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내적 인격이 바로 아니마, 아니무스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히려 특정 양식들에 의해 재생산되어 온 관념들이 젠더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임을 드러내준다. 즉 특정 젠더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생각은 통념에 불과한 것으로, 몇 가지 표지들만으로 인물의 젠더정체성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은 「에우로파」의 내용 중 일부로 텍스트 내에서 인물의 젠더 표지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서술들을 보여준다.

> 현재까진 그게 내가 그녀의 악몽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다. [...] 지금 카페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는 인아는 굽이 높은 빨간 구두에 회색 청바지를 입었고, 길고 헐렁한 먹색 카디건을 걸친 어깨가 활짝 펴져 있다. 구두에 어울리는 밝은 벽돌색 스카프를 친친 둘러 어깨 뒤로 넘겼다.[108]

위의 텍스트에서 독자는 '그녀'라는 호명과 '인아'라는 이름, 그리고 '굽이 높은 빨간 구두'를 신었다는 내용, '스카프'를 둘렀다는 것 등을 바탕으로 인물의 젠더를 여성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물의 젠더를 파악하도록 하는 표지들이라는 점에서 '젠더 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을 젠더 표지로 발견하는 데에는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인식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떠한 요소를 젠더 표지로 발견할 것인지는 각각의 독자가 지닌 선행지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남/녀의 이분법 속에서 인물의 젠더를 파악하는 것에 익숙한 독자는 일차적으로 스스로에게 내재한 사회적 담론에 의해 특정 서술들을 젠더 표지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젠더 파악의 과정은 인물 정보소를 활용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

아니마는 남성 속의 여성, 아니무스는 여성 속의 남성을 말하는데, 이때의 남성, 여성은 집단사회에서 통용되는 남성관, 여성관이 아닌 우리의 집단적 무의식을 구성하는 원형적 측면과 관련된다. 이때 융은 인간이 페르조나와의 동일시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내적 인격인 아니마, 아니무스를 의식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을 이야기한다(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1, 30-36면).

이러한 개념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에 기반한 것으로서, 특히 융이 이야기하는 원형으로서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대조시켜 고착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내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특정 젠더 안에 그와 불화하는 요소들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준다. 여성 안에 남성이, 또 남성 안에 여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여성, 남성의 구분 자체가 허구적일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108) 한강, 앞의 책, 69면(밑줄 인용자).

는 과정과도 유사하다. 이상일은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속에서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분절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인물에 대한 최소의 단위 정보를 '인물 정보소'라고 명명한다.[109] 이때 "인물의 외모, 행동, 습관, 옷차림, 집안, 학력, 직업, 계층, 신분, 경제력, 지향 가치, 욕망, 심성, 선악"[110] 등은 인물의 성격을 구성하는 정보소가 될 수 있는데, 젠더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정보들에 의해 추론된다. 그러나 젠더의 경우 정보들에 의해 구성되는 동시에, 역으로 정보들을 새롭게 의미화하는 틀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을 요한다.

특히 이러한 젠더 표지들 중 가장 확실한 젠더 표지로 기능하는 것은 '호명'이다. 소설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 '그녀'라는 대명사 혹은 '언니', '오빠' 등의 호명은 독자가 인물의 젠더를 사실 판단의 문제로 바라보도록 하는데 가장 많이 기여하며, 이러한 호명이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 통념을 즉각적으로 발현시킨다. 지금껏 젠더가 구성의 문제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 위에 놓여 있는데, 이 경우 독자는 인물의 젠더를 확정하여 더 이상 탐구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수 있다.

> 그는 장을 불렀다. 장, 장, 입이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한다, 이미 숨을 쉬지 않는 듯한 연인의 얼굴을 덮어가는 모래를 쓸어내고 쓸어내며 흐느꼈다.[111]

> 장의 누이가 가장 크게 울었다. 그녀는 장의 뺨에 손을 얹었다가 섬뜩 놀란 듯 손을 거두며 차가워, 라고 중얼거렸다.[112]

---

109) 이상일, 앞의 글, 42-47면; 이때 '성별'은 인물이 처한 삶의 조건들과 관련된 사회적 인물 정보소로 분류된다. 고전소설에서 대부분의 사회적 인물 정보소는 사실적 명제의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렇게 명확히 재현되는 인물 정보소는 보통 서사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물론 사회적 인물 정보소가 모두 비지배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춘향의 경우 '신분'은 사회적 인물 정보소에 해당하지만, 서사를 추동하는 지배적 요소이며 그렇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춘향의 신분은 다양하게 파악되며, 각 관점은 상충되는 모습을 보인다(같은 글, 100-112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퀴어 인물의 젠더 역시 모호하게 재현되며 서사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에 다각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0) 위의 글, 47면.

111) 황정은, 앞의 책, 190면(밑줄 인용자).

112) 위의 책, 191-192면(밑줄 인용자).

「뼈 도둑」의 위와 같은 장면에서는 '그'와 '장'의 젠더를 파악하는 데 있어 둘이 서로 '연인'이라는 것, '장'에게 '누이'가 있다는 것 등이 표지로 작용할 수 있다. '연인'이라는 말이 이성애 관계를 가리킨다는 사회적 담론에 익숙한 독자는 두 인물의 젠더를 이성애 관계로 가정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에 기반해 '장의 누이'라는 서술은 '장'을 남성으로 설명하는 표지로 발견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의 연인인 '그'의 젠더는 자연스럽게 여성으로 읽힐 수 있는데, 이는 이성애 관습이 하나의 사회적 담론으로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담론은 무의식적으로 독자에게 작용한다. 때문에 이를 의식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판단이 지양되는 요소들을 계속 찾아낼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퀴어 인물을 통해 젠더 구성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젠더가 확정적으로 제시되는 일반 소설들에서는 젠더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퀴어 인물은 한 인물 내에 모순되는 여러 젠더 표지들을 배치하고 인물의 젠더를 확정하는 것을 지연시킴으로써 이러한 사유를 촉발시킬 수 있다.

그러나 퀴어 인물을 통한 젠더 구성은 퀴어 인물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젠더 전반에 대한 독자의 관습적 사고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한다. 독자는 퀴어 인물을 통해 젠더 표지들이 사회적 담론에 의해 발견되고 해석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며, 젠더에 대한 고정적 인식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그' 혹은 '그녀'라는 호명을 통해 분명한 것으로 여겨졌던 인물의 젠더가 많은 모순들을 내포하고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인물은 그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라 호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라는 호명을 통해 남성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남성이 된다. '그'라는 호명의 결과로 인물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퀴어 인물은 이처럼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젠더에 대한 사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독자는 퀴어 인물을 통해 사회적 담론으로 해석되지 않는 인물의 젠더를 마주하게 되며, 인물과 젠더 사이의 영향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인지하게 된다. 이제 독자는 인물의 젠더를 고정적인 것으로 사고하며 관습에 따라 인물을 그 위에 단순히 위치시켰던 태도를 벗어나 인물의 젠더를

반성적으로 추론하게 된다.

(2) 반성적 추론을 통한 인물의 젠더정체성 구성

젠더 표지의 발견과 해석은 즉각적으로 사회적 통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젠더 표지의 다양성은 인물의 젠더를 하나로 확정하는 것을 지연시킨다. 특히 퀴어 인물의 경우 이러한 표지들이 서로 충돌하며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회적 담론을 통해서는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때문에 이때 반성적 추론을 통해 자신의 판단을 계속해서 수정하며 인물의 젠더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이 요구된다. 젠더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것은 젠더를 단순히 인물의 부가적 속성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젠더를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인물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론은 "이미 알고 있는 명제나 판단으로 새로운 명제나 판단을 이끌어내는 인지 작용"이다.[113] 이러한 추론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내부에 나타난 의미상의 애매성을 해결하는 작업이지만 동시에 기존의 진술에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는 창조적인 과정이기도 하다.[114] 즉 독자는 추론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적 통념을 이용해 젠더 표지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대신 젠더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이전에 젠더 표지로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표지들을 발견해내거나, 기존의 젠더 표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도출하게 된다. 이때 모호한 젠더를 추론하는 과정은 기존 젠더 인식의 확인을 넘어서 새로운 발견과 해석이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에우로파」에서 '그녀'라는 호명에 의해 '인아'의 젠더를 여성으로 파악한 독자는 인아와 애정 관계인 것처럼 묘사되는 상대인 '나'를 남성으로 파악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서술에 의해 독자의 기대는 지양된다.

---

113) 박수자, 「추론적 읽기의 지도 방법 연구」,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2006, 30면.

114) 김선경·윤소정·김정섭, 「추론적 읽기전략 프로그램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텍스트 이해와 국어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23(1),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1, 4면.

> 이따금 지나치게 강렬한 감정이 담긴 시선을 만날 때 인아는 나에게 말을 건다.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다. 활짝 눈웃음치는 눈으로 내 얼굴을 올려다본다. 그럴 때 나는 오래전에 보았던 짧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기도 한다. 한 쌍의 레즈비언이 햇빛 환한 거리를 팔짱을 끼고 걷고 있다.[115]

여기에서 '나'와 인아가 산책을 하는 상황은 한 쌍의 '레즈비언'에 비유된다. 이러한 서술에 의해 '나'의 젠더를 확신하고 있던 독자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때 독자는 상충하는 젠더 표지를 한 인물에게서 발견해 혼란을 느끼며, 인물의 젠더를 확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독자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인물의 젠더를 다시 모호한 것으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여기에서 앞선 단계의 모호성 인식의 과정이 반복되며 인물의 젠더는 다시 부정성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부정은 "알려진 지식에서 은폐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래서 그것의 가치를 의문시하는 데서 효과를 끌어낸다."[116] 즉 독자는 부정성의 자리에 놓인 인물의 젠더가 이제까지 숨겨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심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의 과정은 끝내 독자의 선택에 완전한 확신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서를 이어가는 동안 지속된다.

그러나 반성적 추론을 통해 독자가 이전에 파악했던 인물의 젠더를 다른 방향으로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회적 담론에 의한 젠더 표지의 발견과 해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담론적 지식에 의한 표지의 발견과 반성적 추론은 서로 교차하며 젠더 구성의 원리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물의 젠더를 '남성'으로 파악했지만 그러한 판단을 수정하는 경우, 남성의 대타항으로서 '여성'으로 인물을 의미화하게 되며 이를 위해 여성의 젠더 표지들이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판단 역시도 다른 표지들에 의해 지양되어 독자에게 또 다른 사고를 요구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된 퀴어 인물은 젠더이분법 밖에 존재하는 이들로서 독자가 계속해서 탐구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데 효과적으로 동원된다. 독자가 일반적인 젠더이분법의 규범에 근거해 인물의 젠더를 판단하더라

---

115) 한강, 위의 책, 87면(밑줄 인용자).
116) Iser. W., 앞의 책, 351면.

도, 퀴어 인물은 그러한 판단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계속해서 지양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호명의 경우,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된 퀴어 인물은 '그', '그녀'와 같은 호명 바깥에 존재하는 인물들이란 점에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다. '나', '너', '장', '조'와 같은 호명은 관습적 젠더 재현의 방식과 거리를 두며 독자가 인물의 젠더를 계속해서 확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뼈도둑」의 첫 장면은 이러한 호명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 그대가 부르고 싶은 대로 나를 부르라. 그 남자, 그 기록, 그 새끼, 그 물건, 그것, 나는 즉 그다. 그는 겨울에 그 집에 당도했다.[117]

윤국희는 이 장면이 고정된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한다. 서술자는 그대가 부르고 싶은 그대로 자신을 호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 새끼', '그 물건' 등의 발화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의 시선을 보여주는데, 문화적으로 제도화된 금기에 의해 '조'는 있는 그대로 인식되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는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호명하고 싶은 대로 호명하고, 그것이 전부 '나'일 수 있다는 이러한 '호명-구성'의 장면은 역설적으로 언어를 초과하는 몸, 즉 구성되지 못한 잉여들의 출현 가능성을 나타내준다.[118]

이는 호명이 사회적 담론에 의해 작동되는 발화인 동시에, 그를 뒤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젠더 표지는 많은 부분 사회적 담론에 기반해 있지만 표지의 발견 및 해석의 과정에는 언제나 전복의 가능성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때문에 관습적 젠더 인식을 통해 인물의 젠더를 파악하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재인식의 계기가 존재한다. 퀴어 인물을 통해 독자는 이러한 계기를 발견하게 되며, 이는 '단일한 젠더'와 관련된 사고를 계속해서 지양시키고 반성적 추론을 통해 젠더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추론의 과정을 통해 독자는 인물의 젠더정체성을 구성해내고 이에 기반해 인물을 이해하게 된다. 정체성(identity)이란 "나와 타인들이 확인하는 우리들 자신에 대한 동일성"[119]으로, 젠더정체성이란 젠더의 관점에

117) 황정은, 앞의 책, 71면(밑줄 인용자).
118) 윤국희, 앞의 글, 311면.

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나와 타인들이 일관되게 갖는 인식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젠더정체성은 사회적 정체성의 집합적 측면과 반성적 자아정체성의 개별적 측면을 동시에 함축하는데,[120] 이는 젠더가 지닌 행하기/당하기의 역설을 잘 보여준다. 젠더는 '나'의 행위로 구성되는 동시에, 내게 행해진(내가 당한) 규범으로도 구성되는 것이다.[121] 젠더 구성은 젠더의 불안정한 요소들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에게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는 정체성의 복잡한 양상을 인식시키고 정체성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견인할 수 있다.

즉 독자는 젠더 구성을 통해 비고정적 젠더정체성에 기반해 인물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퀴어를 단순히 나와 다른 비규범적 젠더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정체성을 고정하고 배치하는 규범적 권력"에 대한 이해와 함께 퀴어를 "변화를 생산하는 범주로 사유하는" 것을 의미한다.[122] 즉 퀴어 인물이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젠더의 모호성은 구성되는 젠더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견인하는 것이다. 구성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언제든 해체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분명해보였던 '젠더'에 내재한 무수히 많은 차이들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여 차이의 장소로서 젠더를 사유할 수 있도록 독자를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스스로의 젠더 인식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텍스트 전반을 새롭게 이해하는 틀로 작용할 수 있다.

3)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텍스트 자기화

독자는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해 인물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기반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기화할 수 있다. 이는 소설 읽기에서 얻은 내용을 독자의 삶의 문제에 적용해 보는 것으로, 텍스트에서 얻은 경험은 텍

119) 박호강, 「젠더정체성의 사회적 구성과 젠더이데올로기」, 『사회과학연구』 7(1),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86면.
120) 위의 글, 106면.
121) 조현준, 「나에서 우리로, 젠더에서 인간으로: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과 『젠더 허물기』 비교 연구」, 『여성문학연구』 4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245면.
122) 차미령, 「너머의 퀴어: 2010년대 한국소설과 규범적 성의 문제」, 『창작과비평』 45(2) 창비, 2017, 56면.

스트 내의 현실에 대한 파악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를 둘러싼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서 독자에게 의미를 지니게 된다.

독자는 우선 젠더 구성의 과정을 통해 비고정적인 인물의 젠더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는 독자가 인물의 젠더를 고정적으로 사유하며 읽었을 때와는 다른 인물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 [배수아의] 이 '정신주의'에서 생물학적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M의 성별일 뿐만 아니라, 실상 '나'의 성별이기도 하다. [...] 그러나 거꾸로 M과 '나'가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성으로서 레즈비언 커플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적시하는 일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다. 성차의 문제가 제기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레즈비언 커플의 파국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역설적이게도 '성적 차이', 즉 욕망과 충동의 성별, 혹은 향유의 성별일 수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성차'라는 실재(the real)가 동성애냐 이성애냐라는 양자택일을 초과하는 어떤 암초라는 점을 더 선명하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 탈성화된 사랑의 세계를 향유해야만 할 M이 "페니스를 가진 남자"(135쪽)를 단지 호기심으로나마 욕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누설되는 순간은 '성차'라는 실재가 분출하는 순간과 다른 것이 아니다. [...] 이것이 단지 M만의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M의 고백을 통해 '나'는 바로 나 자신의 내면에 잠복해 있었던 욕망의 차원과 대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나'는 M의 타자성을 통해 내 안의 타자를 발견하게 된 셈이다.[123]

위 전문 독자의 비평은 배수아의 『에세이스트의 책상』에 대한 것으로, 이 소설에서 결국 두 인물(M과 '나')의 젠더는 모두 여성으로 밝혀지지만 소설의 후반부까지는 모호하게 재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둘 사이의 사랑은 육체적이기보다는 정신적인 것으로 그려지는데, 위 전문 독자는 이러한 정신주의에서 생물학적 성별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연인에게 있어 파국을 가져오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이 '젠더'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다. 이때 '성차'[124]라는 실재는 "동성애냐 이성애냐 라는 양자택일을 초

123) 신형철, 「당신의 X, 그것은 에티카」, 『문학동네』 42, 문학동네, 2005(밑줄 인용자).

과하는” 것으로서 젠더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충돌들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즉 이는 인물의 젠더정체성이 동성애 혹은 이성애로 명명할 수 있는 단일한 것이 아닌 구성되는 것임을 드러내준다.

레즈비언 연인으로 묘사되는 M과 ‘나’ 사이의 탈성적, 정신주의적 사랑은 M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에 의해 균열을 맞이하게 되는데, 위 전문 독자는 이러한 균열의 원인을 단지 M이 실은 양성애자 혹은 이성애자였으며 사랑하는 연인을 배신했다는 것에서 찾지 않는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인 ‘나’와의 탈성화된 사랑을 추구하는 M이 ‘남성’을 욕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 즉 젠더가 지닌 모순적이고 복잡한 측면들이기 때문이다. M이 보여준 이러한 욕망은 M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잠복해 있던 욕망의 차원을 발견하게 해준 것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나’가 M의 타자성을 통해 자신 안의 타자를 발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들이 헤어지게 된 것은 ‘나’가 자신 안에 존재하는 타자를 발견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욕망의 불완전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125]

이러한 해석은 젠더를 단일한 요소가 아닌 구성적으로 파악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인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준다. 즉 인물의 젠더를 구성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M과 ‘나’의 젠더를 단순히 여성, 레즈비언으로 정의내리지 않고 그 안에 내재한 여러 타자성의 계기들을 발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처럼 젠더를 구성하는 것은 젠더를 판단하는 것도 무(無)로 환원하는 것[126]도 아니다. 젠더 구성은 젠더에 내재한 모순적 요소들을

---

124) 이때 ‘성차’는 ‘성적 차이’로 신형철은 라캉을 인용해 생물학적 성별과 무관한 욕망과 충돌의 성별, 혹은 주체가 향유(jouissance)하는 방식의 성별이 존재함을 이야기한다. 라캉은 상징적 질서 내에서 ‘향유를 획득하는 방식’에 의해 남성적 혹은 여성적인 주체로 성구분(sexuatuion)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남성적 주체는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환상’의 틀 속에서 욕망하며 기관적, 자위적 향유를 누리는 반면(소위 ‘남근적 향유’), ‘여성적’ 주체는 ‘타자적 향유’, ‘비(非)성적 향유’, 기관화되지 않는 전(全)육체적 향유를 누린다는 것이다(신형철, 위의 글). 이러한 구분은 기존의 생물학적 성 혹은 젠더적 성의 구분이 아닌 새롭게 젠더를 사유하는 방식으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신형철은 소설의 ‘나’가 ‘타자적 향유’라고 부른 여성적 향유에 가까이 간다고 파악한다.

125) 위의 글.

126) 차미령 역시 배수아의 소설에 있어 “성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그 사랑의 성적 지향성까지도 지워버리는 것은, 성정치의 관점에서 여전히 긴요한 또 하나의 이슈를 놓쳐버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차미령, 「사랑과 고통-성정치에 관한 파편 단상: 배수아 장편소설 『에세이스트의 책상』을 다시 읽

읽어냄으로써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다르게 이해하며, 나아가 텍스트의 해석을 새롭게 하기 위한 토대인 것이다.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문학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화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리쾨르는 미메시스Ⅲ의 단계로 이를 설명하는데, 이는 텍스트의 세계와 청중/독자의 세계가 교차하는 것을 의미한다.[127] 이러한 과정은 가다머가 그의 해석학에서 "적용 application"[128]이라 부른 것과 상응하는 것으로, 리쾨르는 이를 '전유(轉有, appropriation)' 개념으로 설명한다.

> '전유'는 독일어 'Aneignung'에 대한 번역인데, 'Aneignen'은 처음에는 '생소했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학이란 단어의 본래적 의도를 따라 말하자면, 모든 해석학의 목적은 문화적 거리와 역사적 소외와 맞서 싸우는데 있다. 해석은 함께 모으고, 같게 만들고, 동시대적으로 만들고, 유사하게 만든다. 이 목적은 오직 해석이 텍스트의 의미를 현재의 독자를 위해 현실화시키는 한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전유는 어떤 사람에게 말해지는 의미의 현실화를 표현하기 위해 적합한 개념이다.[129]

즉 전유는 "낯설었던" 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해석은 읽기가 하나의 사건, 즉 지금 이 순간의 어떤 사건을 산출하게 될 때 전

으며」, 『문학동네』 54, 문학동네, 2008). 이는 젠더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젠더를 해석의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127) Ricoeur. P., 김한식·이경래 역, 『시간과 이야기1』, 문학과지성사, 1999, 159면(밑줄 인용자).

128) 가다머는 적용이 "이해 및 해석과 마찬가지로 해석학적 과정의 불가결한 요소"라고 이야기했다.(Gadamer. H.G., 임홍배 역, 『진리와 방법2』, 문학동네, 2012, 195면). 이와 관련해 가다머의 '놀이'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가다머에 따르면 놀이는 "예술작품 자체의 존재방식"을 의미하며, 그는 "모든 놀이함은 놀이됨"으로서, 놀이의 매력은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을 지배한다는 데 그 본질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예술의 놀이로 옮겨올 때, 관객의 본질인 '참가함'은 탈자(脫自) 존재의 특징을 갖는다. 이는 자신을 버리고 어떤 것에 완전히 참가할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으로서, 리쾨르가 전유의 과정에서 '나'를 벗어버린다고 설명한 것과 연관된다(Gadamer. H.G., 이길우 외 역, 『진리와 방법1』, 문학동네, 2012, 151; 157-158; 180-183면).

129) Ricoeur. P., Tompson. J.B. 편역, 윤철호 역,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 서광사, 2003, 327면, 밑줄 인용자(7장 "전유"는 리쾨르가 1972~3년에 행한 강의의 일부로 쓰인 논문이다).

유로서 완성된다. 전유해야하는 것은 “텍스트가 열어주는 생각의 방향에 따라 역동적으로 인지된 텍스트의 의미”이며, 이때 해석은 “새로운 존재 양식을 탈은폐함으로써 주체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130] 이는 읽기의 매개를 통해 텍스트의 세계가 읽는 주체에게 자기 이해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자기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131]

이러한 자기화의 과정은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가 교차하는 것으로서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다.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역시 인물의 젠더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탐구가 텍스트의 세계, 나아가 독자의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로 작용했을 때 보다 유의미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젠더 구성을 통해 인물을 이해하게 된 독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기존 젠더 인식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는데, 이러한 지점에서 이를 자아와 거리를 두는 탈자기화의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132] 독자는 비고정적인 젠더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습적 젠더 인식을 성찰하고 반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젠더 인식으로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인식 체계를 되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 학습자는 정체성의 정립 과정에 있는 존재로서 젠더정체성은 자아정체성에 있어서도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133]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비동일적 사유는 학습자의 젠더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소설 세계의 내용을 학습

---

130) Ricoeur. P., 김윤성·조현범 역, 『해석이론』, 서광사, 1998, 152-156면.

131) 윤성우, 『폴 리쾨르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4, 118면.

132) 윤성우, 위의 책, 120-121면; Ricoeur. P., 박명수·남기영 편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2002, 133면(“〈자아〉의 변형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관계에서까지도 거리두기의 계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는 자기화appropriation인 만큼 탈자기화 désappropriation이다.”).

133) 안재희는 성 정체성이 자아정체성 형성에 일차적 변수로 작용함으로 이야기하며, 남녀의 구분에 따른 관습적 성 정체성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형성에도 억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안재희, 「학교의 사회자본에 기반한 청소년 성 정체성 형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6, (사)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07, 187-188면); 주영준 외의 연구는 청소년들이 성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안고 있음을 잘 드러내준다(주영준 외, 「소셜 Q&A 사이트의 질문 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고민에 대한 이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20).

독자의 삶에 확장시켜 현재의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성'이라는 질서에 종속되어 있으며 우리가 내면화하는 젠더 규범은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작동하는 권력이다. 젠더는 우리 안의 폭력성을 증언하는 정치적 이슈인 것이다.[134] 때문에 독자의 젠더 인식에 대한 반성은 개인 내적 성찰에 머물지 않고 배제된 타자들을 돌아보도록 한다. 독자는 비규범적 젠더에 대한 억압을 인지하게 되며 퀴어라는 타자에 대해 사고하게 되는 것이다.[135] 이러한 타자에 대한 사유 역시 텍스트를 자기화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는 학습 독자에게 다양한 젠더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해 젠더 구성의 과정을 더욱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젠더에 대한 반성적 사유는 젠더 인식에 한정된 것이 아닌 텍스트까지도 확장되어 텍스트 자체를 탈-규범, 탈-자아의 방식으로 읽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젠더 구성은 젠더를 비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퀴어적 사고와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애너매리 야고스에 따르면 퀴어란 성, 젠더, 그리고 성적 욕망 사이의 안정된 관계에 모순들이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태도, 혹은 분석모델이기 때문이다. 퀴어는 '자연 그대로의' 섹슈얼리티가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남자' 혹은 '여자'라는 말과 같이 문제될 것 없어 보이는 명명에도 의문을 제기한다.[136] 젠더 구성은 이처럼 안정적으로 보이는 인물의 젠더를 비고정적으로 사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텍스트를 인식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다. 즉 독자는 인물의 젠더뿐만 아니라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

---

134) 정미숙·유제분,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시학」, 『한국문학논총』 54, 한국문학회, 2010, 275면.

135) 소설 읽기에서의 타자 지향적 사고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통해 논의된 바 있다. 강진호, 「소설 교육과 타자의 지평」, 『문학교육학』 13,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박수현, 「문학 교과서의 타자 이해 단원 연구-2012고시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7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정호웅, 「이호철의 『逆旅』와 문학교육-'타자 이해'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8, 구보학회, 2018; 오윤주, 「타자 지향의 소설 교육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엄진주, 「소설 읽기에서의 타자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36) Jagose. A., 앞의 책, 10면.

도 경계적 사유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명확해보였던 텍스트의 의미에 대해서도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유는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텍스트를 자기화하는 새로운 경로를 마련해준다. 또한 이는 기존에 접했던 텍스트를 다른 방식으로 읽어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젠더를 구성적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은 기존의 정전들에서 젠더이분법을 재생산하고, 젠더를 고정적인 것으로 인식했던 것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를 마련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텍스트는 독자에게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새롭게 발견되며 독자 역시 텍스트의 세계에 촉발되어 달라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3.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의의

1) 작중 인물 이해의 다양성 신장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은 인물 층위에서 그동안 빈자리로 기능하지 못했던 '젠더'를 독자에 의해 구성되어야 할 빈자리로 발견해낸다. 이는 기존의 인물 이해가 주로 인물의 성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인물의 젠더정체성을 중심으로 인물을 이해해보는 것으로 소설 교육에서 작중 인물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는 인물의 젠더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된 실체로 파악하지 않음으로써 인물을 환원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물이 지닌 균열의 측면을 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젠더 추론의 과정은 서사의 형식적 요소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물의 형상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젠더 표지를 찾는 과정에서 독자는 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묘사 등을 보다 꼼꼼히 분석하며 인물을 파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는 구성된 인물의 젠더정체성을 통해 실체로서의 인물을 마주하게 한다는 점에서 소설 읽기에서 인물의 해석적 기능에 대한 두 갈래의 논의[137]를 절충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작중 인물을 형식적 관점 혹은 실제적 관점의 한 방향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 인물과 소설을 보다 유기적 관계망 속에서 파악하는 것으로서 인물 이해의 다양화에 기여한다.

이처럼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해 인물을 이해하는 것은 평면적으로 인물을 파악했던 것에서 벗어나 중층적으로 인물을 상상해볼 수 있도록 독자를 이끈다. 특히 독자는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메타적으로 이해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젠더를 객관적 정보가 아닌 유동적이고 구성적인 정보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인물에 대한 보다 심화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소설 읽기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서 젠더 구성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불확정성 인식을 통한 소설 감상 능력 확대

잉가르덴과 이저는 텍스트에 내재된 규정되지 않은 무언가를 각각 '비규정 장소'와 '빈자리'로 개념화한다. 텍스트는 허구의 언어적 형상물로서 독자가 상상해야 할 부분을 지닌다는 점에서 언제나 빈틈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저는 특히 이 빈자리가 독자의 능동성을 이끌어내는 텍스트 내의 중요한 요소임을 이야기한다. 잉가르덴이 독서 과정에서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거의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저는 빈자리를 통해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다.[138]

때문에 이러한 불확정성을 인식하는 것은 소설 감상의 원리로 기능할 수 있으며 독서 과정에서 독자의 자연스러운 능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불확정성은 잉가르덴이 지적했듯 독자가 독서행위 중 쉽게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물의 젠더는 대부분의 경우 불확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에 독자가 자발적으로 인물의 젠더를 빈자리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퀴어 인물을 매개로 하여 독자가 인물의 젠더를 구성해보도록 하였다. 퀴어 인물은 젠더의 불확정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퀴어 인물에 대한 젠더 구성의 경험은 독

137) 이와 관련해서는 본고 Ⅱ장의 1절 1) 소설 읽기에서 인물의 해석적 기능 참조.
138) Iser. W., 앞의 책, 269-270면.

자가 앞으로의 소설 읽기에서도 젠더를 빈자리로 발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인물의 젠더는 겉보기엔 빈자리처럼 보이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젠더 구성을 위해서 독자는 보다 능동적으로 빈자리를 찾으며 독서 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은 젠더에서 더 나아가 텍스트 내에 산재되어 있지만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여러 불확정성의 요소들을 발견하도록 독자를 이끌어간다. 즉 이는 소설 읽기에서 독자의 상상력을 추동하는데, 서사적 상상력은 서사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상상력으로 서사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139] 불확정성의 인식은 이러한 상상력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젠더의 모호성에 대한 인식은 서사적 상상력을 길러주어 소설의 감상과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3) 비동일적 정체성에 기반한 타자 이해 심화

젠더 구성을 통해 독자는 비동일적 정체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퀴어 인물이 부정의 방식으로 '타자성을 보전'하는 '탈정체성 서사'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인식이 가능해진다. 인정에 기반한 대항 서사와 달리 이성애 규범 사회의 식민주의적 호명에 대응하는 비동일화 서사 전략은 퀴어 주체가 정체성 정치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타자성을 보전하려는 '퀴어적 상상력'을 견인한다.[140] 이는 젠더 구성이 고정적이지 않은, 비동일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함을 의미하며, 학습자가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타자 이해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정체성의 혼란은 흔히 하나의 동일적 정체성의 구성을 통해 종결될 수 있는 것처럼 다루어지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정체성을 단일한 것으로 환원하며 그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타자성의 요소들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리쾨르의 서술적 정체성은 시간의 흐름을 관통하여 다시 자기로

139) 상상력은 심적 표상을 이해 가능한 의미 있는 통일체로 조직하는 능력으로서 상상력 중 서사와 관련된 상상력은 서사적 상상력(narrative imaginatio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서사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을 의미한다(류수열 외, 『문학교육개론 Ⅱ: 실제편』, 역락, 2014, 128면).

140) 정혜경, 앞의 글, 294면.

돌아와 그 자신임을 확인하는 '자기 동일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141] 이야기는 그 안에 타자성의 계기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나 자신을 설명하려는 이러한 노력의 부분적 실패는 타인의 취약성을 향한 나의 윤리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142]

결국 완벽한 자기 동일성에 대한 거부는 "어떤 윤리적 폭력, 즉 우리가 항상 자기 동일성을 표명하고 유지해야만하며 타자들 역시 그래야한다고 요구하는 폭력에 맞서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143] 때문에 기존의 소설 읽기에서 젠더를 판단의 문제로 파악했던 것과 달리 구성적 관점에서 젠더를 사유하는 것은 동일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정체성에 대한 사고를 가능하게 해 나와 타자를 사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윤대석[144]은 전체성의 상실로 인해 자아와 타자의 균질화 및 타자의 배제가 초래됨을 문제삼으며, '대칭성'의 사고를 도입할 것을 이야기한다. 대칭성이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전체성을 사고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체성은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혼종을 통해 생겨나게 된다. 젠더 구성의 과정은 타자의 비동일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내 안에 존재하는 타자들에 대한 사유를 이끌어 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자기 생성 속에서 타자의 다름을 보는 것은 타자와 나 사이의 경계선에서 비동일적인 정체성을 사고하는 것으로서 타자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

141) 김애령, 「서사 정체성의 구성적 타자성」, 『해석학연구』 36, 한국해석학회, 2015, 220면.
142) 위의 글, 230-233면.
143) Butler. J.,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랑, 2013, 75면.
144) 윤대석, 「대칭성의 문학 교육 시론」, 『선청어문』 4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20.

Ⅲ.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학습자의 소설 읽기 양상

이 장에서는 Ⅱ장에서 설정한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학습 독자들의 해석 텍스트에 나타난 읽기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학습 독자가 인물의 젠더를 어떻게 구성하며 이것이 인물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학습 독자의 읽기 양상에서 앞서 설정한 읽기 과정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젠더 구성의 과정이 인물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방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한계 양상을 파악해봄으로써 이를 보완해 Ⅳ장의 구체적 교육 방안을 마련할 단초를 얻기 위함이다.

앞선 연구 방법에서 이야기했듯,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습 독자로, 실험에서 대상 텍스트는 인물의 젠더가 명시된 부분을 제외하고 발췌해 제공하였다. 해석 텍스트 분석과 범주화는 Ⅱ장에서 설정한 읽기 과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단계가 드러나는 학습 독자의 해석 텍스트 및 면담 내용을 부분 인용해 제시하였다.[145]

분석 결과 학습 독자의 해석 텍스트에서는 앞서 설정한 읽기의 과정이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일정한 한계 역시 함께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젠더의 모호성 인식과 젠더 구성의 과정은 퀴어 인물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과정이 인물과 텍스트에 대한 이해로 이어져 텍스트를 자기화하는 데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는 학습 독자에게 구성적 젠더 개념 자체가 매우 낯선 인지 과정으로서, 이에 기반해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것은 높은 수준의 독해 능력을 요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1-3절을 통해 앞서 설정한 세 단계의 읽기 과정에 비추어 학

145) 학습 독자 해석 텍스트는 최대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독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사소한 오기를 바로잡고 발췌해 제시하였다. 인용한 부분의 밑줄은 모두 연구자에 의한 것이며 인용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생략한 부분과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부분은 모두 대괄호([ ]) 안에 표기하였다. 학습 독자의 해석 텍스트는 '[실험기호-학습 독자 성별-소설 제목의 첫 글자-학습 독자 개별번호]'의 형식으로 표기하였다.

습 독자의 해석 텍스트에 나타난 양상을 보다 세세히 살펴볼 것이며, 4절을 통해 각각의 단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 나타난 한계 양상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1. 인물 젠더의 모호성 인식 양상

이 절에서는 인물 젠더의 모호성 인식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실험 자료로 제공된 텍스트에서 인물의 젠더는 모호하게 재현되어 있었으며, 질문지 혹은 감상문에 '젠더'와 관련된 발문이 다수 존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젠더의 모호성을 인지하였으며 인물의 젠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해석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인물 젠더의 모호성 인식은 젠더 구성의 출발점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젠더 구성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젠더의 모호성에 대한 인식은 학습 독자의 해석 텍스트 곳곳에서 드러났으며, 이는 인물 파악에 있어 젠더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즉 독자는 젠더의 모호성으로 인해 인물 이해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고, 해석의 다양성을 체감하며 모호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두 가지 양상은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는 젠더의 모호성이 텍스트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의미의 다양화 측면에서 독자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학습 독자의 양상을 1) 젠더의 모호성에 대한 어려움 호소 2) 젠더의 모호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젠더의 모호성에 대한 어려움 호소

인물 젠더의 모호성을 인지한 학습 독자들은 그로부터 기인한 독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많은 학습 독자들이 인물의 젠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자 했는데, 이는 젠더에 대한 파악이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정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젠더는 이제까지 독

자에게 쉽게 파악되는 요소로서 의문시된 적이 없었으나, 그러한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될 때 학습 독자는 자연스럽게 그 모호함에 주목해 소설을 읽게 되는 것이다.

> 이 소설 속 인물을 이해하는 데 어려웠던 점은 인물의 젠더를 확신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나'의 관점으로 진행되는 이 소설 속에서 인아의 정확한 마음은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인아를 향한 '나'의 감정의 근거를 자세히 알지 못한 채 '나'의 젠더를 바로 확정짓기는 힘들다고 생각했다. [ⓜ-여-에-37]

위의 학습 독자의 경우 단정적으로 인물 이해의 어려움이 젠더의 모호성에 있었음을 고백한다. 이 학습 독자 외에도 면담을 진행했던 11명의 학습 독자들 모두 젠더가 모호한 소설을 처음 접해봤으며, 다른 소설에 비해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모호한 인물의 젠더가 대부분의 학습 독자에게 매우 낯선 것으로 그로부터 읽기의 어려움이 기인함을 알 수 있다.

> 학습 독자: 솔직히 지금도 굉장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인물의 젠더를]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둘 다 언급을 했는데 확답을 내주지 않고, 그렇다고 확답을 내줘도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람들 개개인이 한 번 다시 읽으면서, 머리를 깨지게 하면서, 생각을 좀 다시 한 번 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소통하면서. [...]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면-ⓜ-남-에-45]

위의 학습 독자는 독서가 끝나고 시간이 꽤 지난 시점임에도 젠더의 모호성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소설을 읽으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어려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는 지점에서 이는 긍정적인 요소로 언급될 수 있으나 이러한 어려움이 자칫 독자의 독서를 단념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독자들 역시 인물 젠더의 모호성이 해석의 제약으로 작용했

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약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그동안 간과했던 젠더의 중요성을 깨닫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 개인적으로 이 소설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나 방향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한 유추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인데 그만큼 인물은 중요하다. 하지만 주어진 소설에는 인물의 이름만 오직 나와 있을 뿐, 그 이상, 특히 젠더를 알 수 없어 소설의 중요한 뼈대를 이해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남-뼈-21]

> 인물의 젠더를 파악하는 것이 어쩌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인물의 젠더를 인식한 후에야 추가적인 정보를 접했을 때 잘 끼워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여-뼈-5]

[㉤-남-뼈-21]은 소설 이해에서 인물의 중요성과, 인물 이해에서 젠더의 중요성을 동시에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퀴어 인물을 통해 학습 독자가 젠더의 모호성을 처음으로 느끼고, 소설 해석에 있어 젠더의 중요성을 체감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모호성이 주는 여러 제약에 대한 인식은 젠더가 그동안 인물을 이해하는 데 미쳤던 영향을 깨닫게 해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탐구해나가는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뼈-5] 역시 인물의 젠더를 파악하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독자가 젠더의 영향력을 인지하며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준다. 특히 이 학습 독자는 젠더를 인식한 후에야 인물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잘 끼워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를 통해 '젠더'가 여러 정보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다른 정보들을 규정하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이 독자의 경우 이러한 젠더의 복잡한 작용에 대한 무의식적 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소설을 처음 다 읽었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 보았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소설에 등장하는 '나'의 성별

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인물의 젠더를 파악할 때 상당한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물의 젠더가] 소설 해석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고 느낀다. [㉤-여-에-25]

[㉤-여-에-25] 역시 소설 속 인물의 성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소설 이해에 어려움을 야기했으며 젠더를 파악하기 위해 상당한 해석이 필요했다고 고백한다. 즉 독자는 인물 젠더의 모호성을 인식함으로써 소설 이해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젠더에 대한 해석의 필요성 역시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해석과 탐구의 필요성을 체감한 결과 이 독자는 젠더가 소설 해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독자가 인식한 텍스트 해석의 어려움은 텍스트에 대한 거리감이나 독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지만, 어려움의 원인을 탐구하고 그를 해소하고자 하는 과정은 독자의 능동적 읽기를 오히려 촉진할 수 있다. 이처럼 인물 젠더의 모호성을 인식하는 것은 인물의 젠더를 빈자리로 발견하는 것으로 독자를 젠더 구성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젠더의 불확정성에 대한 이해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다.

2) 젠더의 모호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학습 독자는 젠더의 모호성에 대해 단순히 어려움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그로부터 파생되는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자가 이를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젠더를 텍스트의 빈자리로서 발견하는 일이 독자에 의해 능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처음 읽을 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읽을수록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 즐거웠다. [㉤-여-에-38]

학습 독자: 새로운 관점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회적인 통념으로 생각했다가, 그리고는 제가 아는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했다가, 그런 다음에는 이

제 되게 다른, 막 남자인데 [스스로를] 여자라 생각해서 여자를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그 인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그런 일이 즐겁게 느껴졌나요?
학습 독자: 네, 하나하나 단서를 찾으니까 뭔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면-ⓜ-여-에-38]

위의 학습 독자는 해석 텍스트에서 소설을 읽어나가며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즐거웠다고 이야기했는데, 면담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물의 젠더를 파악하며 즐거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단서들을 통해서 젠더를 추론해나가는 과정이 재밌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와 유사하게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체험한 학습 독자들이 다수 존재했다.

사실 처음에 앞부분을 읽었을 때는 이 두 인물들의 젠더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부분에는 딱히 내 기준에서 젠더를 파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소설을 읽으면 읽을수록 파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계속 나와서 재밌었다. [ⓜ-여-뼈-15]

위의 학습 독자 역시 소설 읽기의 과정에서 인물의 젠더를 파악하는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재미있는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관점은 젠더의 모호성이 해석의 난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독자에게 능동적 읽기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기도 함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의 소설들에서 젠더는 모호하게 재현되는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습 독자들이 이를 새로운 종류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학습 독자: 성별이 정해진 이야기요? 이 소설을 읽고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되면, 아마 근데 이런 성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자: 어떤 점에서 더 흥미롭게 다가오나요?
학습 독자: 일단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자기가 직접 성별을 파악하면서 읽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에서 그런 것 같아요. [면-ⓜ-여-에-25]

학습 독자: 소설을 읽는 맛? 독자가 스스로 찾아내는 게 훨씬 더 흥미가 배가되니까 그렇게 숨기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 읽었을 때는 보통 자기 생각? 고정관념? 그대로 읽어가는데 [...] 계속 읽으면 중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저도 그렇게 돼서 계속 다시 읽어봤고. 그래서 독자가 더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젠더를 모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면-ⓜ-남-에-47]

위의 학습 독자들 역시 젠더를 직접 찾아내고 읽는 재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읽던 소설들과 비교했을 때, 모호한 젠더를 지닌 소설이 더욱 재미있고 독자의 다양한 생각을 자극할 수 있어 흥미롭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면-ⓜ-남-에-47]의 경우 이러한 모호성을 '소설을 읽는 맛'이라고 이야기하며 소설 읽기의 긍정적 속성으로 의미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는 자신의 고정관념에 따라 읽게 되지만, 계속 읽으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 독자가 또 다른 사유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며 젠더 구성의 과정을 메타적으로 기술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학습 독자의 사고는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된 퀴어 인물에 의해 촉발된 특수한 것이지만, 기존의 소설들에 대해서도 독자가 능동적으로 빈자리를 찾아낸다면 그를 탐구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학습 독자: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소설이 처음이어서 제가 다양한 관점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설들은 관점이 명확하게 제시돼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때, 그때도 어차피 똑같은 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읽을수록 다른 답이 나오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는 소설인 것 같아서 이런 소설이 있다면 더 읽어보고 싶어요. [면-ⓜ-여-에-38]

위의 학습 독자는 대상 텍스트에 대해 읽을수록 다른 답이 나오는 것에서 굉장한 신선함과 재미를 느꼈다고 이야기하며, 이런 소설을 더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는 퀴어 인물이 촉발한 사유로서 기존의 소설들에

서는 정답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던 것에 반해 퀴어 인물의 모호성은 명확한 정답을 내려주지 않아 읽을수록 새로운 답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습 독자들은 새로운 종류의 소설에 대해 거부감보다는 흥미를 더욱 많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모호성을 소설의 본질로 이해하며 모호성이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메타적으로 인식하기도 했는데, 이는 다양한 해석에 대한 학습 독자의 욕망을 잘 보여준다. 때문에 젠더의 모호성을 인식하는 것은 독자가 젠더 구성의 과정을 깊이 있게 수행하여 다양한 해석을 도출하도록 이끌 수 있다.

2. 인물의 젠더 구성 양상

이 절에서는 학습 독자가 인물의 젠더를 구성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인물 젠더의 모호성을 인식한 독자는 젠더 구성을 통해 젠더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이때에는 사회적 통념에 의한 표지의 발견과 반성적 추론의 과정이 동시적으로 작용한다.

「에우로파」와 「뼈 도둑」에서는 모두 인물의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대두분의 학습 독자들은 인물의 젠더를 여러 가지로 추측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습 독자들은 사회적 통념을 이용하였고 젠더이분법에 대해 완전한 거부를 드러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는 학습 독자들이 고정적 젠더 체계에 매우 익숙해져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일반적인 소설에서는 인물의 젠더가 명확히 제시되기 때문에 퀴어 인물의 젠더에 대해서도 젠더의 불확정성을 이해하려는 시도보다는 정답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학습 독자에게 더욱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물의 젠더 구성 양상은 사회적 통념에 의한 것과 반성적 추론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양상을 명확히 양분할 수는 없으나 사회적 통념에 근거한 경우 확정적으로 젠더를 구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반성적 추론을 계속해서 행하는 경우에는 통념에서 벗어나 불확정적으로 젠더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잘 드러났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학습 독자의 양상을 1) 사회적 통념에 의한 확정적 젠더 구성 2) 반성적 추론을

통한 불확정적 젠더 구성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회적 통념에 의한 확정적 젠더 구성

상당수의 학습 독자는 사회적 통념[146]에 근거해 텍스트 내의 젠더 표지들

---

146) 사회적 통념은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실험 결과 현 세대 학습 독자들에게도 여성/남성의 특성에 대한 관습적 인식들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학습 독자들이 텍스트 내에서 '인아'를 '여성'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 요소들을 서술한 내용이다.

"굽이 높은 빨간 구두를 신고 초록색 니트 원피스를 입어보는 부분은 인아의 젠더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게 한다."[㉤-여-에-39] / "마지막 부분에서 '클렌징 오일로 화장을 지우고 샤워기의 뜨거운 물로 오래 몸을 씻은 뒤, 아침에 입고 왔던 옷들을 주섬주섬 걸쳐 입는다.' 라고 말한 것을 보고 '나'가 남자가 아닌 여자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여-에-8] / "인아의 정체성 또한 바로 알 수 있었다. 빨간 구두, 원피스 등 다양한 단어들로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여-에-10]

이와 같은 언급은 구두, 원피스, 화장 등의 요소가 '여성'의 특성으로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에 대한 반성적 의식 역시 함께 드러나고 있었다. 특히 『해가 지는 곳으로』에서 '지나'가 '립스틱'을 바르는 장면을 통해 '지나'를 여성으로 파악하면서도 그러한 자신의 생각이 고정관념임을 느끼고 이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관련된 학습 독자의 반응이다.

"흔히들 여자와 남자를 갈라놓는 특징들이 쓰여 있었다. 지나는 립스틱이나 뭐 그런 것들, 도리는 가장처럼 행동했다. 이런 생각을 지니기 싫지만 그렇게 보였다."[㉠-여-해-41] / "지나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거의 여자들이 관심 있는 물건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화장이나 여성스러운 물건에 관심을 가지는 남자들도 있어 남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여-해-52] / "지나가 립스틱을 바른다고 해서 여자인 거 같긴 한데 남자도 당연히 립스틱을 바를 수 있으니 남자일 것 같기도 하다."[㉠-여-해-85]

이와 같은 학습 독자들의 반응은 젠더에 대한 통념이 변화의 과정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현재 학습 독자의 젠더 인식이 과도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습 독자들은 '주로, 대부분, 보통' 등의 어휘를 사용하며 관습적 젠더 특성을 다수 인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통념에 의한 젠더 인식이 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021년 남녀 청소년의 젠더의식을 비교·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청소년들 모두에게 동성 간의 유사성이 강하게 작용해 동일 성별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때 전체 연령대를 관통하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인은 이성친구와 친하게 지냈을 때 '사귄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성애중심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현 청소년들의 의식을 잘 보여준다. 한편 청소년의 성평등의식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남성 청소년의 의식 수준이 더 낮고,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통해 성별 변인에 따라서도 젠더 의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최윤정, 「또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성평등의식과 태도 연구(1): 남녀 청소년의 또래 문화와 젠더의식 격차 비교」, 『ISSUE PAPER』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5면). 이와 같은 내용은 변화하는 젠더의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젠더이분법 및 이성애중심적 사고에 익숙해져있는 현 청소년들의 양가적 모습을 잘 드러내준다.

을 발견하고 해석하며 인물의 젠더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에우로파」와 「뼈 도둑」은 두 인물의 관계가 이야기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물의 젠더 파악 역시 두 인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인물들이 서로 애정 관계인 것처럼 묘사되기 때문에 인물의 관계를 이성애로 파악하는 학습 독자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인물의 젠더 역시 한 사람은 여성, 다른 한 사람은 남성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곧 텍스트 내의 여러 요소에 의해 수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학습 독자는 텍스트를 계속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인식하며 자발적으로 이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러나 학습 독자의 이러한 수정은 또 다른 통념에 의한 확정적 젠더 구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스스로 끊임없이 사랑과 성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초반에는 '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 당연히 남자이겠거니 하면서 읽었다. 그런데 '나'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니 어딘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다. [㉣-여-에-8]

위의 학습 독자는 「에우로파」에서 '나'의 젠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

여성/남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 외에 섹스/젠더/섹슈얼리티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를 언급한 학습 독자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구분을 언급했더라도 대부분은 섹스와 젠더의 이분법을 담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섹스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성으로 인식하는 한편, 젠더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성역할이 아닌 섹슈얼리티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서 개인의 성적 지향 및 선호와 관련된 '정신적 성'이라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태도는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적 인식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은 관련된 학습 독자의 반응이다.

"[인물의] 성 지향성을 정신적인 성 젠더로 범주화해야 하는지 생물학적 성인 섹스로 범주화해야 하는지 또한 내가 소설의 인물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다."[㉤-남-에-47] / "'나'의 외형은 남자이지만 내면은 여성이다."[㉤-남-에-45] / "'인아'의 성별(sex)은 여성이고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은 시스젠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양성애자 혹은 동성애자일 것이라 추측했다."[㉢-여-에-7]

이때 마지막 학습 독자의 경우 성별/성 정체성/성적 지향을 구분해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인데, 이때의 '젠더'는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젠더 개념(사회적 성)과는 차이를 지닌다. 이러한 학습 독자의 새로운 구분은 역시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성보다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정체성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대적 담론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극히 일부의 학습자들에게 드러난 것으로 여전히 젠더와 관련된 담론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낯선 개념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다고 이야기하며 젠더의 모호성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물의 젠더를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 당연히” 남자로 파악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나’와 애정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아’가 ‘그녀’라는 명명을 통해 소설 내에서 다소 명확히 여성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47] 즉 독자는 ‘이성애’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반해 인물의 젠더를 자연스럽게 추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동시에 이러한 자신의 사고를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명명해 통념에 대한 메타적 인식 또한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퀴어 인물은 통념에 의한 읽기로는 해소되지 않는 부분을 지니고 있어 학습 독자 역시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 읽었을 때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한다. 아래의 독자들에게서도 「에우로파」에서 ‘나’의 젠더에 대한 유사한 의견 표명이 드러난다.

> 소설의 초반부엔 ‘나’의 성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인아가 여성으로 나와서 당연히 ‘나’가 남자이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나’가 ‘여자를 좋아할 줄 몰랐다’, ‘구두를 신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나’가 여성임을 알 수 있었다. [㉣-여-에-11]

> 이 소설의 처음에 ‘나’가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대한 단서 없이 그냥 ‘나’라고만 나오고, 여자인 인아와 입맞춤을 하는 행동 등을 통해 주인공의 성별이 남자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레즈비언 이야기가

147) 인아의 젠더 역시 소설 내에서 모호하게 재현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습 독자들은 ‘인아’의 젠더를 확정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라는 소설 내의 언술 외에 ‘인아’의 젠더를 여성으로 파악한 근거를 보다 자세히 서술한 학습 독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인아’의 생물학적 성은 여자, 젠더도 여자이지만 남자도 여자도 좋아할 수 있는 양성애자라고 결론지었다. [...] ‘인아’의 생물학적 성을 판단한 근거는 남편이 있는 결혼생활을 했다는 것(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이 불가하기 때문에)[이고], 젠더를 판단한 근거는 하이힐, 원피스였다. 둘[‘인아’와 ‘나’]이 서로 좋아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했기에 젠더를 기준으로 여자인 ‘나’와 여자인 ‘인아’가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인아’를] 양성애자(남자를 아예 좋아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결혼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라고 판단했다.” [㉤-여-에-38]

이 학습 독자는 특히 인물의 생물학적 성과 정체성으로서의 젠더를 구분해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판단의 과정에서 ‘결혼 사실’, ‘원피스’, ‘하이힐’ 등이 젠더 표지로 작용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인물의 젠더에 대한 ‘양성애자’라는 파악은 규범적 젠더 인식을 벗어난 것이지만 여전히 이분화된 젠더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판단임을 알 수 있다.

나온 것과 여자인 인아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당황한 모습을 보고 '나'가 여자임을 알 수 있었다. [㉢-여-에-9]

소설의 초반부를 읽었을 때, 두 사람을 연인처럼 묘사하는 대목이 나오거나 '인아'에 대한 '나'의 애정이 드러난 부분 때문에 나는 이 소설의 '나'가 남자 주인공인 줄 알았다. 나는 이 소설이 남자와 여자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을 것이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상했다. 그러나 내가 작품 속 '나'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눈치 채게 된 것은 작품의 중후반부의 '두 명의 레즈비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였다. 그 이야기가 '나'와 '인아'와의 관계를 빗대어 표현한 것 같다고 느끼면서부터 나는 이 작품의 주제를 '레즈비언의 동성연애'로 이해했다. [㉢-여-에-15]

위의 학습 독자들은 모두 소설의 초반부에서는 '나'를 남성으로 '인아'를 여성으로 파악해 남녀 간의 사랑으로 소설을 의미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근거로는 여성인 '인아'와 입맞춤을 하는 장면, 두 사람을 연인처럼 묘사하는 장면 등을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서술들은 이성애 담론이 독자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설을 읽어나가며 학습 독자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는 "여자를 좋아할 줄 몰랐다"는 '나'의 깨달음과 '나'가 구두를 신었다는 것, 그리고 "레즈비언"이라는 소설 내의 언술 등이 또 다른 젠더 표지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젠더 표지의 발견과 해석에도 계속해서 선행하는 배경지식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을 좋아하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거나, 구두를 신는 사람은 여성일 것이라는 통념을 기반으로 학습 독자는 인물을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들은 인물의 젠더를 '여성'이라고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와 달리 '나'를 단순히 '여성'으로 파악하지 않고 섹스와 젠더를 구분해 '트랜스 젠더'로 파악하는 독자 또한 존재했다.

'나'가 '인아'에게 '나'의 젠더를 알려주기 전에 '나'에게 고백한 것으로 보아 '나'의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라고 생각했고, 그 뒤의 '인아'의 고백에 대한 '나'의 대답 중 '나는 너처럼 되고 싶어'라는 부분이나 [...]

> “만약 네가 원하는 대로 태어났으면 뭘 했을 것 같아?”라는 질문에 침묵하는 것, 그 후 바로 이어진 “원하는 대로 다 살아낼 수 있다면 뭘 할 것 같아?”라는 질문에 속으로 흥분하는 모습에서 ‘나’가 현재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나는 소설 속 화자 ‘나’의 젠더를 생물학적 성과 반대인 ‘여성’이라고 판단했다. 즉, ‘나’는 트랜스젠더인 것이다. [...] 그리고 [...] 성 지향성을 정신적인 성 젠더로 범주화해야 하는지 생물학적 성인 섹스로 범주화해야 하는지 또한 내가 소설의 인물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다. [㉤-남-에-47]

위의 학습 독자는 ‘나’가 ‘인아’에게 ‘너처럼 되고 싶다’고 고백하는 부분, 원하는 대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 등을 근거로 들어 ‘나’를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트랜스젠더로 파악한다. 또한 ‘젠더’를 정신적인 성으로, ‘섹스’를 생물학적인 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며, 한 인물에게서 섹스와 젠더가 상충해 나타났기 때문에 인물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래는 같은 학습 독자와의 면담 내용이다.

> 연구자: 인물의 젠더를 명확하게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 학습 독자: 명확하게.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해요. [...] 작가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제시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면-㉤-남-에-47]

이 학습 독자는 자신이 트랜스젠더로 파악한 인물의 젠더가 명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작가가 명확히 인물의 젠더를 표명한 경우 그를 따르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학습 독자의 의견은 비규범적 젠더에 대한 상상이 꼭 젠더의 불확정성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독자는 트랜스젠더를 젠더이분법 체계 내에서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젠더정체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그 안에 내재한 균열의 면모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확정적 젠

더 구성의 기반에는 작가의 권위가 역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학습 독자들이 작가에게 텍스트 해석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가가 인물의 젠더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경우 그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뼈 도둑」에서 역시 학습 독자는 인물의 젠더를 우선 이성애 관계로 파악했다가 이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독자들은 「뼈 도둑」에서 젠더 표지를 보다 수월하게 찾아내며 두 인물의 젠더를 '동성'으로 확정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독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이성애'를 가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해석되지 않는 소설의 면모들을 발견하게 되어 이성애의 반대항으로서 '동성애'를 떠올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내 착각일 수 있지만, '평범한 연인이었다면 장례식에 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와 '장'이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동성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뼈-1]

> 처음에는 당연히 안타까운 이별을 하게 된 남녀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 모태신앙인들인 '장'의 가족들이 '장'의 남자친구인 '조'를 그리 달가워하지 못하는 것,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지는 못한 '조', 이 두 가지에 대해 한참을 생각하다가 감상문의 주제가 젠더라는 걸 떠올리고 나서야 '조'와 '장'이 모두 남자라면? 이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 그래서 '조'와 '장'은 둘 다 남성이며 동성애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뼈-16]

위의 학습 독자들은 모두 처음에는 두 인물을 "평범한 연인"으로, "안타까운 이별을 하게 된 남녀"로 파악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소설을 읽어 나가며 장례식장에서 '장'의 연인인 '조'에 대해 '장'의 가족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낸 것이 무엇 때문인지에 의문을 갖게 된다. 결국 모태신앙인 '장'의 가족들을 근거로 하여 '조'와 '장'을 '동성애자'로 파악하게 되는데, 이는 학습 독자들이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통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아래의 학습 독자는 그러한 인식을 보다 분

명히 드러내고 있다.

> 〈뼈 도둑〉을 읽고 내가 파악한 인물의 젠더는 '조'와 '장' 둘 다 남자인 것 같다. '조'는 '그'라고 칭한 것을 보면 남자가 확실했는데 '장'의 젠더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장'이 죽고 장례식을 치를 때 가족들이 모태신앙이라 소개되었고 장의 장례식에 온 조에게 불편한 눈치를 준 것을 보면서 남자구나 확신이 생겼다. '장'의 젠더가 여성이었어도 조와 장의 사이를 안 좋게 볼 수 있었겠지만 가족이 모태신앙이라 나왔고,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이 남자일 거라 확신했다. [ⓜ-여-뼈-2]

위의 학습 독자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사회적 담론을 근거로 '장'을 남성이라 판단하는데, '확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인물의 젠더를 매우 확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뼈 도둑」에서 대부분의 학습 독자들이 '장'의 가족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젠더 표지로 발견하고 해석해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식이 널리 공유되는 사회적 담론임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학습 독자들이 동성애에 대한 개념적 인식을 충분히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당연히", "평범한 연인이었다면"과 같은 발화 역시 사회적으로 이성애가 당연시되는 현실을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이 외에도 학습 독자들은 다른 요소들을 젠더 표지로 활용하기도 했다. 아래의 학습 독자는 '조'와 '장'이라는 이름, '그', '누이와 형제'라는 어휘 등을 근거로 인물의 젠더를 남성으로 판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나는 우선 이 글의 처음부분을 읽었을 때, '나'와 '장'이 모두 남자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읽었다. 왜냐하면 '조'와 '장'이라[고] 하면 왠지 남성의 이름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뼈-1]

> 나는 '장'과 '조' 모두 남성이라고 파악했다. 중간에 보면 '장의 누이와 형제들' 이라는 표현에서 장의 성별을 알 수 있었고, 조를 '그'라고 표현해서 '조'와 '장' 모두 남자임을 알 수 있었다. [ⓜ-여-뼈-18]

‘조’와 ‘장’이라는 이름은 젠더 판단의 문제를 비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뼈-1]의 해석 텍스트는 이 역시 하나의 젠더 표지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와 ‘장’은 인물의 성(姓)에 대한 호명인 것처럼 읽히는데, 이때 독자가 이를 남성으로 파악한 것은 남성이 보다 대표성을 가지는 젠더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뼈-18]에서 알 수 있듯 이름보다 더욱 분명하게 젠더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그’, ‘그녀’, ‘누이’, ‘형제’ 등의 호명이다. 이러한 호명은 특히 젠더를 구성의 관점이 아닌 사실 판단의 문제로 바라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때문에 학습 독자들이 ‘그’, ‘그녀’라는 호명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호명과 더불어 충돌하는 젠더 표지들을 주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같은 젠더 표지에 대해서도 학습 독자별로 상이한 해석이 드러나기도 했다.

> 처음 이 소설을 딱 읽고 나서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고 그저 죽은 연인을 그리워하는 남겨진 이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 당연히 두 연인의 성별이 다를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읽다 보니 주인공 ‘조’와 ‘장’이 둘 다 남자라는 것을 알았다. [㉢-여-뼈-3]

> 사실 이 소설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연인이라는 표현에서 둘은(‘조’와 ‘장’) 동성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다. 이성이었다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라 표현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여-뼈-10]

대부분의 학습 독자들은 [㉢-여-뼈-3]과 같이 ‘연인’이라는 이유로 두 인물의 성별을 다를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여-뼈-10]의 경우 ‘연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오히려 두 인물을 동성으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학습 독자 모두 이성애 관계에 보다 익숙한 상태라는 사실은 다르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 이성애 관계라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는 인식을 추가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표지의 발

견과 해석은 대부분 널리 공유되는 담론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구체적 양상에서는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습 독자의 양상은 사회적 통념에 의해 인물의 젠더를 확정적으로 구성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여러 추론과 수정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이는 규범적 젠더에서 벗어나 비규범적인 젠더를 구성해내려는 시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하나의 통념을 거부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이성애의 반대항으로서 동성애'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젠더에 대한 상상 역시 관습적으로 형성된 이미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학습 독자는 익숙한 담론에 의해 해석되지 않는 인물의 젠더를 모호한 것으로 발견하고 그에 대한 추론을 시작하지만, 젠더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성급히 다른 담론을 이용해 젠더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는 인물의 젠더에 대한 추론이 젠더를 다시 부정의 자리로 발견하는 순환적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학습 독자의 이러한 확정적 젠더 인식은 젠더에 대한 충분한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포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담론의 존재가 오히려 독자에게 동성애를 인식하게 해주는 틀로 작용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지닌다.[148] 또한 사회적 통념이 학습 독자에게 젠더 파악의 핵심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독자 역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는 언제든 거부의 가능성 또한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반성적 추론을 통한 불확정적 젠더 구성

일부 학습자들은 사회적 통념에 근거해 젠더를 확정적으로 제시하기보다

148) 푸코는 18세기에 이르러 섹스가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을 지적한다. 즉 유용하고 공적인 담론에 의해 섹스를 규제, 통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섹스가 덜 이야기되기보다는 더 많이 이야기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권력이 행사되는 바로 그곳에서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서 섹스에 대한 세분화되고 체계화된 담론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권력이 단순히 대상을 억압해 어둠 속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닌, 그에 대한 담론의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Foucault. M., 앞의 책, 37-56면). 이와 유사하게 젠더에 대한 관습적 담론은 학습 독자에게 하나의 억압적 권력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는 젠더를 미지의 자리에 놓아두지 않고 인식하도록 하는 생산적 틀로 작용할 수 있다.

계속된 반성적 추론을 통해 인물의 젠더를 불확정적으로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젠더의 모호성에 대한 인식은 텍스트에 대한 어려움의 호소로 이어지기도 했으나 학습 독자의 계속된 탐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계속된 탐구를 통한 불확정적 젠더 인식은 학습 독자가 젠더라는 빈자리를 채울 때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인지하게 하며, 젠더의 불확정성을 토대로 새롭게 인물을 이해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정적 젠더 인식은 실험을 진행한 학습 독자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옳은' 인물 해석을 도출해내고 싶은 학습 독자의 욕망과도 맞닿아 있는데, 많은 독자들이 텍스트 내에 모순되는 요소들이 있을 때 이를 빠르게 해소하고 올바른 해석을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149]

그러나 「에우로파」에서는 이러한 불확정적 젠더 구성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나'라는 인물에게서 모순되는 젠더 표지들이 계속 발견되었기 때문에 학습 독자들은 '나'의 젠더를 하나로 확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 〈에우로파〉를 읽고 해석하면서 젠더가 미친 영향은 많았다. [...]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웠던 점은 '내가 해석하는 주인공의 젠더가 이게 맞나?' 싶은 것이었다. 글 안에는 주인공의 젠더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해석하는 주인공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주인공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여-에-29]

149) 일례로 한 학습 독자([ⓜ-여-뼈-7]는 해석 텍스트에서 소설 내의 모순되는 요소들을 나열하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겠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조'의 경우 그의 약간 모순되는 행동의(삶에서 의지를 잃었지만 '장'의 납골당으로 걸어서 찾아갈 의지는 존재한다는 점) 함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 살 수 있으면서 살지 못한다가 되면 말이 상충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다. [,,,] 저 문구도 전지적 서술자가 쓴 것인지 아니면 조가 쓴 것인지 혼동이 온다." 이와 같은 말은 이 학습 독자의 독해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독자들이 모순되는 요소들을 해석의 자원으로 삼기보다 해석의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면담을 했던 한 학습 독자([ⓜ-남-에-47])는 "이 소설의 주된 해석에 [비춰보면] 제 해석이 맞나요?"라는 질문을 연구자에게 제기했다. 이 학습 독자는 소설에는 정답이 없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다수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학습 독자들이 지닌 옳은 해석에 대한 보편적 욕망을 잘 보여준다.

위의 학습 독자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젠더'가 계속해서 빈칸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해석하는 인물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에우로파〉를 읽고 해석하면서 젠더가 미친 영향은 많았다"고 이야기하여, 이러한 의구심이 인물 이해에 있어 젠더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소설을 처음 다 읽었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 보았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소설에 등장하는 '나'의 성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나'가 표현하는 방식이 남성이라고 하기엔 부드럽고 세세한 설명이라 여성일 것이라 생각했다. 이후 소설 초반 '나'가 설명하는 '인아'의 옷차림에 대한 묘사, '나'가 느끼는 감정 설명과 '인아'가 결혼했던 상대의 성별이 남자라는 것을 읽은 후 '인아'는 여성이고 '나'는 당연히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이해했었다. 하지만 이후 '나'가 밝은 갈색 가발을 쓰면서 다리를 꼬고 앉는 장면과 레즈비언이 등장하는 영화 설명, 가늘고 날카로운 구두 굽 묘사 등을 읽은 후 '나'의 성별을 더욱 확신하기 어려웠다. [...] '나'는 어떤 이유로 여성이 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여성이 되기를 바람과 동시에 여성인 '인아'를 사랑한다는 점이 조금 의문이 들었다. 대부분 사람은 이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 여성이 되기를 바란다면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상대는 남성이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여-에-25]

위의 학습 독자는 계속된 반성적 추론을 통해 인물의 젠더를 구성적으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독자는 '나'가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이 세세하다는 것을 근거로 '나'의 젠더를 여성으로 파악했지만 곧이어 '인아'에 대한 '나'의 감정 등을 통해 '나'를 남성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나'가 가발을 쓰는 것과 가늘고 날카로운 구두를 신는 것 등을 통해 또 다시 '나'의 성별에 혼란을 느끼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이 독자는 '나'를 남성이지만 여성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파악하는데, 그러면서도 여성인 인아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에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반성

적 추론의 과정은 젠더에 내재한 불확정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 학습 독자와의 면담에서 역시 이러한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 학습 독자: [인물을] 여성으로 해석해도 충분히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될 것 같아서. 확실하게 남성으로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 연구자: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학습 독자: 저는 남성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이 인물의 표현이나 감정들이 좀 세세하고 부드러운 그런 말들이나 감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자한테서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충분히 여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
> 학습 독자: 이 인물이 여성을 좋아하게 된 게, 여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인아라는 인물과 감정을 교류하면서 인아라는 인물이 좋아진 거지 여성을 좋아하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약간 했었어요. [면-ⓜ-여-에-25]

이 학습 독자는 '나'라는 인물을 남성으로 추론했으나 면담에서 '세세하고 부드러운' 말과 감정 표현 등을 근거로 인물을 충분히 여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해석 텍스트에서 인물이 여성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성인 남성에게 사랑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수정하며, 인물의 젠더정체성에 따라 사랑의 대상이 제약되는 것은 아니라는 새로운 인식을 밝히고 있다. 이는 사랑하는 이의 젠더를 근거로 인물의 젠더정체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불확정적인 젠더 인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아래의 학습 독자는 인물의 젠더가 불확정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지닌 긍정적 면모를 언급하고 있다.

> 젠더에 대해서도, 두 주인공의 관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있지 않아서 두세 번 읽은 후에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주인공의 관계나 젠더에 대해 추측하며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었고 누가 어떠한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 새롭게 이해되는 이

야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여러 가지 쟁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었다. [ⓜ-여-에-39]

위 학습 독자는 이저가 빈자리 채우기에서 능동적 독자 역할을 강조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독자가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작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학습 독자가 젠더의 불확정성과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메타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인식은 독자가 텍스트 내에서 자발적으로 그러한 불확정성을 만들어나갈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습 독자: 섹스랑 젠더라는 개념 정도는 계속 접해 왔어서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파고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어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더 깊게 들어가니까 훨씬 좀 복잡하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구나 했어요. [면-ⓜ-남-에-47]

위의 학습 독자는 해석 텍스트에서 섹스와 젠더를 '생물학적 성'과 '정신적 성'으로 구분하며 어떤 것으로 인물을 이해해야 하는지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그 결과 트랜스젠더로 인물의 젠더를 확정하여 제시하였지만, 면담에서는 젠더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니 젠더라는 게 훨씬 복잡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인물의 젠더에 대한 계속된 사유를 통해 젠더의 복잡성과 불확정성을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인물을 이해할 때 쉽게 해석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인물이 지닌 균열의 면모를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가 인아를 사랑하는 것은 동성애인가, 이성애인가. 물론 후에는 여성이 되었다곤 하지만, 과거에는 분명히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갈등을 했다. 그럼 과거의 '나'는 남자였을까 여자였을까? 외형이 남성이라고 해서 남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하물며 나의 내면이 여성이라고 해

서 자신의 남성의 외형을 부정할 수 있을까? ‘나‘의 외형은 남자이지만 내면은 여성이다. 과연 ’나‘가 여성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성애일까 동성애일까? [㉤-남-에-45]

위의 독자는 계속된 질문을 통해 인물의 젠더정체성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태도를 보인다. 물론 그 내용은 ‘남성’, ‘여성’, ‘이성애’, ‘동성애’로 한정되어 이분법적 젠더체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지만, 계속해서 변주되는 질문은 인물의 젠더를 쉽게 확정하지 않고 젠더 안에 존재하는 모호성을 인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 독자의 경우 외면 혹은 내면 하나만을 기준으로 인물의 젠더를 판단할 경우 생기는 모순을 인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젠더에 내재한 다양한 차이들을 인식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판단보다는 구성의 관점에서 젠더를 파악하는 것으로 학습 독자가 젠더의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글을 모두 읽고 생각해보니 내가 굳이 성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성과 성정체성이 다를 수도 있고 말이다. 하지만 만약 ‘나’의 성별이 여자라면 아무래도 동성애가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약간의 새로움? 같은 감정이 느껴지지만(명백히 거부감은 아니다.) 소설 해석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다. [...] 내가 이 소설을 읽고 느낀 건 젠더의 모호성 정도였기에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뭔지 알아낼 수 없었다. 굳이 생각해보자면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 이다. 사랑 없는 결혼이 가져다 준 트라우마, 편견과 혐오, 경멸과 공포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 둘러싸인 사랑 등등 말이다. [㉢-여-에-6]

위의 학습 독자는 ‘성’과 ‘성정체성’을 다를 수 있는 것으로 개념화하며, 소설을 통해 ‘젠더의 모호성’을 느꼈다고 밝히고 있다. 젠더의 모호성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서술이 없었으나, ‘젠더의 모호성’이라는 언급은 이 독자에게서만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독자는 ‘만약’이라는 가정을 통해 ‘나’의 성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모호한 채로 놓아두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굳이 성별에 집착하고 싶지 않다

는 학습 독자의 언급은 젠더를 무화시키려는 태도로 보이기도 하지만, '젠더의 모호성'을 느꼈다는 것에서 소설 읽기에서 젠더가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자의 해석 텍스트는 성과 성정체성을 분리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섹스와 젠더의 구분법을 벗어나고 있지 않지만, 젠더의 구성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습 독자들의 불확정적 젠더 구성은 인물에 대한 새로운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독자와의 면담 내용은 불확정적 젠더 인식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해석들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연구자: 이 인물의 젠더를 확실히 규정하기보다 '잘 모르겠다'는 상태로 소설 읽기를 끝내면 어떨 것 같아요?
> 학습 독자: 그렇게 끝났을 때는 아마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이 인물이] 어떤 젠더일까,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하고 계속 머릿속에서 호기심을 유발했을 것 같아요. [면-ⓜ-여-에-29]

물론 많은 학습 독자들이 젠더에 대해 확정적 인식을 내리고자 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지만, 젠더의 모호성이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메타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면 단순히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된 퀴어 인물만이 아니라 젠더가 명확히 재현된 경우에도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젠더의 모호성을 찾고 이를 탐구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다.

3.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텍스트 자기화 양상

학습 독자는 구성된 젠더정체성에 기반해 인물을 이해하고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퀴어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을 제재로 제공했기 때문에 학습 독자에게서 개인적, 사회적 젠더 인식에 대한 성

찰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학습자들이 자신과 현실에 대해 감각하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소설 읽기를 통해 이전과 달라진 자신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학습 독자에게서는 이러한 성찰에 기반해 텍스트를 재의미화할 수 있는 단초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는 젠더 구성이 텍스트를 새롭게 파악하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젠더 구성이 학습 독자에게 낯선 사고 과정이었기 때문에 젠더 구성에 기반해 텍스트의 의미를 도출하기보다는 두 과정이 유리된 채로 해석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퀴어 인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인물의 젠더를 성소수자로 확정하여 그에 대한 윤리적 성찰로 텍스트를 의미화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젠더를 고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 구성에 기반한 새로운 인물 이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젠더 구성의 과정이 인물에 대한 이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학습 독자에게서 텍스트에 대한 재구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일부 학습 독자에게서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 독자의 윤리적 성찰 역시 인물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반응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때문에 이 절에서는 이러한 학습 독자의 양상을 1) 개인적·사회적 젠더 인식에 대한 성찰 2) 성찰에 기반한 텍스트 재의미화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개인적·사회적 젠더 인식에 대한 성찰

젠더 구성은 그 자체로 퀴어적 사고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존하는 퀴어에 대한 사유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대상 텍스트가 퀴어에 대한 사회적 억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로서 인물의 젠더를 구성해내고 이와 관련해 개인적·사회적 젠더 인식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u>옛날과 오늘날 대부분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것을 당연시하</u>

는데 이런 가치관 때문에 '나'를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여-에-34]

인물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남자의 연인은 여자, 여자의 연인은 남자. 무의식 중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 처음 보는 소재였지만 나의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고, 성찰할 수 있었다. [ⓜ-여-뼈-9]

이 소설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작가가 말을 하려는 게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 내용이 조금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해하는 데 어렵기도 했지만, 다시 한 번 읽어보니 나의 성에 대한 편협한 생각이 소설을 읽는 데 더 깊은 이해를 못하게 방해했던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뼈-3]

위의 학습 독자들은 모두 자신이 지닌 고정관념, 가치관 등으로 인해 인물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서술하며,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편협한 생각을 성찰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독자들은 이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상정하는 사고방식을 주된 성찰의 내용으로 삼았는데, 이는 「뼈 도둑」의 내용이 동성 간의 사랑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젠더 인식의 문제점을 느끼고 그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에우로파를 읽고 난 나의 느낀 점은 젠더와 동성애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게 됐고, 내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해왔던 생각에 대한 반성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그리고 나의 진로에 관해서도 생각이 많이 들었다. 나의 진로인 유치원교사라는 직업은 아이들을 돌봐주고 가르치는 역할인데 지도자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생각했다는 거 자체가 너무 창피했고 [그러한 생각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돌봐줄 아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여-에-29]

위의 학습 독자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텍스트에 대한 감상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퀴어라는 소재가 대부분의 학습 독자의 삶과 거리가 있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학습 독자들은 일반적인 자신의 고정관념, 사고방식에 대해 성찰할 뿐 자신의 현재 삶과 연결지어 생각을 발전시킨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 독자는 젠더와 동성애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소설을 읽기 전에도 이미 학습 독자에게 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설을 통해 이 독자는 추상적으로 존재했던 퀴어를 현실 속 존재로 다시 파악하여 자신의 삶에 끌어들였다. 이는 소설 읽기가 독자의 삶에 전이되어 개인에게 유효한 의미를 획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학습 독자의 개인 내적 성찰은 사회적 현실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 독자는 자신 안에 존재하던 고정관념을 넘어서 타자로서 퀴어가 처한 현실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는 인물에 대한 공감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 독자들은 '내가 주인공이었다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물을 실제 사람인 것처럼 간주하며 스스로에게 다가오는 의미를 해석 텍스트에 기술하였다.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은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죽었는데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응원해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면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까에 대해 생각해봤다. 상상만 했는데도 억울함에 주먹이 떨리고 사회에 나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도 힘들 것 같아 조의 아픔이 느껴졌다. [ⓜ-여-뼈-2]

이 독자는 주인공의 연인이 죽은 상황에 감정을 이입해, 자신과 연인의 사랑을 기억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는 퀴어 인물의 젠더정체성을 이해하고 여기에서 비롯한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때 학습 독자는 '조'의 아픔을 단순히 연인을 잃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자신의 사랑을

기억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이라 서술하고 있다. 이는 두 인물의 젠더를 단순히 동성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함의하는 사회적 억압들에 대해 독자의 성찰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태도는 타자의 감정을 헤아려보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특히 '사랑'이라는 일반적 감정은 독자가 타자를 보다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물에 대한 이와 같은 공감은 인물을 이해하는 일차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보다 불가해한 타자와 젠더에 대한 인식으로 사유가 확장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봐도 혼란스러운데 당사자는 훨씬 혼란스럽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느꼈다. 아직 사회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당사자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젠더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고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여-에-38]

위의 학습 독자 역시 자신이 소설을 읽으며 느낀 혼란에 기반해 인물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작중 인물과 같은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틀렸다고 말하는 사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젠더정체성에 대해 수용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 독자의 발화는 모호한 인물의 젠더로부터 기인한 독자의 혼란스러움이 인물과의 거리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인물을 이해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학습 독자의 경우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분위기로 지적하고 있어 소설의 내용을 현실의 문제로 확장시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를 표현하는 소설 속의 몇 줄의 표현만으로 '나'의 성별을 단정해 생각한 내가 조금 부끄러워졌다. 자신에게 주어진 성별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다른 성별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현실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현재 나의 성별[여성]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므로 내가 만약 남성으로 태어났다면 여성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여-에-8]

위의 독자 역시 인물이 처한 상황에 자신을 놓아보는 가정을 통해 인물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학습 독자는 자신이 현재 스스로의 젠더정체성에 만족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어 자신도 충분히 퀴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통해 인물을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이해는 자신을 기준으로 타자를 이해하는 태도라는 점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지만 독자가 현실의 퀴어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독자의 경우 소설 속의 몇몇 표현만으로 '나'의 성별을 단정지어 생각한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소설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수정된 자아를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물론 학습 독자들은 퀴어를 주로 동성애 혹은 트랜스젠더에 한정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남성의 젠더이분법을 허물고자 하는 태도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독자들은 명확히 자신과 작중 인물의 젠더정체성을 다른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는 나와 타자를 분리시켜 이해하려는 태도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오히려 그 다름을 통해 그 인물이 되어보려는 시도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는 인물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작용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학습 독자의 해석 텍스트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의견 표명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소설의 주제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파악한 독자들이 많았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아끼는 것. 그것이 부정당하는 것, 그런 선입견에 가로막힌 채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나는 이 작품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라고 느꼈다. [㉢-여-에-15]

어찌됐든 모두 같은 사람이고 감정이라는 걸 느끼는 사람들인데 다른 방식의 사랑과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사자가 그 시선을 느낄 만큼 혐오하고 무시하고 안 좋게 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런 시선에

대한 해결방법을 꼭 다들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느꼈다. [ⓜ-여-에-29]

이런 소설들이 세간에 좀 더 알려지게 된다면 동성애, 양성애뿐만이 아닌 다른 사랑, 젠더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위화감 없이 받아들여 사람들이 이런 사랑들을 평범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남-에-44]

특히 학습 독자들이 퀴어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표현은 "인간과 인간", "평범한", "모두 같은 사람" 등의 표현으로, 퀴어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습 독자가 실존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는데, 특히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퀴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150] 학습 독자들은 소설을 통해 접해본 적이 없었던 전혀 다른 '타자'를 처음으로 접촉하고, 이를 현실의 퀴어를 인식하는 계기로 삼은 것이다. 특히 [ⓜ-남-에-44]의 경우 "동성애, 양성애뿐만이 아닌 다른 사랑, 젠더"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인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를 "평범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보편화의 논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또 다른 젠더에 대한 상상은 이러한 타자화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성찰에 기반한 텍스트 재의미화

학습 독자의 젠더 인식에 대한 성찰은 텍스트를 재의미화 하는 것으로 이어졌을 때 텍스트 세계에 대한 자기화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규범적 젠더 인식에 익숙해져있는 학습 독자에게 젠더를 비고정적으로 사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학습 독자의 수준에서 젠더에 내재한 여러

150) 실험을 진행한 거의 모든 학습자들은 퀴어에 대한 소설을 처음 접해봤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자들이 퀴어에 대해 명확한 반응을 형성했다는 것은 학습 독자의 인식에 비해 뒤쳐진 교육현장의 실태를 드러내준다. 학습 독자의 이와 같은 요구는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균열의 지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를 새롭게 의미화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인물 해석에 있어 젠더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학습 독자들은 다수 존재했으며, 이러한 반응은 젠더에 대한 탐구가 인물과 텍스트를 새롭게 읽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또한 인물의 젠더가 소설 해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젠더를 의식하면서 내용을 읽지는 않았고 다른 현대소설에서 이 소설과 유사한 분위기의 소설은 등장인물이 대부분 남자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인물이 모두 남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읽었다. 소설을 다 읽고 감상문 양식을 보고 인물의 젠더를 파악하라고 해서 뒤늦게 각 인물의 젠더의 근거를 생각해보다가 장을 여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생각을 바꿨다. 장을 여성으로 생각한 상태에서 소설을 다시 생각해보면 장의 죽음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고, 조가 장의 납골당을 찾아가는 행위 등에 포함된 의미가 달라질 것 같다. [ⓜ-여-뼈-7]

위의 학습 독자는 다른 학습자들과 다르게 두 인물을 동성 관계로 생각했다가 이성 관계로 바꾸어 파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했을 때 소설 내의 여러 요소들이 지닌 의미가 달라질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달라진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서술이 없었지만, 젠더 구성의 과정이 텍스트의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 경우 인물의 젠더 구성 과정에 충분한 비계가 제공된다면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기반으로 달라진 의미를 기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나는 인물의 젠더를 파악할 때 상당한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설 해석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고 느낀다. '나'를 여성으로 생각하고 읽었을 때는 '우정을 넘어선 사랑'으로 해석이 되었고, 남성으로 해석한 경우에는 '나'의 성 정체성을 보여준 이야기로 해석되었다. 전혀 다른 느낌의 해석이었기 때문에 성별 하나가 이야기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여-에-25]

위의 학습 독자는 '나'의 젠더를 다르게 파악함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인물의 젠더를 여성, 남성으로 한정해 생각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한 의미의 변화 역시 다소 단순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젠더 구성의 과정이 텍스트의 의미 도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드러난다. 물론 각각의 해석 방향은 기존의 인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한 인물에 대한 다양한 젠더의 상상은 젠더를 비고정적으로 사유하는 태도의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 학습 독자: 그 주인공이 밤 산책을 하러 갔을 때도 [...] 처음에는 주인공을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을 때는 아무 이상한 점을 느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인공의 젠더를 남자로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남자가 화장을 하고 가발을 쓰고 구두를 신고 돌아다닌다 라고 하니까 아예 글의 해석이 전부 다 달라지게 되죠. 글에서도 나왔듯이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무섭고 차갑고 인간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 좀 시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 평소에 소설을 읽을 때도 주인공의 젠더를 확실하게 정하고 읽다 보니까 그 해석이 다양해지기보다는 한 가지로 통일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주인공의 젠더에 따라서 해석이 되게 다양하게 해지는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면-ⓜ-여-에-29]

위의 학습 독자 역시 인물의 젠더가 달라졌을 때 글의 해석이 전부 다 달라졌다고 말하며, 젠더 구성에 따라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재의미화한 텍스트는 주인공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한정되어 논의되고 있어 젠더를 다양하게 구성해본 과정을 포괄하기보다는 비규범적 젠더에 대한 인식으로 귀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물의 젠더를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해석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새로운 의미들을 종합해 텍스트를 재의미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 학습 독자의 경우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퀴어 인물에 한정된 것이 아닌 기존의 소설들로도 확장되어 구성적 젠더 관점에서 소설을 읽어낼 가능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연구자: 그러면 이 소설을 읽고 원래 읽었던 다른 소설들에 대해서 생각해본 게 있나요?
학습 독자: 원래 평소에는 아까 말했듯이 주인공의 젠더를 딱 하나로 정해놓고 읽다 보니까 해석이 정말 딱 한 가지로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다면, 이제는 소설을 읽을 때 이 주인공의 젠더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면 글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면-ⓜ-여-에-29]

이 학습 독자는 퀴어 인물의 젠더 구성을 통해 소설 일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기존의 소설에서 주인공의 젠더를 하나로 정해놓고 읽어냈을 때 소설의 해석 역시 한정적으로 제시된 것과 달리, 주인공의 젠더가 바뀌었을 경우에 달라질 수 있는 글의 해석을 상상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인물의 젠더를 비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했을 경우 소설의 해석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특히 소설은 허구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소설 해석에서 다양한 상상의 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젠더'와 같이 명확해 보이는 요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소설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서사적 상상력을 증진시키는 소설 읽기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학습 독자: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성을 좋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여성으로 살고 싶은데 여자를 좋아하는 게 좀 맞나 싶어서. 남성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연구자: 그러면 혹시 감상문을 쓰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에 변화가 있었던 지점이 있나요?
학습 독자: 이걸 쓰면서 이 인물이 여성을 좋아하게 된 게, 여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인아라는 인물과 감정을 교류하면서 인아라는 인물이 좋아진 거지 여성을 좋아하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약간 했었어요. [면-ⓜ-여-에-25]

위의 학습 독자는 젠더에 대한 사고를 통해 인물을 새롭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성이라면 남성을 좋아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인식을 벗어나, 젠더가 사랑하는 사람의 성별에 기반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새로운 사유를 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이 학습 독자는 인아에 대한 '나'의 사랑을 '여성'이라는 성 정체성에 대한 사랑이 아닌 인물 자체에 대한 사랑으로 새롭게 의미화해내고 있다. 이는 젠더와 사랑의 관계에 대한 관념을 수정하여 사랑이라는 감정을 탈-젠더적으로 사유해 인물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결국 인물의 젠더를 불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더라도 그러한 모호성이 인물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자는 그러한 모호성에 기반해 인물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며 이는 인물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나는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냥 여자와 여자가 하는 사랑만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여자와 여자의 사랑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계속 등장하는 인아의 전 결혼과, 다른 무엇인가 연민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나는 사랑 그 자체의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럼 전 결혼생활에서 남편에게 매일 밥을 해준 것은 사랑이 아닌 거냐고 묻는다면 나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글을 읽으면서 묘하게 사랑 말고도 느껴지는 말들이 많았다. [ⓜ-여-에-32]

위 학습 독자의 경우 소설의 의미를 단순히 "여자와 여자가 하는 사랑"으로 한정 짓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이러한 해석은 '인아'에 대한 사유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학습 독자들이 인아가 남성과 결혼했음을 들어 인아의 젠더정체성을 이성애자로 파악한 것[151]과 달리, 이 학습 독자의 경우 인아의 결혼생활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유를 인아의 젠더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지는 않

151) 관련된 학습 독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또, 비록 의사라는 직업만 보고 결혼한 것이긴 하지만 일단 남자와 결혼하였다는 것을 보면 당연히 [인아는] 이성애자라고 파악된다." [ⓜ-여-에-42] / "일단 인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다는 점에서 그녀는 이성애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에-41]

지만, 사랑의 문제가 젠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 독자의 이러한 사유는 여러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불명확한 젠더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준다. 즉 이 독자는 결혼을 했다는 사실 혹은 여성을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 인물을 특정 젠더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소설의 주제를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로만 귀결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랑 이외에도 정체성에 관여하는 여러 요소들을 인식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소설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절한 교육적 비계가 제공된다면 텍스트에 대해 자신이 의미화한 내용을 기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아마 장의 뼈를 가져오는 것은 성 소수자로[서] 남들의 시선 의식하고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것에서 벗어나 조금 더 당당해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행동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 마지막으로 내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이 있다면 사랑받지 못하도록 태어난 당신도 있다는 의미일까, 그런 당신은 누구고 저런 당신은 누굴까' 라는 문장이었다. [...] 즉 외부에서 한 사람에 대해 '~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 생각해보니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이 소설 속 조와 장의 동성애도 장의 가족들, 이웃들로 잘못된 사랑, 이뤄질 수 없는 사랑으로 정의되어왔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소설의 저자도 이러한 사회의 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이 소설을 통해 비판한 것 같다. [㉢-여-뼈-3]

위의 학습 독자의 경우 두 인물의 관계를 이성애로 파악했다가 '동성애'로 수정하여 파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장'의 뼈를 가져오려는 인물의 행동을 '정체성을 지키려는 것'으로 새롭게 의미화하고 있다. 물론 이 학습 독자의 경우 인물의 젠더를 '남성'으로 확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체성에 대해 어떠한 규정을 붙이는 것이 문제적이라고 이야기하며 타인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의 폭력성을 깨닫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정체성에 대한 외부의 규정을 문제 삼는 것은 유의미한 학습 독자의 반응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에는 소설에서 '조'와 '장'의 사랑에 문

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가 '동성애'가 사람들에 의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단일한 무엇'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함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 독자가 동일적 정체성을 요구하는 일의 폭력성을 인식한 것으로, 젠더 구성의 과정을 통해 비동일적 정체성에 대한 사유를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 생각해보자면, 강력한 사회고발적인 의미라기보다는 [...] 한 사람의 일생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을 온전히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우리 사회에도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을 온전히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많은 '나'들이 있기에 이 소설 속 '나'의 모습이 보여주는 사회의 문제점들은 현실 속에 그대로 존재한다. 나는 하루 빨리 스스로에게 비겁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세상이 되어서 소설 속의 '나'에게도, 현실의 '나'들에게도 이러한 '긴 형벌'이 끝마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여-에-7]

위의 학습 독자는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력한 사회고발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에 대한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정체성 안에 존재하는 여러 타자적 면모들에 대한 인식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젠더를 구성적 관점에서 파악했을 때 도출될 수 있는 사유이다. 이러한 독자의 태도는 퀴어 개념이 지닌 불확정성이 정체성을 정태적으로 사유하는 방식에서 탈피하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152]

특히 이러한 반응이 유의미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은 퀴어에 대한 연구들이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포함되지 않는 차원들, 즉 인종, 민족성, 탈식민적 시민성 등의 구성적이고 분절적인 정체성 담론들을 향해서도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퀴어는 단순히 젠더에 한정된 개념이 아닌, 언어, 피부, 국가 등의 분열적 복잡성에 새로운 정의를 행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사용

152) 양경언, 「미래(彌來), 미래(美來), 미래(未來) -퀴어 비평의 가능성과 조건들」, 『크릿터1호: 페미니즘』, 민음사, 2019, 60면.

되고 있는 것이다.[153]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독자의 사유는 젠더를 넘어선 퀴어함에 대한 독자 나름의 해석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특히 이를 '나'로 언표화하는 것은 이러한 퀴어성을 자신과의 연관 속에서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독자는 소설 속 인물, 현실의 퀴어, 그리고 자신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교차하며 만나는 지점을 사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독자들의 해석 텍스트는 젠더 구성의 과정이 퀴어적 사유를 자극하며, 나아가 소설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젠더 구성은 젠더의 모호성을 기반으로 소설을 다시 읽어낼 것을 요청하며 기존의 소설들에 나타난 젠더의 재현에 대해 독자의 문제의식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소설 읽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한계

지금까지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과정을 따라 학습 독자들의 읽기 양상을 살펴보았다. 학습 독자의 해석 텍스트에서 앞서 설정한 읽기 과정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여러 한계 지점들 역시 함께 드러났다. 이를 각 단계에 따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인물 젠더의 모호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젠더의 모호성을 간과하는 학습 독자의 양상이 드러났고, 둘째로 인물의 젠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고정적 젠더 인식을 재생산하는 한계 양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텍스트를 자기화하는 과정에서는 젠더의 무화를 통해 관습적 교훈을 도출하는 한계 양상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들은 각 단계들의 구현 양상과 마찬가지로 각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연결되어 나타난 것으로 한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 다음 단계에서 역시 한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독자의 한계는 적절한 교육적 처치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Ⅳ장에

153) Sedgwick. E.K., *Tendenci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3, 8-9면.

서 이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인물 젠더의 모호성 간과

일부 학습 독자들은 인물 젠더의 모호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독서를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 경우 학습 독자는 텍스트 이해에 있어 젠더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소설을 해석했다. 이처럼 인물 젠더의 모호성을 완전히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 젠더 구성의 과정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젠더 구성에 기반해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도출해내는 것 역시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 저는 '나(조)'와 '장' 모두 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이들이 '남성이다'라고 느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사회가 보통의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성 간의 사랑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글을 읽는 도중에는 그들의 젠더가 내용 전개와 해석에 그다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들의 젠더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내용을 해석하였습니다. [ⓜ-여-뼈-17]

위의 독자는 젠더의 모호성에 크게 주목하지 않은 채 주인공 인물의 젠더를 동성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젠더를 구성하기보다는 젠더에 대한 즉각적 판단을 내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결과 소설 해석에 있어서도 젠더의 영향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소설의 주제를 다소 일반화하여 파악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차후에 논의할 세 번째 한계 양상과 관련된 것으로, 인물의 젠더를 모호한 것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이로부터 또 다른 한계 지점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소설의 앞부분의 꿈에서 '그'가 장을 연인으로 부르는 것을 보아 장은 아마 여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는 남성이고, 장의 죽음을 잊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초반의 부분에서 꿈에서 그와 장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으로 보아 장을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사실 이 소설을 많은 부분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장이 여성이고 나는 남성이라는 인식에서 소설을 해석하면서 읽었는데, 한 여성이 사망하고 그 장례와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을 담은 소설이라고 생각된다. [ⓜ-남-뼈-23]

위의 학습 독자 역시 젠더의 모호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젠더를 단순히 인물에 대한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때문에 젠더에 대한 탐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젠더를 판단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텍스트를 단순히 요약해 기술하는 데에 그쳤으며, 앞선 학습 독자와 유사하게 일반적인 교훈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학습 독자들의 해석 텍스트는 소설에서 인물의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되었음에도 젠더를 빈자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인물의 젠더를 '여성' 혹은 '남성'으로 파악하더라도, 이는 젠더를 구성한 것이 아닌 젠더에 대한 단순한 판단으로 젠더를 무화시키는 결과와 다름없다. 이 경우에는 인물에 대한 일반적이고 평면적 이해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조'는 남자, '장'은 여자라고 판단했다. 우선 조의 경우 소설에서 '그'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남자라고 생각했고, 또한 무기력하게 집에 있다가 무턱대고 '장'의 납골당을 걸어서 찾아간다는 발상 자체가 남자일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했다. '장'의 경우 여자라고 생각했다. '조'가 '장'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작고 말랐고 체온이 높다. 아름답고 예민하다" 등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여자의 특성과 더 잘 맞는다. [ⓜ-여-뼈-7]

이 학습 독자 역시 '조'와 '장'을 각각 남성, 여성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젠더 표지가 다소 자의적인 해석을 동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무턱대고 행동하는 것, 작고 마르고 체온이 높다는 것, 아름답고 예민한 것 등은 특정 성별에만 사용될 수 있는 묘사가 아님에

도 위의 학습 독자는 기존의 젠더 인식을 활용해 이러한 표지들에 대한 해석을 반성 없이 재생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립스틱, 하이힐 등 보다 분명한 젠더 표지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졌던 것을 고려했을 때, 이 학습 독자는 젠더 인식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학습 독자가 표지의 발견과 해석을 자의적으로 정리해버린다면 젠더에 내재한 모순들을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때문에 표지의 판단과 해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메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래의 학습 독자는 '젠더' 자체를 배제하고 텍스트를 읽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역시 젠더의 모호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때문에 젠더 구성의 과정을 수행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소설에서 이 주인공들의 젠더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과 조가 여자,여자/남자,여자/여자,남자/남자,남자여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젠더를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소설을 내용을 이해하면서 젠더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남-뼈-20]

위의 독자는 주인공의 젠더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음을 인식했지만 그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소설 해석에 있어서도 젠더의 영향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이 학습 독자 역시 젠더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텍스트를 해석하였으며 다소 일반화된 주제를 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학습 독자의 태도는 오히려 윤리성에의 추구가 과도하게 젠더를 배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퀴어라는 타자를 이상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자 하는 윤리적 태도가 젠더를 무화시키는 태도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독자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인물의 젠더에 대한 의식적 배제가 드러난다.

> 읽으면서 인물들의 젠더가 모두 남자이지만 그 둘의 관계가 연인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이 퀴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인물의 성정체성이 인

물들의 부가적인 특징이라는 것 외에 소설을 해석 하는 것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다. [...] 사랑을 하면서 서로간의 애정 외에는 성별 또는 그 어떤 것들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여-뼈-3]

이 독자는 인물의 젠더를 모두 남성으로 파악해 '퀴어'로 의미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 독자에게 '퀴어'는 동성애에 한정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물의 성정체성 역시 인물의 '부가적 특징'일 뿐 소설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사랑에 있어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독자의 서술은 동성애 역시 사랑의 한 종류일 뿐임을 이야기함으로써 퀴어 혐오에 대한 저항을 표명하고자 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역설적으로 젠더에 대한 사유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독자가 인물의 정체성을 단순히 인물의 부가적 특징으로만 파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랑에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은 독자가 텍스트에서 인물이 퀴어라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 결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이 '퀴어'라는 개념 안에 담긴 모호성이 간과되었기 때문에 젠더 구성의 과정이 역동적으로 드러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습 독자의 양상은 현실의 퀴어에 대한 윤리적 태도에 비중을 두는 것이 오히려 인물에 대한 탐구를 가로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설 내에서 '젠더'가 인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정체성의 측면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젠더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젠더 구성의 과정을 깊이 있게 수행하여 인물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독자의 경우 해석 텍스트에서 자신이 인물의 젠더를 배제하고자 했던 이유를 탐구해보도록 하여 기존의 젠더 인식을 보다 반성적으로 사유하고 젠더 구성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인물 젠더의 모호성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젠더 구성의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성급하게 마무리해버린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고정적 젠더 인식을 재생산하고, 인물을 새롭게 이해하기보다 일반화된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를 관습적으로 도출하는 또 다른 한계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2) 고정적 젠더 인식 재생산

인물의 젠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드러난 주된 문제점은 고정적 젠더 인식을 단순히 재생산하는 태도이다. 학습 독자들은 대체로 여성/남성의 이분법적 젠더 인식에 기반해 해석 텍스트를 작성했다. 이 경우 인물의 젠더를 파악할 때 젠더의 균열과 모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규정된 젠더로서 동성애/이성애/양성애 정도를 상상하는 것에 그쳐 젠더에 대한 구성적 사고를 가로막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텍스트를 새롭게 전유하는 것을 가로막고 자신의 사고를 답습하는 문제를 낳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된 퀴어 인물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많은 학습 독자들이 인물의 젠더를 '동성애' 혹은 '트랜스젠더'로 확정해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이러한 성소수자에 대한 학습자들의 태도는 혐오와 인정의 두 가지로 양분되어 나타났는데, 이러한 양상은 성별 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각각 여학생,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1차와 2차 예비실험에서 여학생의 경우 보다 명확하게 성소수자, 동성애에 대한 옹호적 의견이 드러났던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로 소설을 의미화하더라도 이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 역시 남학생들의 경우 더욱 강하게 표출되었는데, 해당 학교에서 실험을 진행했던 교사 역시 이와 관련하여 교실에서 혐오발언이 다수 있었음을 이야기한 바 있다. 아래는 관련된 학습 독자들의 반응이다.

> [인물의 젠더에 대한] 나의 느낌이나 생각은 어? 이다. 동성애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이다. [㉡-남-뼈-8]

> 동성애자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동성애자를 배려한다는 부분에서는 나도 찬성한다. 하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저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솔직히 너무 징그럽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안쓰럽게 생각한다. [㉡-남-에

-12]

위의 학습 독자들은 인물을 '동성애자'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학습 독자들의 반응은 인물에 대한 젠더 구성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는 구성보다는 판단에 가까우며 특히 '동성애'라는 젠더정체성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드러나지 않은 채 기존 젠더 인식이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는 젠더 구성의 결과를 통해 인물을 이해하고 인물에 대해 탐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점에서 인물을 규정하고 배제하는 태도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인물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고 소설에 대한 해석을 발전시킬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한다.

물론 [㉡-남-에-12]의 경우 동성애자에 대한 양가적 생각을 기술해놓았는데, 이는 학습자들의 반감이 이미 화석화된 것이 아닌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성애에 대한 독자의 반감을 희석하는 것이 본 교육의 목표는 아니지만, 젠더 구성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젠더에 대한 생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때 이러한 혐오감은 인물의 젠더에 대한 다양한 사유를 가로막고 규범적·고정적 젠더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젠더 구성의 과정은 퀴어적 사유를 도입하는 것이기에 학습 독자에게 퀴어 자체에 대한 혐오가 강하게 드러날 경우 이러한 사유를 시도하기는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다.

> 요즘 사회에서 젠더에 관한 인식이 넓어지고 관대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라서 그런지 소설을 읽으며 내가 이렇게나 꽉 막힌 사람인가 생각할 정도로 거부감이 조금 느껴졌다. 물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그런 다른 점들은 서로 이해해가며 존중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동성끼리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아마 내가 소설 속 인물이라면 이 둘을 편견이 가득한 시선으로 보는 시민들 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여-에-42]

위의 학습 독자 역시 자신이 “이렇게나 꽉 막힌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인물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다고 밝힌다. 이 독자는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앞선 학습자들과 마찬가지로 퀴어에 대한 혐오가 내면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감을 단순히 교정의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혐오감 역시 인물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학습 독자 역시 자신의 혐오감을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편견”이라고 명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그러한 감정의 기원을 탐색하는 것을 통해 오히려 학습 독자의 성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 혐오의 원인을 탐구하고 이를 넘어서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것이다.

> 성별이 다르면 연인관계 같고 [성별이] 같으면 뭔가 그냥 친구 혹은 가족 관계 같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도 동성끼리 뽀뽀도 하고 장난치는 것은 봤어도 커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해-40]

> [성별에 따라 둘의 관계를] 다르게 생각하게 된다. 이성이면 사랑, 동성이라면 우정이라 생각된다. [㉠-여-해-63]

> [두 인물이] 좋아하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친구로서의 좋아함이나, 서로에 대한 작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 [㉠-여-해-115]

위의 학습 독자들 역시 인물의 젠더를 구성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동성 관계’로 확정 짓고 그에 따라 사고를 발전시키고 있다. 즉 텍스트 내에서 근거를 찾아 반성적 추론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기존에 나에게 존재하는 젠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인물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기준이 ‘내가 직접 현실에서 보았는지, 나에게 자연스러운지’와 같은 것이라는 점은 자기중심적 사고의 답습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즉 이는 젠더에 대한 고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기존의 젠더 인식을 재생산하며 변화

를 거부하는 태도로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학습 독자들에게 역시 젠더가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젠더 구성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혐오의 태도와 반대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정과 이해의 태도를 내보인 학습 독자들의 반응 역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154] 물론 젠더 구성의 과정 자체가 퀴어적 사유를 촉발하며 독자의 젠더 의식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독자는 자연스럽게 비규범적 젠더를 인식하고 퀴어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성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 역시 인물의 젠더를 고정적으로 사유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기존 인식을 재생산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독자의 경우 텍스트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내기보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윤리적 성찰로 텍스트 의미화를 끝마치는 양상이 드러난다.

> ‘나’가 이야기한 영화 속 장면은 레즈비언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부분이었다. 둔기에 맞아 피 흘리는 두 여성은 개인의 성정체성을 인정해 주지 못한 사회의 일방적인 피해자이다.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고 보호한다는 현대 사회 이면의 피해자인 것이다. [...] 나는 이 소설이 겉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성정체성을 존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정체성에 대해 예민한 우리 사회에 긴장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여-에-37]

154) 이러한 사고는 젠더를 윤리적 당위의 문제로 귀결시킬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윤리적 타자 이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를 내포한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2016)은 교과서에 나타난 정형화된 구조로서의 타자 이해 교육에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교과서에서 주로 사용되는 ‘낯선 사람을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그의 처지를 알고서 이해하게 된다’는 정형화된 구조는 타자 이해를 피상적 호감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동일성에 대한 강박을 유포한다는 것이다(박수현, 「문학 교과서의 타자 이해 단원 연구-2012고시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7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이러한 분석은 타자에 대해 교과서의 문법이 제시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는데, 이러한 담론에 익숙한 학습 독자의 경우 젠더 구성을 통해 퀴어를 동일자로 환원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타자의 타자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와 관련해 엄진주(2020)는 윤리적 타자 이해로서 타자가 지닌 타자성을 보편으로 환원해버리는 것이 아닌, 타자의 타자성을 그 자체로 존중하되 그러한 타자 지향의 관점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태도를 이야기한다(엄진주, 앞의 글, 22면).

이 학습 독자의 경우 소설 속에 나타난 '레즈비언'이라는 언술을 통해 '레즈비언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에 주목해 소설을 의미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소설을 개인의 성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 긴장감을 준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평가는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독자의 기존 인식을 답습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젠더를 고정적으로 사유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혐오를 통해 퀴어를 거부하는 태도와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즘적 주체의 환상적 시선'에 기반해 타자를 인정하는 태도라는 점에서도 문제적일 수 있다.[155] 즉 이는 젠더의 모호성에 대해 탐구의 과정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채 기존의 인정 담론의 연장에서 인물의 젠더를 '퀴어'라는 타자로 확정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 나는 평소에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이나 고통을 외국 드라마들을 많이 보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황정은의 〈뼈 도둑〉을 읽으면서 동성애자 캐릭터에 느낀 감정은 매우 새로웠다. 전까지 봤던 드라마에서는 평소에 몰랐거나 혼란이 있었던 어리숙한 캐릭터들이 점차 성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보았다면, 이 소설에서는 '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 정체성이 무너져버리는 과정을 드러냈다는 차이가 있어서 더 신선하게 느껴졌고, 집에서 쫓겨난 후에 나타난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후반부 때문에 기억에 더 남기도 한다. [...] 이 소설은 사회가 요구하는 젠더적 '정상', 그를 넘어 정상과는 다르다고 인식되는 구성원들에 대한 배재와 폭력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생각나게 한다. [...] 이 사회가 개인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감정을 이입해가면서 감상할 수 있었다. [㉤-남-뼈-19]

155) 임은희(2013)는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동성애 소재의 한국 단편 소설을 분석하여, 소설 속에서 동성애자가 아닌 성적 주체가 타자인 소수자로서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과정을 연민, 혐오, 공포의 시선으로 분류했다. 이를 '연민/혐오, 공포 - 수용/거부'라는 이분항적 시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선들은 모두 '나르시시즘적 주체의 환상적 시선'에 기반해 '타자'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보았다(임은희, 「동성애의 다문화적 인식에 나타난 타자성 고찰: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동성애 소재가 나타난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30, 대중서사학회, 2013).

위의 학습 독자의 경우 평소 성소수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소설을 통해 새로운 성소수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통해 젠더의 비고정적 면모를 사유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그들이 겪는 배제와 폭력에 더욱 초점을 맞춰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재생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학습 독자의 경우 앞서 퀴어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학습 독자보다 수용적 태도로 인물에 접근한다는 점에서는 인물 이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들은 앞서 인물 젠더의 모호성을 간과하는 한계와 마찬가지로 젠더를 고정적으로 사유한다는 점에서 젠더가 지닌 빈자리를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인물에 대한 새로운 사유들이 나타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교육적 방안을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

3) 젠더의 무화를 통한 관습적 교훈 도출

학습 독자가 소설을 자기화하는 과정에서는 젠더의 무화를 통해 관습적 교훈을 도출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경우 학습 독자는 '젠더'의 문제에 주목해 인물을 인식하기보다는 인물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관습적 소설 읽기의 방식대로 소설 이해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일반적 교훈의 도출은 앞서 고정적 젠더 인식을 재생산하는 독자의 태도와 유사하게 독자가 젠더 구성의 과정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젠더 구성의 과정을 수행한 학습 독자의 경우에도 이를 인물에 대한 이해 및 텍스트의 의미와 연결 짓지 못한 학습 독자의 경우 젠더 구성과 유리된 교훈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학습 독자에게서 젠더 구성과 인물에 대한 이해가 분리된 채로 나타난 것은 젠더 구성의 과정이 학습 독자에게 낯선 것으로서 텍스트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외부적 요소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내준다.

> 사실 이 소설을 많은 부분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장이 여성이고 나는 남성이라는 인식에서 소설을 해석하면서 읽었는데, 한 여성이 사망하고 그 장례와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을 담은 소설이라고 생

> 각된다. […] 이 소설은 성당에서 사랑을 나누지 않는 모습, 염을 상업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아 각박한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 같다.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뼈-23]

위의 학습 독자의 경우 등장인물인 '장'과 '나'의 젠더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 없이 두 인물의 젠더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한 여성이 사망하고 그 장례와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소설을 요약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인물과 젠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 독자는 각박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소설을 의미화 하였는데 이는 독자가 기존에 익숙하게 느끼던 소설과 유사한 주제를 도출하려는 관습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 사실 저는 정확하게 이 소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인생에 대해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나(조)'의 입장에서 상황을 서술하며, '장'이 죽고 난 후의 '나(조)'의 생각과 심리를 서술하며 사랑하는 이가 죽고 난 후의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소설은 우리와 다른 누군가의 기구한 인생에 대해서 알고 그에 공감하며 무언가를 깨닫길 바라면서 서술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뼈-17]

위의 학습 독자는 인물을 단순히 연인을 잃은 사람의 모습으로 해석하여, "우리와 다른 누군가의 기구한 인생"에 대해 공감하길 바라는 것으로 소설의 의도를 파악한다. 이는 앞선 학습 독자와 유사하게 인물의 젠더를 부정성의 자리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젠더의 모호성을 인식하고 그에 주목하기보다 인물이 처한 외면적 상황을 통해 관습적 교훈을 도출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인물을 단순히 '우리와 다른 누군가'로 파악하며 인물과의 거리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은 현대사회의 기준에 있어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알려주고 공감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점차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감정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아'와 '나'의 관계와 감정들은 현대사회에 있어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소설을 읽어보면 이들이 왜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에-43]

위의 학습 독자 역시 인물의 이야기를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어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난 원인을 사회의 발전에서 찾고 있다. 물론 이 독자는 소설 읽기를 통해 이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공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관습적 소설 읽기의 방식에 기대 인물에 대한 이해를 기술한 것으로 여기에서 인물이 지닌 특수성은 지워지며 "다양한 사람들"로 추상화된 인물만이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젠더 구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물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몇 번 더 읽다보니,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젠더를 넘어서서 자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 '자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회에 억압되어, 또는 삶을 살아가기에 바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시간조차 없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며 살아가야하는 현대인들의 슬픈 현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 우리 모두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편견을 깨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에-9]

앞선 학습 독자들이 퀴어 인물을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의미화했다면, 위의 학습 독자는 이와 달리 퀴어 인물을 일반화시켜 파악하는 모습을 보인

다. 때문에 젠더를 넘어선 자아에 대한 이야기로 소설을 파악하며 특히 인물이 처한 상황을 “현대인들의 슬픈 현실”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환원하고 있다. 이는 앞선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독서 관습에 따라 일반적 교훈을 도출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인물을 이해하는 과정의 연장 속에서 인물과 나 사이의 연관성을 사유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텍스트 내의 교훈이 확장되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미화되었다는 점에서는 텍스트를 전유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젠더는 근본적으로 “편견을 깨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는 것과는 다른 층위의 문제이며 젠더와 관련한 문제가 “바쁜 삶”에서 비롯되는 것 역시 아니다. 이 독자의 경우 동일적 요소를 발견해 타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젠더가 무화되어 타자의 타자성이 지워지고 텍스트의 의미가 일반화되는 한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젠더의 무화를 통해 관습적 교훈을 도출하는 학습 독자의 경우 ‘젠더’라는 맥락에서의 보다 특수한 접근이 필요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객관적인 정보로 해석했던 젠더가 인물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는 젠더라는 틀로 인물을 이해해봄으로써 새로운 맥락에서 소설을 자기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Ⅳ.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설계

지금까지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개념과 과정을 밝히고, 읽기 과정에 비추어 학습 독자의 읽기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학습 독자의 해석 텍스트 및 면담 자료를 통해 젠더 구성과 그를 통한 인물 이해의 과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였고, 본고에서 제시한 읽기 과정에 따라 학습 독자가 읽기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각의 단계에서 학습 독자의 해석 텍스트에는 여러 한계 지점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Ⅳ장에서는 이러한 학습 독자의 읽기 양상을 토대로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을 보다 실제성 있게 설계해보고자 한다. 특히 학습 독자의 한계 양상에 주목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구안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1.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은 기존의 소설 읽기 교육이 인물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것과 달리 젠더를 중심으로 인물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인물의 젠더를 소설의 새로운 빈자리로 설정하여 이를 채워나가는 독자의 사고 과정을 '젠더 구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때 젠더 구성의 과정은 판단의 과정이 아니며, 그렇기에 독서를 지속하는 동안 종결되지 않는다. 독자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존의 고정적 젠더 인식을 반성하며 젠더를 구성적으로 사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탐구는 인물과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견인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소설 읽기의 문법 속에서는 독자가 젠더 구성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퀴어 인물'을 통해 젠더 구성의 단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설 읽기에서 인물 독해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인물은 소설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소설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나 인물 독해

는 주로 인물에 대한 정보 및 성격 파악의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젠더 구성을 통해 인물 이해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인물 독해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 인물의 젠더는 지금까지 인물에 대한 객관적 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했지만, 젠더는 인물 해석에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보다 깊이 있게 탐구될 필요성을 지닌다. 독자는 젠더 구성을 통해 인물에게서 정체성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물 젠더 구성의 과정은 학습자의 해석 능력을 강화하는 소설 읽기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궁극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학습 독자의 소설 읽기 지평을 확장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

둘째, 구성적 관점에서 인물 젠더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는 것이다. 인물의 젠더는 소설에서 일반적으로 구성이 아닌 판단의 문제로 취급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고정적 젠더 인식은 인물에 대한 평면적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내포한다. 젠더는 인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성적 젠더 인식을 통해 인물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물 젠더 구성의 과정은 소설 내에서 인물의 젠더를 빈자리로 발견하는 것으로, 이러한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은 결코 명확하게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고정적 젠더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젠더의 불확정성에 대한 인식은 젠더를 탐구의 대상으로 만들어주며 이는 인물에 대한 심화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구성된 것은 언제든 해체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유연한 젠더 인식은 인물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인간에 대한 성찰을 통해 타자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인물은 실제 인간과 동일시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복잡한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이유로 인물은 독자의 삶에서 의미를 획득하기도 한다. 때문에 본 연구 역시 인물에 주목한 소설 교육을 설계하고 있는 만큼 인물에 대한 성찰이 인간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어 타자 이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소설 교육의 최종적 목표와도 관련된 것으로, 소설 읽기 자체가 타

인의 삶을 추체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설을 통해 현실의 타자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물 젠더 구성의 과정은 젠더에 내재한 여러 불확정적인 요소들을 통해 비동일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함께 자기 안에 존재하는 타자성의 지점들을 일깨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퀴어 인물은 실존하는 퀴어에 대한 사고를 환기해 사회적 억압 속에 있는 타자에 대한 사유 역시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은 이와 같이 인물의 젠더를 구성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인물과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Ⅱ장에서 제시한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의의 세 가지와도 연결되며, 다음 절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볼 것이다.

2.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내용

이 절에서는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Ⅱ장에서 제시한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과정과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 양상을 토대로 '인물과 젠더의 관계 인식', '퀴어 인물을 통한 비고정적 젠더 이해', '인물 이해를 통한 텍스트 재인식'의 세 가지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세 가지의 교육 내용은 단계적 절차로 설정되었으나, 각각은 분리된 것이 아닌 상호작용하는 관계로서 교육의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각각의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제적 방법은 다음 절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1) 인물과 젠더의 관계 인식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것은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학습 독자의 읽기 양상에

서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인물을 단순히 인간 일반으로 이해하는 한계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작중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인식하도록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인물 이해 교육에서 인물의 젠더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요소였기 때문에 텍스트를 읽으며 독자는 젠더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관습적으로 인물을 독해하기가 쉽다. 때문에 기존의 소설 읽기에서 인물의 젠더가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일이 교육의 내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인물이 남성이기 때문에, 혹은 여성이기 때문에 인물을 특정 방식으로 독해한 적은 없는지, 젠더에 따라 인물 이해를 달리한 적은 없었는지 등을 고민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학습 독자들의 한계 양상에서 인물 젠더의 모호성을 간과하게 되는 것 역시 텍스트 이해에 있어 젠더를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경우 젠더를 모호한 것으로 발견하기보다 단순히 인물에 대한 객관적 정보로 받아들여 해석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닌다. 이때 독자는 젠더에 대한 고정적 이해를 무의식적으로 답습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사고를 메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몇몇 학습 독자들은 퀴어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형성하고자 의식적으로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지우고 '인간 일반'으로 인물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즉 학습 독자들은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젠더를 무화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물의 젠더를 관습적으로 답습하는 것과 윤리적 이유로 무화시키는 것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탐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본 연구에서 많은 학습 독자들은 질문지와 감상문 양식의 발문을 통해 젠더를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보다 잘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전문 독자의 비평 등을 이용해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사고하도록 한다면, 학습 독자들은 젠더 구성을 수행할 필요성을 느낌으로써 젠더 구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퀴어 인물을 통한 비고정적 젠더 이해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핵심 내용으로는 퀴어 인물을 통해 비고정적 젠더를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젠더 구성'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소설 읽기의 방법으로 인물의 젠더를 빈자리로 발견하고 그를 채워보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즉 이는 젠더의 모호성을 인식하고 인물의 젠더가 무엇일지를 나름대로 상상해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부 학습 독자는 젠더 구성의 과정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해 고정적 젠더 인식을 재생산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고정적 젠더 인식을 답습한 학습 독자들은 젠더 구성의 과정을 독서를 끝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수행하기보다는 인물의 젠더를 특정한 것으로 결론짓고 텍스트 해석을 끝마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젠더의 모호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한 탐구로 이어지지 않고 정답을 찾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탐구의 과정이 빠르게 종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젠더 구성이 빠르게 종결되는 원인은 젠더 표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젠더 표지의 발견과 해석이 사회적 통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젠더를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인물의 젠더 표지는 인물의 젠더를 정의내리는 투명한 근거로서 작용할 수 없다. 오히려 젠더는 인물이 남성, 여성이라는 호명에 의해 특정 젠더로 규정된 뒤에 그 인물의 특성들을 각 젠더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때문에 인물의 젠더를 정답의 문제로 취급하기보다는 그에 대해 계속된 탐구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비고정적인 젠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독자는 젠더를 의심하지 않고 읽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젠더의 작동 방식을 단번에 깨닫고 젠더를 빈자리로서 발견해내기란 쉽지 않다. 이때 퀴어 인물은 이러한 인식의 비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독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젠더를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퀴어 인물의 젠더 구성을 하나의 단계로 설정하여 소설 일반으로의 확장을 꾀하고자 한다.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된 퀴어 인물의 경우 독자에게

분명한 정답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는 보다 자유롭게 인물의 젠더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기존의 읽었던 소설들에 대한 새로운 독해를 요청하는 동시에 앞으로 읽어나갈 소설들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젠더 구성 활동에 적합한 소설을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참조할 수 있다. 첫째로는 텍스트 내에서 '그녀', '오빠' 등과 같이 젠더를 특정하는 직접적 호명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호명은 학습 독자에게 젠더를 사실로서 받아들이게 해 젠더를 빈자리로 발견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이 경우 인물의 젠더를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젠더에 대한 탐구를 중단하게 될 수 있다.

둘째로는 인물을 묘사하는 데 있어 여러 젠더 표지들이 혼재되어 드러나야 할 것이다. 이는 젠더이분법을 해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한 인물에게서 모순되는 젠더 표지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 독자는 인물의 젠더를 쉽게 확정할 수 없게 된다. 즉 독자가 계속해서 인물의 젠더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도록 관습적 젠더 표지들이 충돌하며 드러나는 인물이 젠더 구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와 같이 퀴어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156]의 일부를 발췌해 사용하거나 전문을 인용해 대상 텍스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배수아의 『에세이스트의 책상』의 시작 부분이다.

> 더 많은 음악, 하고 목소리는 말했다. 그 목소리는 비와 구름으로 무겁게 덮인 하늘 아래 온 세상을 지배했다. 빗물을 가득 머금은 공기가

156) 대부분의 퀴어 소설은 동성애적 관계를 묘사하는데, 두 인물이 동성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기보다는 인물의 젠더를 모호하게 재현하다가 후에 젠더를 명시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러한 장치는 퀴어 소설이 이성애 중심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독자에게 새로운 충격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때문에 대부분의 퀴어 소설의 경우 독자가 인물의 젠더를 빈자리로 발견하고 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연구자가 본 연구를 위해 고려했던 대상 텍스트들로는 강화길의 「방」, 배수아의 『에세이스트의 책상』, 『독학자』, 윤이형의 「루카」, 최은영의 「그 여름」, 황정은의 「무지개풀」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 소설에서 역시 여러 젠더 표지들을 통해 인물의 젠더를 모호하게 재현하려는 시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 열린 차창으로 들어와 M의 오른편 머리카락과 뺨에 맺혀 흘러내렸다. M과 나는 비가 들판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다. 빗물은 M의 희고 윤기 없이 창백한 이마를 지나 감기를 앓은 다음이라 더욱 움푹 들어간 눈두덩과 끝이 약간 아래쪽을 향한 코를 따라 흘러내렸다. 마지막 순간에 M이 고개를 들자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엷고 섬세하며, 미소 짓고 있지 않을 때라도 양옆으로 충분히 길고, 아침의 태양빛이 스며든 듯 밝고 붉은 입술로 떨어졌다. 섬세하고 완만하게 두드러진 골격의 광대뼈, 학교에 다닐 무렵 핀 족 혹은 에스키모 인의 광대뼈, 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 바로 아래의 피부가 경련하듯 순간적으로 떨리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157]

이 소설은 소설의 중후반부까지 인물의 젠더가 명시되지 않는다. '나'와 M이라는 호명은 인물의 젠더를 모호한 것으로 독자에게 제시하며, 위의 발췌된 부분에서 M에 대한 외적 묘사가 길게 이어지지만 이러한 젠더 표지들은 계속해서 독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 쉽게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때문에 독자는 인물의 젠더를 빈자리로 인식해 탐구하게 되는데, 이는 독자가 텍스트 내에서 젠더 파악의 근거를 찾아 인물의 젠더를 구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퀴어 인물을 통해 비고정적 젠더를 이해하게 된다면, 독자는 기존에 명확한 것으로 판단했던 인물의 젠더에 대해서도 여러 젠더 표지를 찾음으로써 젠더 구성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독서 과정 내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독자가 젠더에 대한 탐구를 빠르게 종결하지 않도록 능동적 소설 읽기를 계속해서 자극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인물 이해를 통한 텍스트 재인식

인물 젠더 구성의 과정을 통해 독자는 인물의 젠더를 비고정적인 것으로 사유하게 된다. 이러한 사유는 인물, 나아가 텍스트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작중 인물에 대한 이해를 통해 텍스트를 재인식했

157) 배수아, 『에세이스트의 책상』, 문학동네, 2003, 5-6면.

을 때 독자는 이를 기반으로 자기 이해를 진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물에 대한 이해와 그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일은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단계에서는 학습 독자가 인물의 젠더를 해석의 자원으로 삼기보다 젠더를 무화시켜 관습적 교훈을 도출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는 학습 독자들이 젠더를 기반으로 하여 인물을 이해하기보다는 젠더 구성의 과정과 인물 이해, 나아가 텍스트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을 분리하여 수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젠더 구성의 과정 속에서 인물의 젠더에 대해 사유하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인물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진척시키고 그를 통해 텍스트를 재인식하는 것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젠더 구성을 통해 인물에 대해 달리 이해하게 된 내용을 충분히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다시 인식하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젠더 구성의 과정은 젠더이분법 체계에 저항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이분법의 경계를 상상하는 퀴어적 사유이다. 때문에 독자는 우선적으로 젠더 자체에 대한 모호성을 느끼고 인물의 젠더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인물의 젠더는 단순히 인물의 부가적 속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즉 젠더에 대한 탈이분법적 사유는 젠더를 넘어 인물의 말과 행동, 생각 등에 대해서도 독자에게 재인식을 요청하는 것이다. 때문에 비고정적 젠더 인식은 독자에게 인물 자체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요청하게 된다. 인물의 젠더가 불확실해졌을 때 인물의 성격 등에 대해 독자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 역시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독자는 텍스트 내에서 확실한 것으로 보였던 요소들을 불확정적인 것으로 재발견해내며, 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젠더 구성이 기존의 정전들에 대해 비판적 독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젠더 구성의 과정은 소설 일반으로 확장되었을 때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기존의 텍스트에서 객관적 사실로 여겨졌던 젠더 안에 여러 타자적 계기들이 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될 때 독

자는 소설을 다르게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소설 내에서 배제되고 편향된 것들에 주목해 텍스트의 의미를 사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를 지닌다.

이처럼 젠더 구성의 과정이 소설을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계기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젠더 구성이 텍스트의 의미와 동떨어진 절차가 아닌 텍스트 해석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단계가 될 필요가 있으며 독자가 이러한 연결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교육 내용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의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

3.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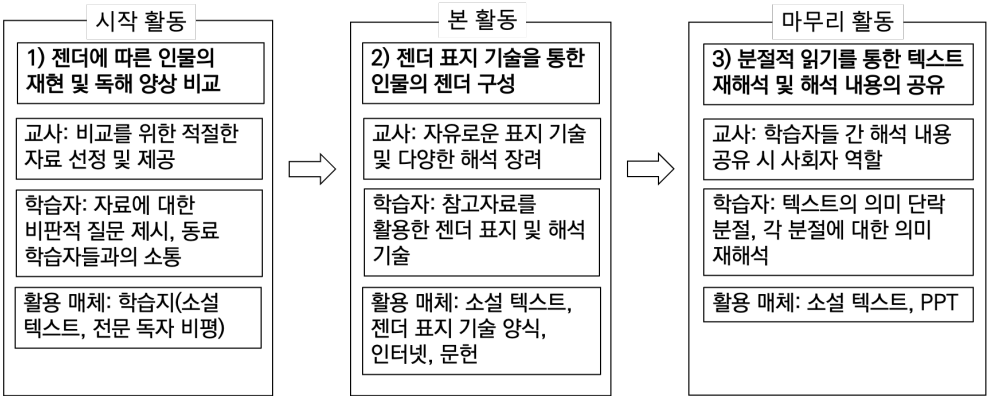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교육의 내용에 대응시켜 각각 ‘젠더에 따른 인물의 재현 및 독해 양상 비교’, ‘젠더 표지 기술을 통한 인물의 젠더 구성’, ‘분절적 읽기를 통한 텍스트 재해석 및 해석 내용의 공유’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방안은 Ⅲ장에 나타난 학습 독자의 한계 양상을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덧붙여 ‘젠더’에 관한 담론이 교육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학습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교육 내용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대응시켜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4.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인물과 젠더의 관계 인식	젠더에 따른 인물의 재현 및 독해 양상 비교
퀴어 인물을 통한 비고정적 젠더 이해	젠더 표지 기술을 통한 인물의 젠더 구성

인물 이해를 통한 텍스트 재인식	분절적 읽기를 통한 텍스트 재해석 및 해석 내용의 공유

이러한 교육 방법은 교육 내용과 마찬가지로 단계적 수행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독자는 우선 젠더에 따른 인물의 재현 및 독해 양상을 파악해봄으로써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인식해 젠더를 염두에 둔 소설 읽기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퀴어 인물의 젠더를 구성해봄으로써, 젠더의 비고정성을 이해하고 젠더에 내재한 모호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후 독자는 인물의 젠더정체성을 구성한 것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다시 분절적으로 읽으며 의미를 새롭게 도출해보고, 이를 동료 학습자들과 공유함으로써 해석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육 방법은 아래의 각 항에서 설명하도록 하되, 아래의 그림을 통해 대략적 수업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총 2-3차시의 수업을 시작 활동, 본 활동, 마무리 활동[158]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하위 블록들을 통해 각각의 단계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그리고 각 활동에서 사용하는 매체들을 제시하였다.



[그림 1. 교수·학습 과정의 실제]

158) 최지현 외에서는 '도입, 전개, 정리'를 대신해 '시작 활동, 본 활동, 마무리 활동'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도입, 전개, 정리의 용어가 교사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수업 국면을 구조화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이다. '시작 활동, 본 활동, 마무리 활동'은 교사뿐 아니라 학습자의 활동까지 포괄할 수 있으며 다차시 수업의 구조화와 단계화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최지현 외,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2007, 69-71면). 본 연구에서 역시 이를 인용해 여러 차시의 수업을 구조화하여 설계해보고자 했다.

1) 젠더에 따른 인물의 재현 및 독해 양상 비교

젠더에 따른 인물의 재현 및 독해 양상을 비교하는 것은 첫 번째 교육 내용인 인물과 젠더의 관계 인식을 위한 방법으로서 설정되었다. 특히 이는 소설을 읽으며 젠더의 문제를 간과하는 독자들에게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의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소설 독해에 있어 인물의 젠더를 중요시하지 않았던 독자에게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젠더가 미치는 영향을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인식하도록 하는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료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소설에서 젠더에 따른 인물의 재현 양상을 비교해놓은 것이다. 학습자들이 교과서에서 주로 접하는 소설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으며, 젠더에 따라 각 인물의 위치가 고정적으로 재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교사는 학습자들과 이미 읽었던 소설 중에서 젠더에 따른 인물의 재현 양상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작품을 선정해 인물 형상화 방식을 비교한 자료를 학습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문학교육에서 이러한 재현은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성찰의 목소리들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159] 또한 이는 손정수(2018)가 지적한 것과 같이 학계의 논의에 한정된 것이 아닌 최근 독자들로부터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독서 경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현대의 독자들은 정전의 재현 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독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160] 때문에 학습 독자에게 익숙하거나 이미 읽었던 텍스트의 경우 학습자 스스로 인물의 재현 방식을 비교해 정리해볼 수도 있을

159) 우신영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성별 편중성을 분석해 집필진 및 수록 제재 작가의 성비가 불균형함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소설 내의 재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장에서 젠더 문제의 비대칭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 담론을 통해 교육을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우신영, 「문학 교과서의 성별 편중성 분석: 젠더의 눈으로 문학 교과서 읽기」, 『교육문화연구』 25(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160) 손정수, 앞의 글.

것이다.

교사가 제공하거나 학습자가 스스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은 젠더에 따른 인물의 재현 방식에 비판적 질문을 던져보고 다른 방식의 재현이 가능했을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때 개별 학습자들이 홀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젠더에 따른 인물 재현 방식의 비교를 위한 제재로는 기존의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대부분의 소설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손정수(2018)와 박은정(2020)의 연구에서 사용된 제재들은 김승옥의 「무진기행」,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등으로 교과서에 수록되어 대부분의 학습자들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작품들이다. 「무진기행」에서 '하인숙'이 재현되는 방식이나 「운수 좋은 날」에서 아내를 그리는 방식은 이들의 직접적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때문에 이와 같은 소설들을 통해 젠더에 따른 인물의 재현 양상을 비교해본다면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보다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소설 내의 재현뿐만 아니라 소설 외부에서 독자가 인물을 독해하는 양상 역시 젠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독해 양상의 비교를 통해서도 독자는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인물 독해 양상을 살펴볼 때에는 전문 독자의 비평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교사는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젠더에 따라 인물을 독해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드러나는 자료를 선정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습 독자들은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상호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자료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던지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전문 독자 비평의 예시 자료이다.

[표 5. 젠더에 따른 인물 독해 양상 비교 자료의 예시]

〈남성 인물 중심 해석〉	〈여성 인물 중심 해석〉
김승옥의 소설 속 인물들은 '자기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근대인의 표상을	김승옥 소설 속 여성은 성녀이거나 창녀, 둘 중 하나다. 전자가 신비화·낭

보여준다. 이 '자기세계'는 그의 등단작 「생명연습」에서부터 그의 문학세계에서 줄기차게 견지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 김승옥의 1960년대 소설은 근대라는 괴물을 만든 것도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자아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럴 때에는 자아와 또 다른 자아, 주체로서의 '나'와 타자로서의 '나'가 대립함으로써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이 더 문제적임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창조자'인 동시에 '파괴자'이기도 한 '개발자'로서의 이중성을 지닌 근대적 자아의 복합적이면서도 모순적인 의미에 대한 김승옥의 1960년대식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161]	만화 된 숭배의 대상이라면, 후자는 통속화·조작화 된 멸시의 대상이다. 둘은 일견 상반 돼 보이지만 결국은 모두 실제 존재하는 여성들을 타자화시킨다는 점에서 공히 문제가 된다. 더군다나 그들은 허약한 근대 지식인 남성들이 자기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조된 것이다. [...] 김승옥 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여성 '누이', 혹은 '누나'는 문명의 질서가 개입되지 않은 원시적 고향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표상한다. [...] 한편, 이러한 성녀의 반대편에 '창녀'로서의 여성이 있다. [...] 「생명연습」, 「염소는 힘이 세다」, 「건」등 소설 속 남성들은 여성들을 범하거나 범하고자 한다. 권력관계의 비대칭성을 담지하고 있는 남녀 관계에서 이 남성들의 시선에 포획된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만 존재한다. 남성에 의해 언제든 탈취, 또는 정복당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162]

위의 비평 내용은 같은 저자의 글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김승옥 소설에 대해 상이한 관점의 해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자료는 김승옥 소설에서 주인공으로 제시되는 남성 인물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이 인물의 이야기가 '자아' 혹은 '주체'의 이야기로 읽히는 반면, 여성 인물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는 소설 내에서 여성이 타자화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인물의 젠더에 따라 소설 해석에 차이가 있음을 잘 드러내준다. 이러한 자료를 학습 독자에게 제공하여 비판적으로 사유하도록 했을 때, 독자는 인물의 젠더에

161) 송주현, 「김승옥 소설과 여성혐오」, 『문화와 융합』 40(2),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472-473면(밑줄 인용자).
162) 위의 글, 475면(밑줄 인용자).

따라 독해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며 젠더가 단순히 인물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아닌 비중 있게 탐구되어야 할 대상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료들은 젠더를 이분화하여 고정하는 것으로 독자에게 젠더를 구성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다. 그러나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학습 독자의 경우 이러한 고정적, 이분법적 젠더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재생산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의식화는 불확정적인 젠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더라도 학습자의 새로운 사유를 추동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습자는 젠더에 대한 여러 반성적 사고를 통해 비고정적 젠더 인식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물과 젠더의 영향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학습 독자들에게 젠더 구성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며 인물에 대한 다른 관점의 해석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한다. 젠더는 무엇보다 독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일 뿐 계속해서 인물 이해에 작용해왔던 기제이기 때문에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이러한 무의식적 작동 기제를 인지하도록 해 독자의 해석 과정을 더욱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2) 젠더 표지 기술을 통한 인물의 젠더 구성

인물의 비고정적 젠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젠더 표지 기술을 통해 인물의 젠더를 구성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표지의 발견과 해석은 인물의 젠더가 남/녀로 명확하게 제시되는 기존 소설들에서는 시도되기 어려울 것이라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퀴어 인물을 활용해 독자가 젠더 구성의 과정을 수행하도록 했는데, 실제 교육에서 역시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드러나듯 젠더 표지의 기술은 텍스트를 처음 읽으며 이루어지는 것으로 독자는 텍스트 전문을 읽어나가며 스스로 인물의 젠더 표지라고 생각되는 요소들과 표지에 대한 해석을 기술하게 된다. 교사는 이때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된 텍스트를 독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

다.[163] 표지를 기술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독자는 스스로 어떤 것들을 근거로 인물의 젠더를 판단하는지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을 통념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자연스럽게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 독자가 인물의 젠더를 고정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그 안에 내재한 균열의 지점들을 느끼도록 해주며 인물의 젠더를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때 젠더 표지의 기술의 용이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양식을 학습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표 6. 젠더 표지 기술 양식]

인물 이름:		**내가 찾은 젠더 표지**	**표지에 대한 해석**
인물에 대한 호명	이름		
	대명사		
	보통 명사		
	호칭		
인물의 외양 및 성격 묘사	외모		
	행동		
	말투		
	기호		
	성격		
다른 인물과의 관계성	애정 관계		
	우정 관계		

위의 양식은 앞서 연구자가 제시한 젠더 표지의 분류를 기초로 하되, 표지에 대한 학습 독자의 해석을 적을 칸을 마련하고 학습 독자가 새로운 종류의 표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빈 칸의 표를 아래에 추가하였다. 젠더 표지를 무작정 기술하라고 했을 때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 독자가 있을 수 있기

163) 구체적인 텍스트 선정 기준은 앞서 교육 내용의 장에서 상술하였다('2.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내용' 중 '2) 퀴어 인물을 통한 비고정적 젠더 이해' 참조).

에 비계 마련을 위해서는 대략적인 분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 제시하였다.

교사는 학습 독자들이 자유롭게 표지를 기술하도록 하되,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표지들을 찾을 것을 강조해야 하며 표지의 해석과 관련해 정답이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 독자들이 개인의 젠더 인식만을 이용해 표지를 찾을 경우 사회적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에 인터넷과 문헌 등의 참고자료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표지와 해석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 텍스트인 「에우로파」의 경우에도 제목인 '에우로파'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로서 하나의 젠더 표지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학습 독자의 해석 텍스트에서 이를 표지로 발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표지 해석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교사가 개입해 적절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개별적으로 독서를 하며 표지를 기술한 이후에는 동료 학습자들과의 공유를 통해 보다 다양한 젠더 표지와 해석 내용을 인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젠더 표지에 대한 세세한 기술은 고정적 젠더 인식을 답습했던 학습 독자들의 한계 양상을 보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학습 독자는 표지를 찾고 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기술함으로써 자신의 젠더 인식을 메타적으로 점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젠더에 대한 혐오나 동정의 정서 등을 느낀다면 이것 역시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독자는 이러한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을 의식화함으로써 즉각적 반응으로서의 감정과 거리를 두며 성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독자는 이러한 거리두기를 통해 젠더 구성의 과정을 수행하고 인물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젠더 표지의 구체적 기술을 통해 독자는 인물의 젠더를 구성적으로 사고하게 되며 비고정적 젠더 인식에 기반해 인물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젠더라는 개념 안에서 충돌하는 여러 면모들을 발견함으로써 비고정적 젠더 인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인물이 여성 혹은 남성이기 때문에 인물에 대해 단편적으로 판단했던 사실들을 재고하게 하며, 인물에 대한 이해를 쉽게

종결하지 않고 계속된 탐구를 통해 인물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

3) 분절적 읽기를 통한 텍스트 재해석 및 해석 내용의 공유

마지막으로 인물 이해를 통한 텍스트 재인식의 방법으로서 '분절적 읽기를 통한 텍스트 재해석 및 해석 내용의 공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독자는 앞선 단계를 통해 인물과 젠더의 영향 관계를 인식하며, 젠더 표지를 찾고 그에 대한 해석을 기술함으로써 젠더를 모호한 것으로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는 기존의 이해 내용과는 다르게 인물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때 새롭게 이해한 내용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분절적으로 읽는 것[164]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독자는 인물과 젠더의 관계를 인식하고 젠더 표지를 기술함으로써 젠더를 비고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구성적 젠더정체성에 기반해 인물을 이해했을 때는 그 내용이 인물의 젠더를 고정해놓고 사유했을 때와 차이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습 독자들의 해석텍스트에서는 젠더 구성을 통해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젠더를 무화시켜 관습적 교훈을 도출하는 한계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인물의 젠더에 대한 탐구가 텍스트의 의미 해석에 영향을 주지 못한 채 두 단계가 분리된 채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젠더의 불확정성에 기반해 인물

---

164) 김명순·변혜경(2012)은 텍스트성에 기반해 텍스트의 미시적 차원의 의미를 생성해내는 읽기를 '미시적 읽기'로 정의하며, 이를 독자가 의미 생성의 차원에서 텍스트와 이루는 '미시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특히 이 미시적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명시적인 표층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 차원의 의미를 구성해내는 것으로, 학습자 수준, 교육의 의도에 따라서 텍스트를 분절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본 연구에서 역시 젠더 구성을 통해 텍스트에 명시된 젠더를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롭게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방법으로 분절적 읽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시적 읽기'와 맞닿아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분절적 읽기는 미시적 읽기와 마찬가지로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와 관련해 스스로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텍스트의 각 부분마다의 의미를 구성해낸 것을 종합해 텍스트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지향한다(김명순·변혜경, 「미시적 읽기의 개념화와 교육적 함의」, 『새국어교육』 90,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293-298면).

을 다시 이해해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학습 독자가 보다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분절적 읽기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절적 읽기란 텍스트를 중심 사건 등을 기준으로 6-7개로 분절하여 각 분절별로 읽는 것으로,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한 번에 생각하기보다 각각의 분절에서의 의미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 보다 꼼꼼한 읽기가 가능하다.

때문에 젠더 표지와 그에 대한 해석을 기술하며 1차 독서를 마친 학습자들이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바로 정리하기보다 텍스트를 분절하여 각 장면에서 인물의 생각이나 행동을 다시 해석해본다면 젠더 구성을 통해 달라진 텍스트의 의미를 보다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전반의 의미를 한 번에 기술하는 경우 텍스트의 의미를 더욱 관습적이고 익숙한 것으로 도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장면을 나눠 읽는 것은 인물의 모호한 젠더를 기반으로 텍스트 내의 중심 사건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해 소설의 맥락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인물에 대한 이해를 수정하거나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고 그를 통해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새롭게 도출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텍스트를 여러 분절로 나누는 기준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분절 역시 학습 독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독자는 스스로 텍스트의 의미 단위들을 나누어보고, 텍스트 해석에 있어 중요하게 파악해야 할 장면들을 구분해냄으로써 인물 이해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젠더 표지 기술을 통해 인물의 젠더를 구성해본 뒤 독자는 다시 텍스트를 분절에 따라 읽어나가며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 후 각각의 분절들에서 도출한 의미를 하나로 종합해 텍스트 전체를 의미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독자는 스스로 텍스트 해석에서 정말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독창적인 해석을 내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 독자 개인의 독해 내용은 동료 학습자들과의 공유를 통해 보다 풍부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교사는 이때 학습 독자들의 해석 공유 과정에서 사회자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 독자들의 해석에 있어 비슷하거나 다른 생각들을 정리하여 이야기해주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독자

들은 이처럼 동료 학습자들과의 해석 내용을 비교해봄으로써 개인적 관점을 넘어 다양한 관점에 대한 사유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이는 작가가 정해놓은 정답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독자들에 의해 새롭게 구성되는 여러 의미들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V.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인물 이해 교육에서 문제시 되지 않았던 인물의 젠더를 구성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소설 읽기의 새로운 방법을 마련해보고자 했다. 특히 인물의 젠더를 소설 내의 빈자리로 발견하여 이를 채우는 과정을 '젠더 구성'이라 명명하였고 젠더 구성을 통해 인물과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함을 이야기하였다.

세부적으로 Ⅱ장에서는 인물과 젠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텍스트 분석과 전문 독자의 비평을 참조해 구체적 읽기 과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젠더 구성의 개념은 버틀러의 관점을 참조한 것으로 버틀러는 젠더가 단일하거나 고정적인 실체가 아닌 수행을 통해 구성되는 것임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을 따라 본고는 기존의 인물 이해에서 객관적 정보로 파악되었던 젠더를 구성적 관점에서 파악하며 젠더에 내재한 균열과 모순의 지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이러한 젠더를 소설 읽기의 빈자리로서 발견하여 판단이 아닌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를 인물의 젠더를 빈자리로 발견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읽기라고 개념화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퀴어 인물을 통해 이러한 젠더 구성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했는데, 이는 젠더가 모호하게 재현된 퀴어 인물을 통해 학습 독자가 보다 수월하게 인물의 젠더를 빈자리로 발견할 수 있으리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퀴어 인물을 통한 젠더 구성은 비고정적 젠더 인식에 대한 단계적 접근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소설 일반에서의 젠더 구성의 과정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를 수행하기 위한 읽기 과정으로는 인물 젠더의 모호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통념 및 반성적 추론에 의해 인물의 젠더를 구성하며, 젠더 구성을 통해 텍스트를 자기화하는 것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는 젠더를 구성적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며 새로운 인물 해석의 가능성을 인식하여 소설 읽기의 지평을 확장하게 된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읽기 과정에 비추어 학습 독자의 해석 텍스트 및 면담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학습 독자의 소설 읽기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자는 퀴어 인물을 통해 젠더에 내재한 모호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젠더를 나름대로 구성해 텍스트의 의미를 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퀴어 인물의 젠더 구성을 기반으로 기존의 소설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젠더 구성의 과정을 소설 일반에 확장시켜 적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각각의 단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 양상 역시 드러났는데, 이는 인물 젠더에 내재한 모호성을 간과한 경우, 고정적 젠더 인식을 재생산한 경우, 젠더를 무화시켜 관습적 교훈을 도출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이러한 한계점들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읽기의 과정이 서로 유기적 연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임을 잘 드러내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Ⅳ장에서는 인물 젠더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구체적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해보고자 했다. 특히 이는 학습 독자의 한계 양상을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 교육의 목표로는 소설 읽기에서의 인물 독해 능력의 신장과 구성적 관점에서 인물 젠더에 대한 이해의 함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성찰을 통한 타자 이해의 확장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위한 교육의 내용으로는 인물과 젠더의 관계 인식, 퀴어 인물을 통한 비고정적 젠더 이해, 인물 이해를 통한 텍스트 재인식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고, 각각의 내용을 위한 교육의 방법으로서 젠더에 따른 인물의 재현 및 독해 양상 비교, 젠더 표지 기술을 통한 인물의 젠더 구성, 분절적 읽기를 통한 텍스트 재해석 및 해석 내용의 공유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물의 젠더를 인물 해석의 새로운 자원으로 삼음으로써 인물 이해를 다양화하는 데에 기여했다. 둘째, 빈자리 개념을 통해 소설의 불확정성을 인식하도록 해 학습 독자의 능동적 읽기를 촉진하였다. 셋째, 구성적 젠더에 대한 이해를 함양시켜 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습자의 윤리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젠더'를 구성적 관점에서 사유한다는 것이 학습 독자에게 다소 어

려운 사고과정이라는 점은 적절한 보완을 요구하며, 젠더 구성의 과정을 퀴어 인물에 한정해 논의했기에 소설 일반으로의 확장 가능성 역시 더욱 논의될 필요성을 지닌다. 또한 교육의 방법을 실제 실험을 통해 검증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지점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황정은, 『파씨의 입문』, 창비, 2012.
한강, 『노랑무늬 영원』, 문학과지성사, 2018.
최진영, 『해가 지는 곳으로』, 민음사, 2017.

2. 국내 논저

강경석, 「묵시록과 계급: 백민석의 '폭민'과 최진영의 여자들」, 『창작과 비평』 45(3), 창비, 2017.
강계숙 외, 「심사 경위 및 심사평」, 『문학과사회』 25(1), 문학과지성사, 2012.
강병철·하경희, 「청소년 성소수자의 긍정적 성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2), 한국청소년학회, 2012.
강진호, 「소설 교육과 타자의 지평」, 『문학교육학』 13,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강초롱, 「시몬 드 보부아르의 육체에 대한 윤리적 성찰 -『제2의 성』을 향한 비판에 대한 재고찰」, 『불어불문학연구』 102, 한국불어불문학회, 2015.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2.
김건형, 「2018, 퀴어전사 -前史·戰史·戰士」, 『문학동네』 25(3), 문학동네, 2018.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김명순·변혜경, 「미시적 읽기의 개념화와 교육적 함의」, 『새국어교육』 90,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김명인, 「민족문학론과 90년대 이후의 한국소설」, 『창작과비평』 32(3),

2004.
김미정 외, 『크릿터1호: 페미니즘』, 민음사, 2019.
김선경·윤소정·김정섭, 「추론적 읽기전략 프로그램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텍스트 이해와 국어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23(1),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1.
김애령, 「서사 정체성의 구성적 타자성」, 『해석학연구』 36, 한국해석학회, 2015.
김지원, 「해체적 그래픽디자인의 모호성에 대한 해석: 볼프강 이저의 수용미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김지혜, 「페미니즘, 레즈비언/퀴어 이론, 트랜스젠더리즘 사이의 긴장과 중첩」, 『영미문학페미니즘』 19(2),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11.
김진석·설덕종, 「소설교육과 인물」, 『교육발전』 35(1), 서원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교육연구소, 2015.
김형중, 「민족문학의 결여, 리얼리즘의 결여」, 『창작과비평』 32(4), 창비, 2004.
김효정, 「문학 수용에서의 공감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노이정, 「주디스 버틀러 수행적 젠더 이론과 성별의 정치학」, 『연극평론』 92,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19.
노지승, 「전후 소설에 나타난 남성 정체성의 문제와 문학교육적 함의 -서기원·손창섭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3, 한국문학교육학회, 2010.
류수열 외, 『문학교육개론 Ⅱ: 실제편』, 역락, 2014.
박수자, 「추론적 읽기의 지도 방법 연구」,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2006.
박수현, 「문학 교과서의 타자 이해 단원 연구 -2012고시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7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박은정, 「젠더적 관점에서 비판적 다시 쓰기 수업 사례와 의의」, 『리터러시

연구』 11(3), 한국리터러시학회, 2020.
박 진, 『서사학과 텍스트이론』, 소명출판, 2014.
박찬기 외, 『수용미학』, 고려원, 1992.
박혜숙,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고전문학연구』 14, 한국고전문학회, 1998.
박호강, 「젠더정체성의 사회적 구성과 젠더이데올로기」, 『사회과학연구』 7(1),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배수아, 『동물원 킨트』, 이가서, 2002.
_____, 『에세이스트의 책상』, 문학동네, 2003.
별, 「K의 LGBT 서가를 위하여: 국내에서의 퀴어 청소년소설 수용현황 검토」, 『삐라: 퀴어인문잡지』 1, 노트인비트윈, 2012.
서세림, 「재난 서사와 사랑 담론 -201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사이(SAI)』 29,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0.
선주원, 「작중 인물 이해를 통한 소설교육 연구 -언어적 이미지와 상징성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67, 한국국어교육학회, 2004.
소영현 외, 『문학은 위험하다』, 민음사, 2019.
손정수, 「한국 소설의 수용 의식에 나타나고 있는 비심미적 독서 경향과 그 문학교육적 의미 -수업 과정에서 젠더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9, 반교어문학회, 2018.
손향숙, 「아동문학과 퀴어」, 『영미문학교육』 16(2),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2012.
송주현, 「김승옥 소설과 여성혐오」, 『문화와 융합』 40(2),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 『질적 연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신형철, 「당신의 X, 그것은 에티카」, 『문학동네』 42, 문학동네, 2005.
안재희, 「학교의 사회자본에 기반한 청소년 성 정체성 형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6, (사)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07.
양정실, 「해석 텍스트 쓰기의 서사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엄진주, 「소설 읽기에서의 타자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오세란, 「LGBT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성소수자 인물의 정체성 구현 방식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5,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9.
오윤주, 「타자 지향의 소설 교육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오혜진, 「지금 한국 퀴어문학장에서 퀴어한 것은 무엇인가(1)」, 『문학과사회』 31(4), 문학과지성사, 2018.
우신영, 「문학 교과서의 성별 편중성 분석: 젠더의 눈으로 문학 교과서 읽기」, 『교육문화연구』 25(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윤국희, 「황정은 소설에 나타난 '윤리적 폭력' 비판」, 『한국근대문학연구』 20(2), 한국근대문학회, 2019.
윤대석, 「대칭성의 문학 교육 시론」, 『선청어문』 4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20.
윤리라, 「빈자리 채우기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 -일인칭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윤성우, 『폴 리쾨르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4.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1.
이상일, 「고전소설의 인물 이해 교육 연구: 인물 정보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이선우, 「'대낮'의 삶과 '밝아지기 전'의 윤리: 한강 『노랑무늬영원』(문학과지성사, 2012)」, 『자음과모음』 19, 자음과모음, 2013.
이수진, 「독자 기대지평 변화에 따른 소설 읽기 교육 연구 -젠더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이유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그 교육적 의미 -〈홍계월전〉과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이희정, 「구성된 젠더 정체성의 해체: Cloud Nine과 M.Butterfly」, 『영학논집』 27,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2004.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 여이연, 2006.
임은희, 「동성애의 다문화적 인식에 나타난 타자성 고찰: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동성애 소재가 나타난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대

중서사연구』30, 대중서사학회, 2013.
정미숙·유제분,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시학」, 『한국문학논총』 54, 한국문학회, 2010.
정은경, 「현대소설에 나타난 “동성애” 고찰 - 천운영과 배수아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9, 현대소설학회, 2008.
정혜경, 「퀴어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서사전략과 재현의 정치성」, 『열린정신인문학연구』 18(2),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정호웅, 「이호철의 『逆旅』와 문학교육-‘타자 이해’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8, 구보학회, 2018.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조대훈, 「침묵의 교육과정을 넘어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사회과교육」, 『시민교육연구』 38(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6.
조현일, 「미적 동일시의 유형과 소설교육」, 『우리어문연구』 47, 우리어문학회, 2013.
조현준, 「나에서 우리로, 젠더에서 인간으로: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과 『젠더 허물기』 비교 연구」, 『여성문학연구』 4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주영준 외, 「소셜 Q&A 사이트의 질문 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고민에 대한 이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20.
주재홍,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로부터 알게 된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질적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3(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차미령, 「너머의 퀴어 -2010년대 한국소설과 규범적 성의 문제」, 『창작과비평』 45(2), 창비, 2017.
_____, 「사랑과 고통-성정치에 관한 파편 단상: 배수아 장편소설 『에세이스트의 책상』을 다시 읽으며」, 『문학동네』 54, 문학동네, 2008.
채태준, 「'한국형 아포칼립스 비판'에 질문하기 -퀴어/세대 아포칼립스 『해가 지는 곳으로』를 중심으로」, 『문화연구』 8(1), 한국문화연구학회,

2020.
최기숙, 「여성 인물의 정체성 구현 방식을 통해 본 젠더 수사의 경계와 여성 독자의 취향 -서울지역 세책본 〈하진양문록〉의 서사와 수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최다정, 「퀴어와 연애하기-문화정치학으로 본 영화 〈줄탁동시〉와 소설 「뼈도둑」」, 『삐라: 퀴어인문 잡지』 1, 노트인비트윈, 2012.
최시한, 「소설 읽기지도 방법의 모색(2) -인물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최윤정, 「또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성평등의식과 태도 연구(1): 남녀 청소년의 또래 문화와 젠더의식 격차 비교」, 『ISSUE PAPER』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최인자, 「작중 인물 의미화를 통한 소설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최지현 외,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2007.
최현주, 「이저의 수용미학에 대하여」, 『호남학』 3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5.
편정인, 「퀴어 청소년문학의 터전을 마련하다」, 『문화연구』 8(1), 한국문화연구학회, 2020.
한국소설학회, 『현대소설 인물의 시학』, 태학사, 2000.
한아름, 「한강 소설에 나타난 주체와 타자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한주연, 「'젠더' 관점에서의 인물 접근 방법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홍지연, 「서사의 인물 형상화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 역서 및 국외 논저

Adorno. T.W., 홍승용 역, 『미학이론(*Ästhetische Theorie*)』, 문학과 지성

사, 1997.
Allrath. G. and Gymnich. M., 「페미니즘 내러톨로지(*Feministische Narratologie*)」, Nünning. A. and Nünning. V., 조경식 외 역, 『서사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Neue Ansätze in der Erzähltheorie*)』, 한국문화사, 2018.
Aristotle, 천병희 역, 『시학(*Peri poietikes*)』, 문예출판사, 2002.
Austin. J.L., 김영진 역, 『말과 행위(*How to do things with words*)』, 서광사, 1992.
Beauvoir. S., 이정순 역, 『제2의 성(*Le Deuxième Sexe*)』, 을유문화사, 2021.
Butler. J.,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비판 :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Giving an account of oneself*)』, 인간사랑, 2013.
_____, 조현준 역, 『젠더트러블(*Gender Trouble*)』, 문학동네, 2008.
_____, 조현준 역, 『젠더 허물기(*Undoing Gender*)』, 문학과지성사, 2015.
Chatman. S.,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이야기와 담화(*Story and discourse :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민음사, 1995.
_____,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Story and discourse :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푸른사상, 2003.
Doty. A., *Making Things Perfectly Queer: Interperting Mass Cultu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Forster. E.M., 이성호 역, 『소설의 이해(*Aspects of the novel*)』, 문예출판사, 1984.
Foucault. M.,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Histoire de la sexualité : La volonté de savoir*)』, 나남, 2004.
Fry. P., 정영목 역, 『문학이론(*Theory of literature*)』, 문학동네, 2019.

Gadamer. H.G., 이길우 외 역, 『진리와 방법 1(*Wahrheit und Methode*)』, 문학동네, 2012.

_____, 임홍배 역, 『진리와 방법 2(*Wahrheit und Methode*)』, 문학동네, 2012.

Hatch. J.A., 진영은 역, 『교육 상황에서 질적 연구 수행하기(*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학지사, 2008.

Ingarden. R., 이동승 역, 『문학예술작품(*Literarische Kunstwerk*)』, 민음사, 1985.

Iser. W., 이유선 역, 『독서행위(*Der Akt des Lesens*)』, 신원문화사, 1993.

Jagose. A., 박이은실 역, 『퀴어이론 입문(*Queer theory : an introduction*)』, 여이연, 2012.

Lukács. G.,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Die Theorie des Romans*)』, 심설당, 1998.

Ricoeur. P., 김윤성·조현범 역, 『해석이론(*Interpretation theory :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서광사, 1998.

_____, 김한식·이경래 역, 『시간과 이야기1(*Temps et récit : intrigue et récit historique*)』, 문학과지성사, 1999.

_____, 박명수·남기영 편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Du texte à l'action*)』, 2002.

_____, Thompson. J.B. 편역, 윤철호 역,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Hermeneutics and the human sciences*)』, 서광사, 2003.

Rimmon-Kenan. S.,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Narrative fiction : contemporary poetics*)』, 문학과지성사, 1985.

Sedgwick. E.K., *Tendenci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3.

Tyson. L., 윤동구 역, 『비평이론의 모든 것(*Critical theory today*)』, 앨피, 2012.

4. 기타 자료

《무지개 책갈피》 홈페이지, (http://rainbowbookmark.com/new/).

ABSTRACT

A Study on Novel Reading Education through Gender Construction of Character - Focusing on queer character -

Suhyeon, Choi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cept and process of novel reading education through gender construction of a character and to present specific educational plans by paying attention to the gender of character in novel reading. In particular, this study identifies the gender of a character as an essential factor influencing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 It aims to devise novel reading education through gender construction of character, focusing on the ambiguity inherent in the gender.

Character is a critical element in the interpretation of novels, and even within literature education, novel education centered on characters has been discussed a lot. However, understanding a person is mainly based on the character's personality, and gender has no more meaning than one piece of information in

understanding the character. However, even if the reader is not aware of it, the gender of the character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haracter, which is essentially not transparent. Therefore, the gender of the character is not simply treated as a matter of fact judgment but needs to be an object of inquiry.

This study, citing Judith Butler's discussion, identified gender as uncertainty constructed of several signs. In addition, referring to Wolfgang Iser's concept of blank, tried to discover a gender of character as a blank that has not functioned as such so far. The blank in text is an uncertain place in the novel that needs to be discovered and filled by the reader during the reading process. The blank also plays a role in strengthen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ext and the reader. Therefore, discovering the gender of a character as a blank makes it possible for the reader to interact more actively with the text filling the blank of "gender" and using the gender as a resource for text interpretation.

In the end, "reading a novel through gender construction of character" can be defined as a reading that discovers new meanings of the text by finding the gender of the character as blank in the novel and filling it out. In particular,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the possibility of such gender construction through queer characters because queer characters whose gender is vague reveal the contradictions in the gender of character more directly. Through these queer characters, the learning reader will reflect again on gender that has been accepted as a fact without doubt and further, recognize the meanings newly discovered through gender construction for standard novels.

Specifically, this study sets the process of reading novels through the gender construction of character was set as 1) perception of ambiguity of gender of character 2) gender construction of character 3) appropriation of the text through gender construction of character. Based on this, the learning reader's interpretation text and interview contents were analyz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learning readers performed gender construction through this steps. The learning reader first recognized the ambiguity of the gender of a character, complained of difficulties, or showed a positive perception of this ambiguity. The perception of ambiguity of gender naturally led the reader to construct the gender of the character. In this process, conventional wisdom and reflective reasoning worked simultaneously. In addition, this process of gender construction allowed readers to reflect on the personal and social perceptions of gender, showing the possibility of re-meaning the text.

However, the limitations were also revealed in the learning reader's reading process. Education plans were suggested as a supplement to each limitation of process that overlooks the ambiguity of character's gender, reproduces fixed gender perception, and derives conventional lessons through disregarding of gender.

Specific educational goals were to enhance the ability of understanding character in novel reading, foster awareness of gender in a constructional point of view, and expand understanding of others through reflection on humans. There are three contents of education for this: 'recogni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and gender', 'understand of non-fixed gender through queer character', 're-meaning of the

text through an understanding of character'. Specific methods to realize the contents of education were presented as 'comparison of representation and reading patterns of characters according to gender', 'gender construction of character through describing gender signs', and 'interpretation through segmental reading and sharing contents of interpret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character interpretation and diversified the method of reading novels by using gender of character as a new resource for character interpretation.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proposed a new educational plan called gender construction to promote the active reading of learning readers, as it newly discovers the gender of character as a blank. Through this, learning readers will broaden their human understanding and have a new opportunity to appropriate novels, which will provide meaningful literary experiences to themselves.

Keywords : gender construction, blank, understanding character, queer, novel reading education
Student Number **: 2020-27642**